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2017년 11월호

리아후나

연차 대회 말씀





© 마이클 미스맨 및 마크 마브리, 복사 금지.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나아갑니까? 지난 4월, 러셀 엠 넬슨 회장님과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구주에 대해 배우기 위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공부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더 집중하여 공부하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외우려고 노력하자, 구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 영감에 찬 문장 하나하나에는 교리적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역할과 지상에서의 사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숙고하자 예수께서 참으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심을 확실히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 비 빙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85쪽.

신앙의 눈으로,
마이클 미스맨 및 마크 마브리

여성 총회

- 6 너희 빛을 밝히라
셸런 유뱅크
- 10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간극을
메우십시오
닐 에프 매리엇
- 13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조이 디 존스
- 16 세 자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토요일 오전 모임

- 21 분향을 향한 그리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25 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보니 엘 오스카스
- 28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32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존 시 핑그리 이세 장로
- 36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스 장로
- 40 그러므로 너희도 종국에는 온전하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 43 교회役員 지지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44 영적인 일식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 48 회개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스티븐 더블유 오언
- 51 영원한 일상
쿠엔틴 엘 쿡 장로
- 55 신성한 계획에 따라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 58 과부의 마음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 60 몰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러셀 엠 넬슨 회장

신권 총회

- 64 신권,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
데일 지 렌랜드 장로
- 68 모든 것의 참됨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 75 주님과 가족의 신뢰를 얻음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 78 하늘의 빛을 지닌 사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81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일요일 오전 모임

- 85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진 비 빙엄
- 88 기적의 날이 그쳤느냐?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 90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94 주님께 향하십시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
- 97 주여 당신께서 제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더블유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
- 100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일요일 오후 모임

- 104 여정은 계속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107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 몰몬경
태드 알 콜리스터
- 110 함께 있지 않을 때도 하나가
되십시오
조니 엘 코흐 장로
- 112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까? 힘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 115 우리가 따라야 할 필수적인 진리
아덜슨 드 파올라 파렐라 장로
- 117 가장 좋은 책에서 구하라
이안 에스 아던 장로
- 119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호세 엘 알론소 장로
- 122 주님의 음성
닐 엘 앤더슨 장로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및 교회 본부 역원
- 127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28 교회 소식
- 137 와서 나를 따르라—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용



제187차 반연차 대회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저녁, 여성 총회

사회: 진 비 빙엄.
 개회 기도: 메구미 야마구치.
 폐회 기도: 레슬리 피 레이턴.
 음악: 유타주 파크시티 지역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연합 합창단; 지휘: 제인 펠스테드;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어 찬송가, 41장, 카슨 편곡, 잭맨 출판; "Sing Praise to Him", 영어 찬송가, 70장, 펠스테드 및 굿리프 편곡; "의와 진리 지키기에", 찬송가, 141장; "We have partaken of thy love", 영어 찬송가, 155장, 펠스테드 및 굿리프 편곡.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오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래리 알 로렌스 장로.
 폐회 기도: 마시모 데 페오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 라이언 머피; "주 사랑하는 자", 찬송가, 119장; "Arise, O God, and Shine", 영어 찬송가, 265장, 윌버그 편곡, 옥스포드 대학 신문 출판;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찬송가, 29장, 윌버그 편곡;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찬송가, 53장, 머피 편곡; "신앙의 발자취", 데일리, 잭맨 출판.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오후 모임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로렌스 이 코브리지 장로.
 폐회 기도: 앨런 에프 패커 장로.
 음악: 유타주 미드베일과 샌디 지역의 스테이크 청소년 합창단; 지휘: 리아 태런트;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겟츠;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윌버그 편곡, 데저렛북 출판; 샬리 디포드 편곡 메들리: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아들 보내셨네", 어린이 노래책, 20쪽; "내 영혼이 햇빛을 받아", 찬송가, 153쪽;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카슨 편곡, 잭맨 출판.

2017년 9월 30일 토요일 신권 총회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케빈 더블유 피어슨 장로.
 폐회 기도: 라파엘 이 피노 장로.
 음악: 유타주 캐시 카운티 지역 스테이크의 아버지와 아들 합창단; 지휘: 제프리 앤더슨;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찬슨; "세상은 즐거워 일하는 일꾼 필요하네", 찬송가, 161장, 달튼 편곡, LDS Music Source 출판; "은밀한 기도", 찬송가, 78장, 카슨 편곡, 잭맨 출판; "군도가 그 기초", 찬송가, 35장;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가, 25장, 카슨 편곡, 잭맨 출판.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오전 모임

사회: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마이클 티 링우드 장로.
 폐회 기도: 호세 에이 테제이라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앤드루 언스위스, 클레이 크리스찬슨;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찬송가, 56장; "전진하세 주 예수 믿으니", 찬송가, 55장, 윌버그 편곡; "Consider the Lilies", 호프만, 라이언 편곡, 소노스 출판;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윌버그 편곡; "하나님께 영광", 찬송가, 49장; "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나 그리스도 믿습니다", 찬송가, 70장, 윌버그 편곡, 잭맨 출판.

2017년 10월 1일 일요일 오후 모임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조셉 더블유 시타티 장로.
 폐회 기도: 에번 에이 쉬무츠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겟츠, 보니 굿리프;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 찬송가, 14장, 머피 편곡, 미출판; "오늘 세상에서 선행 일 했다", 찬송가, 182장, 자브리츠키 편곡, LDS Music Source 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구주 내 곁에 계시면", 디포드, 카든 편곡; "애통하는 이스라엘", 찬송가, 10장, 윌버그 편곡.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온라인에서 여러 언어로 시청 또는 청취하고 싶다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연차 대회 말씀은 복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된 연차 대회 자료는 disability.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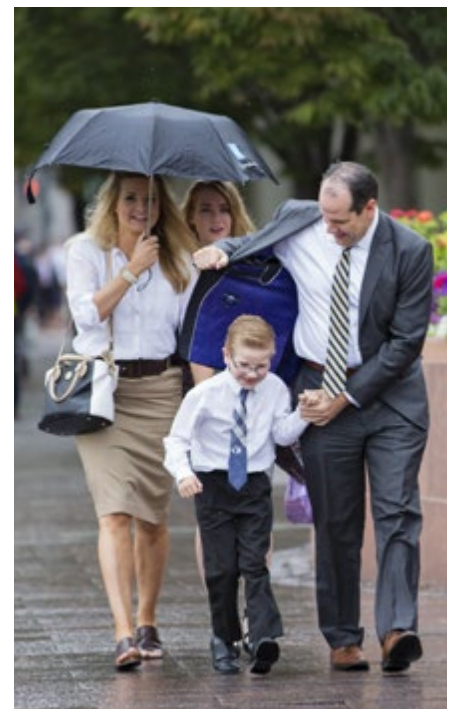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상황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표지

앞표지 사진: 레슬리 닐슨.
 뒤표지 사진: 크레이그 다이먼드.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사진: 코디 벨, 자네 빙엄, 메이슨 코벌리, 랜디 콜리어, 웨스턴 콜튼, 크레이그 다이먼드, 애슐리 라슨, 레슬리 닐슨, 맷 라이어, 데이브 와드.



리아호나 14451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터 에프 후르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게이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랜런드

편집자: 우고 이 마르티네즈

부편집자: 랜들 케이 베네토, 캐럴 에프 맥קי

고문: 브라이언 케이 에쉬턴, 보니 에이치 코드, 리그랜드 알 커티스 이세, 에드워드 듀브, 쉐런 유뱅크, 도널드 엘 홀스트롬, 더글러스 디 홀름, 에릭 더블유 쿠퍼슈워케

관리 책임자: 리차드 아이 히튼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에덤 시 울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출판 보조: 데비 베이컨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메리사 드니스,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드, 매튜 디 플리트, 로리 플라, 게리 에이치 가르, 라린 포터 건트, 존 라이언 켈슨, 살럿 라카발, 마이클 알 모리스, 에릭 비 머우, 셸리 존슨 오데커크, 조슈아 제이 퍼키, 켄 핀보로우, 리처드 엠 톨니, 민디 셸루, 메리사 윌슨

편집 인턴: 새라 시 키난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타슨

디자인: 제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멘디 벤틀러, 시 킴벌 보트, 토마스 차일드, 데이비드 지네스, 콜린 윙글라, 에릭 피 존슨, 수진 로프그렌, 스콧 엠 무이, 애들리 치예코 레밍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런호스트

디자인 인턴: 아자이라 라모스

지역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관리자: 제인 엘 피타스

제작팀: 글렌 어더어, 줄리 버넷, 토머스 지 크로닌,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지니 제이 빌스, 테레 리처드슨

사건 인쇄: 조슈아 데니스

인쇄 책임자: 스티븐 티 루이스

배부 책임자: 트로이 알 버커

우편 주소: Liahona, FL 23,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3, USA.

통권: 제620호, 제54권, 제1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7년 1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이호상

편집인: 안덕현

번역 책임자: 최봉선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자하문로 152

인쇄인: 한국출판정보(주) 채중준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http://l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liahona-korea@ldschurch.org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70-4816-2500)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원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리아호나 “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아나어, 마살어, 말라가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루어, 스와힐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중국어(간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티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태국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7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저작권 정보: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리아호나에 실린 자료는 교회 및 가정에서 (교회 부를 관련 목적을 포함하여)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FL 13,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November 2017 Vol. 41 No. 11,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507.1.5.2)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연사 색인

게리 이 스티븐슨, 44
닐 에프 매리엇, 10
닐 엘 앤더슨, 122
델린 에이치 옥스, 28
더블유 크레이그 즈위크, 97
더블유 크리스토퍼 외델, 9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90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68
데일 지 랜런드, 64
도널드 엘 홀스트롬, 88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6
디터 에프 후르트도르프, 16, 21, 78
러셀 엠 넬슨, 60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55
리처드 제이 메인즈, 75
보니 엘 오스카슨, 25
빈센트 오 할레크, 58
쉐런 유뱅크, 6
스탠리 지 엘리스, 112
스티븐 더블유 오언, 48
아달슨 드 파올라 파렐라, 115
엠 러셀 벨라드, 104
이안 에스 아던, 117
제프리 알 홀런드, 40
조니 엘 코호, 110
조이 디 존스, 13
존 시 핑그리 이세, 32
진 비 벵엄, 85
쿠엔틴 엘 쿡, 51
태드 알 콜리스터, 107
헨리 비 아이어링, 43, 81, 100
호세 엘 알론소, 119

주제 색인

가정, 21, 90
가족, 25, 28, 75, 115
간증, 68, 78, 85, 100, 107
감독, 81
감사, 58
개인의 가치, 13, 40
개종, 13, 58, 60, 115, 117
개혁자, 104, 112
거룩함, 36
결혼, 75
겸손, 44, 51
경건 공부, 60, 117
계시, 81, 122
결정, 75
관람, 40, 44, 97
교만, 10, 44, 51
교회 부름, 81
교회 지도자, 81, 122
구원의 계획, 28, 88, 112, 115
그리스도의 빛, 21, 78
기쁨, 6, 16, 21, 85
기적, 88
단정함, 51
단합, 110
두려움, 10, 100
멜기세덱 신권, 64
물문경, 60, 68, 100, 107, 117
미디어, 44
봉사, 21, 25, 32, 36, 78, 100, 119
비판, 97, 110
사랑, 10, 25, 100, 119
상호부조회, 6
선교 사업, 48, 51, 60
선지자, 115, 122
선택의지, 55, 94
성신, 13
성약, 64, 68, 90
성전, 58, 68, 90
성찬, 36, 97
소망, 94
속죄, 10, 13, 36, 40, 48, 64, 85, 88, 94
신권, 64

신뢰, 75, 94, 112
신성한 본성, 13, 16, 55, 90
신앙, 68, 81, 85, 88, 100, 104, 112, 117
신화, 112
십일조, 112
아론 신권, 64
아버지의 본분, 75
안식일, 90, 117
안전, 44
여성, 6
역경, 21, 32, 44, 85, 88, 94, 97, 100, 112
연차 대회, 122
영성, 55
예수 그리스도, 10, 13, 16, 21, 36, 40, 48, 51, 60, 64, 78, 81, 85, 94, 97, 100, 107, 112, 115, 119, 122
용기, 100
용서, 48, 51, 119
은혜, 36, 40
의식, 90
인내, 68, 117
인도, 55
일, 32
재능, 32
제자됨, 16, 21
조셉 스미스, 107, 115, 122
진리, 68, 78
치유, 78, 85, 88, 94, 97
커뮤니케이션, 6
평안, 13, 75, 85
하나님 아버지, 10, 40, 115
합당성, 13
헌납, 58
회개, 6, 36, 48
희생, 58, 112



제187차 반연차 대회 하이라이트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축복하사
위안과 건강과
강한 힘 주시어
의로운 선택을
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지자”, 찬송가,
29장, 토요일 오전 모임에서 부른 노래)

50년 넘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연차 대회에서 감동적인 경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력한 간증을 전해 왔다. 그러나 건강상의 문제로 몬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대회 장소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그분들의 마음은 성도들과 함께했다.

비록 몬슨 회장은 자택에서 대회를 시청했으며 헤일즈 장로는 마지막 모임이 열리기 직전 병원에서 평화로이 생을 마감했으나, 그들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함께했으며 그들의 영향력은 대회와 전해지는 말씀들 속에 여전히 드러났다.

열두 명 이상의 연사들이 몬슨 회장의 말씀을 인용했으며, 러셀 엠 넬슨 회장은(60쪽 참조) 지난 대회 때 몬슨 회장이 전했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물문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보”라는 권유를 재차 전했다.¹

마지막 연사였던 닐 엘 앤더슨 장로는(122쪽 참조) 헤일즈 장로가 대회를 위해 준비했으나 전하지 못했던 다음 메시지를 전했다. “신앙을 갖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분명히, 헤일즈 장로는 신앙을 택했다.

몬슨 회장과 헤일즈 장로는 비록 연단에는 서지 못했으나 그들 덕에 이 대회는 많은 이들에게 더 의미 있는 대회가 되었다. 비록 대회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그들의 마음은 우리와 함께였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언제나 기도하네
주께서 위안과 즐거움을
그에게 주시기 비옵니다
밝은 빛 비추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를 위하여”, 찬송가,
25장, 신권 총회에서 부른 노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물문경의 권능”,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7쪽.





셰리 유뱅크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너희 빛을 밝히라

자매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히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빛을 밝히시겠습니까?

후 시 몬슨 회장님과 제가 쌍둥이인 것을 아셨나요? 제가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태어나던 그날 바로 그 시간에 36세의 토마스 몬슨 회장님은 새로운 사도로 지지받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몬슨 회장님과 이렇게 특별한 개인적 연결 고리가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선지자들은 여성에 관해 말씀하십니다.¹ 이 모임에서도 그런 말씀을 몇 차례 듣게 될 텐데 저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께서 40년 전에 하신 놀라운 예언을 인용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79년 9월, 이 세계적인 교회의 여성들이 두 번째로 맞는 그들만의 일반 총회에 모였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말씀을 준비하셨지만, 대회 당일에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인인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자매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대독하셨습니다.²

김볼 자매님이 읽으신 선지자의 말씀은 구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후기 성도 자매들이 세상의 선한 여성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는 당시 교회의 여성들을 전율케 했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말이 나옵니다.

김볼 회장님의 말씀을 조금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에는 들어 보지 못하셨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 들어 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 교회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1979년 9월, 카밀라 아이어링 김볼 자매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을 대신해 그의 말씀을 낭독했다.

세상의 위대한 여성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고 의로운 것에 더욱 집중하는 이들이 이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여성들은 참으로 겸손하여 길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고결성에 더 큰 가치를 둡니다. ...

교회 여성들의 모범은 마지막 날에 교회가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³

참으로 선지자다운 말씀이 아닙니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과 형성하는 훌륭한 관계가 앞으로 교회에 일어날 중요한 성장의 큰 토대가 될 것입니다.
- 상호부조회 여성, 청년, 초등회의 소녀들이 다른 종교와 믿음에 속한 진실하고 충실하고 신실한 여성들과 맺는 우정은 마지막 날에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김볼 회장님은 우리와 배경은 다르지만 자신을 내려놓고 의로운 것에 더욱 관심을 두고, 길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고결성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여성들을 가리켜 “위대한 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 차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선한 여성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우정은 제게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웃과 친구 중에 그런 분들을 아실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교회의 회원이건 아니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우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몫을 다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김볼 회장님은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완벽하거나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죄와 잘못을 회개하며, 기꺼이 다른 이를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한 여성은 인생의 진로를 바꿉니다. 제게는 어릴 때 교통사고를 겪은 뒤, 그 후유증으로 진통계에 중독된 친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의 부모님은 이혼을 했습니다. 그녀는 스쳐 가는 만남 중에 임신을 했고, 중독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 친구는 온통 뒤죽박죽된 삶을 바라보며 “달라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끔찍한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력하시기에, 회개의 길을 걸으며 그분의 힘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 그분의 길로 돌아오으로써 자신의 삶의 진로는 물론 어린 아들과 새로 만난 남편의 삶의 진로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의롭습니다. 또한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지만 변화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활짝 열고 대합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듯 그녀도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회개하고 계속

노력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분명히 표현해야 합니다. 분명히 표현한다는 것은 어떻게 느끼고 왜 그렇게 느끼는지를 분명히 드러낸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초, 제 페이스북에 기독교를 깎아내리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읽고 약간 언짢았지만, 저는 그냥 넘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회원이 아닌 제 지인은 그 게시물에 직접 이런 답변을 달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표방하신 것과는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평등하게 대하셨고, 그 이유로 그 시대에는 급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분은 매춘부와 [이야기하셨고], 세리와 함께 [드셨으며], ... 힘없는 여인이나 어린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 참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지닌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저렇게 쓰지 못했지?”

우리는 각자 우리 신앙의 이유를 더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에 남아 있으십니까? 왜 물론경이

경전이라고 믿습니까? 어디서 평안을 얻습니까? 선지자가 2017년에 전할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니까? 그분이 정말로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친구와의 차분한 대화에서, 손주들과 나누는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목소리와 힘으로써 여러분이 알고 느끼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십시오. 그것을 왜 믿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며 ...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십시오.”⁴

셋째,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올 7월 플로리다 파나마시티 해변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⁵ 어느 늦은 오후, 로베르타 올스레이는 어린 두 아들이 90m 떨어진 바다에서 소리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강한 조류에 휘말려 바다로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근처에 있던

부부가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지만, 그들도 조류에 휘말렸습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려고 울스레이 가족도 뛰어들었지만, 곧 아홉 명이 모두 이안류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밧줄도 없었고, 구조 대원도 없었습니다. 경찰의 구조선이 이쪽으로 출발했다고 했지만, 바다에서 20분을 허우적댄 사람들은 지질 대로 지쳐 물속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 메이 시몬스는 해변에서 이를 바라보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인간 사슬을 만들자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 달라고 소리쳐,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로의 팔짱을 낀 채 나란히 바다로 갔습니다. 제시카는 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종과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돕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은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⁶ 80명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광경을 찍은 사진을 보십시오.

해변에 있던 모두가 다들 뻘한 해결책만 떠올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한 부부가 그 짧은 순간에 남다른 해결책을 생각해 낸 것이었습니다. 혁신과 창조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는 성약을 지킬 때 같은 문화나 사회에 속한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남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접근하며 적용할 영감을 얻게 됩니다. 항상 세상에 들어맞는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가진 차이점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구명 밧줄이 될 것입니다.

넷째, 뚜렷해야 합니다. 뚜렷하다는 것은 눈에 띄게 명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해변에 있던 제시카 메이 시몬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시카는 인간 사슬이 물에 빠진 사람들에게 뻘어 가서 자신이 도울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어렵지 않게 올림픽 수영장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저는 이안류를 벗어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물에 빠진 사람들]을 인간 사슬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⁷ 제시카는 남편과 함께 서프보드를 가져와서 사슬을 따라 헤엄쳐 간 끝에 물에 빠진 사람들에 닿았고, 부부가 그들을 한 명씩 사슬로 데려오면 사슬을 이룬 사람들이 안전한 해변으로 보내 주었습니다. 제시카는 뚜렷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안류를 거슬러 수영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회복된 복음은 눈에 띄게 명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뚜렷한 방식으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제시카처럼,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복음대로 생활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조류에 휩쓸려 가는 사람을 보고 두려움 없이 손을 내밀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다섯째, 앞서 이야기한 네 가지를 행복하게 행해야 합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상관없이 미소짓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강화하며 복돋는 것을 뜻합니다.⁸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강화하고 그들의 짐을 덜어 줌으로써 시련이 앓아갈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은 킵클리 회장님의 말씀을 놓아두었습니다. “비관주의나 냉소주의를 [조장하지 마십시오.] 낙관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신앙으로 일한다면, 일은

이루어집니다.”⁹ 저는 행복하고 낙관적인 마음의 모범인 열세 살 난 엘사라는 소녀를 알고 있습니다. 엘사의 가족은 친구들로부터 2,900km 떨어진 루이지애나주 배턴루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열세 살 소녀에게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사는 당연히 이사를 불안해했고, 아버지는 엘사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엄마의 휴대 전화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와드의 청녀들이 “꼭 우리 와드로 이사와 줘!”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¹⁰

이 긍정적인 청녀들은 아직 만나지도 않은 엘사를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엘사는 청녀들의 열의 덕분에 다가올 이사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게 됐고, 일이 잘 되어 갈지를 궁급해했던 엘사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었습니다. 행복과 낙관에서 비롯되는 힘은 우리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를 강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참된 행복을 밝혀 주기 위해 여러분이 하는 소소한 행동에는 여러분이 이미 킵클리 회장이 밝히신 햇불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킵클리 회장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열다섯 살이었습니다. 우리 중 마흔이 넘는 이들은 지금껏 그날 받은 책임을 맡아



이안류에 휩쓸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8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자원하여 인간 사슬을 만들었다.

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와 마주한 여덟 살, 열다섯 살, 스무 살, 서른 다섯 살의 젊은 분들께 이 햇살을 건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장차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 불을 들고 전진하여 이 예언을 성취하는 일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마흔이 넘은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팔과 팔을 잡고 서서 여러분의 힘과 열정을 느낍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교리와 성약 49편 26~28절에 나오는 성구를 들어 보십시오. 이 성구는 지금과 다른 상황에서 나왔겠지만 오늘 밤 성신을 통해, 신성한 사업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부름으로서 이 성구를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 모든 죄를 회개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 앞서 갈 것이요, 또 너희의 후군이 되리라. 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리니, 너희가 패배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또 내가 속히 오리라.”¹¹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곳에 거할 것을 모든 분께 호소합니다. 그 사랑이 닿지 않는 곳에는 가지 마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은 여러분을 당신의 일에 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일과 영광은 남성과 여성의 승영과 영생입니다.

자매 여러분, 선지자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까. 의로운 자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구분되고 남다르게 사는 것을 감내하시겠습니까? 시련이 닥치더라도 행복하게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우정이 필요한 선하고 고귀한 이들을 이끌어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빛을 밝히시겠습니까?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며, 우리 중에 계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메시지로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날이며, 여러분의 시대입니다.”¹²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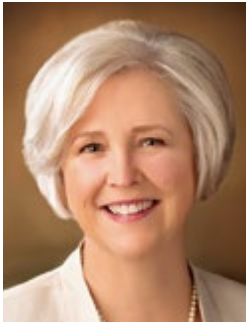
1. 브리검 영 회장: “[자매들에게] 여러 와드에서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게 합시다. 우리 가운데에는 재능 있는 여성들이 많으니 그들에게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길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자매들이 바로 이 운동을 주도할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머지않아 깨달을 것입니다.”(내 왕국에 속한 딸들: 상호부조회 역사와 일[2011], 41쪽)
2. 로렌조 스노우 회장: “여러분은 늘 신권이 있는 곳에 함께해 왔으며, ... 하나님 왕국을 이롭게 하기 위한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수고들 함께 했으므로 분명히 이 사업의 승리를 함께 나누고 주님께서 그분의 충실한 자녀들에게 주시는 승영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내 왕국에 속한 딸들, 7쪽)
3.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 “이 [상호부조회] 조직에는 시온의 가정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 아직 완전히 쏟아부지 않은 힘이 남아 있습니다. 이 힘은 자매들과 신권 형제들이 모두 상호부조회의 비전을 내다볼 때에야 비로소 완전히 발휘될 것입니다.”(내 왕국에 속한 딸들, 142쪽)
4. 하워드 더블유 헌터 회장: “우리를 둘러싼 악의 물결을 막고, 구주의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형제들 곁에 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교회 여성들을 결집시킬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가정과 교회와 지역 사회를 강화하는 일에 선한 영향력을 크게 펼침으로써 주님의 사업을 하도록 간청합니다.”(내 왕국에 속한 딸들, 157쪽)
5. 고든 비 헝클리 회장: “이 교회의 여성들에게 힘과 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왕국의 일원으로서 신권 소유자들과 손을 맞잡고 왕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지도력을 키우고, 나아갈 방향을

알고, 자립심을 키우고,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내 왕국에 속한 딸들, 143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벨레 스피스 스페포드의 말씀 인용. “여성들이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늘날의 세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이 시대만큼 기회가 많이 넓게 열린 적도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여성들에게 매우적이고 흥미진진한 도전과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균형을 찾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배우며, 현명하게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풍족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A Woman's Reach(1974), 21] 친애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날이며, 여러분의 시대입니다.”(“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95쪽)

러셀 앤 벨스 회장: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자매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앞으로 나가십시오!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마땅히 여러분의 것인, 또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하십시오. 부디 김볼 회장님의 예언을 성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성신이 여러분의 영향력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확대해 주리라는 것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97쪽)

2. lds.org/general-conference/1979/10/the-role-of-righteous-women에서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의 말씀을 낭독하는 카밀라 김볼 자매의 영상 참조: 또한 스펜서 더블유 김볼, “의로운 여성의 역할”,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49~152쪽 참조.
3. 스펜서 더블유 김볼, “의로운 여성의 역할”, 151~152쪽; 강조체 추가, 번역 수정.
4. 베드로전서 3:14~15.
5. McKinley Corbley, “80 Beachgoers Form Human Chain to Save Family Being Dragged Out to Sea by Riptide,” July 12, 2017, goodnewsnetwork.org 참조.
6. Jessica Mae Simmons, in Corbley, “80 Beachgoers Form Human Chain.”
7. Simmons, in Corbley, “80 Beachgoers Form Human Chain.”
8. 엘마서 41:10; 34:28; 교리와 성약 38:27; 누가복음 16:19~25 참조.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헝클리(2016), 66쪽.
10. 버지니아 피어스 가족의 메모.
11. 교리와 성약 49:26~28.
12. 토마스 에스 몬슨, “상호부조회라는 강한 힘”, 성도의 빛, 1998년 1월호, 95쪽.



넬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간극을 메우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다른 사람들과 애정 어린 유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실 권능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고, 그분께 더욱 순종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맺는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이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께 가까이 오라는 그분의 권고를 따라 인생은 물론 다음 생에서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고자 하시는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서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¹ 주님은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 안에 있으리니, 그러므로 나와 동행하라.”²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과 동행할 수 있을 만큼 그분을 충분히 신뢰합니까?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이 지상에 온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배움과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맺는 성약 관계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그분들과 충실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신성한

지식을 얻고, 사랑을 키우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능력이 더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 관해 계시하신 모든 것을 배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³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구를 창조하도록 지시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주시어 공의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축복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신권 권능과 아들의 참된 교회와 필요한 의식들이 회복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성장을 위해 마련된 이러한 준비의 모든 면면에 담긴 사랑의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가 복음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여 영생을 얻고 그분과 같이 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⁴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입니다. 이것 외에는 참되고 영원한 행복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해 이 행복의 길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련으로 겸손해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대신, 다른 생각에 현혹된다면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단순한 글귀에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돌아보라는 권유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만, 어떤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네.
영원한 것은 몇 가지뿐,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네.⁵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영속적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속적 가치를 지니는 일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스스로 겸손하게 되어,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해 그분께 더욱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이기심을 봉사로, 두려움을 신앙으로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영속적인 일들은 우리에게 극히 어려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지금 필멸의 한계를 지닌 우리에게 사랑하기 가장 어려울 때 사랑하고, 봉사하기 가장 힘들 때 봉사하며, 용서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을 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진심을 다해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교만하게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는 아버지의 방식으로 행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께서 그릇 안을 깨끗이 하는 것에 관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는 제 교만을 깨달았습니다.⁶ 제 자신을 우리 주전자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주전자 안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없애야 할까요? 제 힘만으로 억지로 겸손하려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스스로에게 강요하는 일은 가식적이고, 무의미했으며, 무엇보다도 불가능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으로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에 간극이 생기게 됩니다.

오직 구주의 속죄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고 그 간극을 메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도의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최우선순위로 삼고, 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의 주전자 안에 정화의 물을 가득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처음에는



한 방울씩 떨어지겠지만, 우리가 찾고 구하고 순종할 때 충분히 가득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생수는 우리를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넘쳐흐르는 그분의 사랑으로 영혼의 주전자를 기울여 치유와 희망과 유대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이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지상에서 맺는 관계들도 치유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따르기 위해 개인적인 소망을 희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⁷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경전을 통해 그분의 진리를 배우고, 선자지의 권고를 따르며, 그분의 뜻을 보다 온전히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다른 사람들과 애정 어린 유대 관계를 맺도록 인도하실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신의 권능으로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관계에 필요한 이해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한 주일학교 교사가 제게 자신의 반원들인 11살 소년들과의 감동적인 경험을 들려주셨습니다. 그중 한 명을 지미라고 하셨습니다. 비협조적인 성격의 지미는 반에서 외톨이였습니다. 어느 일요일, 이 교사는 공과를 하는 대신 자신이 왜 지미를 사랑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는 지미에 대한

감사와 신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 반원들에게 지미에게 고마운 점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지미가 왜 특별한 존재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고개를 숙인 지미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교사와 반원들은 지미와 다른 아이들 간의 마음의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단순한 사랑을 솔직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가치를 주게 됩니다. 저는 이를 “간극을 메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전세의 삶에서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 얻는 참되고 영속적인 사랑을 갈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고 받는 신성한 존재이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가장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경에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라”는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⁸

이사야는 금식의 법을 충실하게 행하여 후손들을 위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즉, 간극을 메우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가 약속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자들입니다.⁹ 이와 마찬가지로, 구주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간극을 또는 거리를 좁히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속죄 희생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삶에서 “황폐된 곳”을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감정적 거리를 좁히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며, 우리의 본능적인 이기심과 두려움을



희생해야 합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친척 한 명과 정치적인 문제에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들릴 만한 거리에서 그 친척은 거침없이 그리고 철저히 제 의견을 논박했습니다. 저는 스스로가 무지하다는 생각에 무안했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자마자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친척이 저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잠깐 불평을 멈춘 사이, 성신이 제 주의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제 입에서 “아버지께서는 아마도 제가 그 친척을 사랑하기를 바라시겠지요?”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저는 이런 말을 하며 계속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하기는커녕 좋아하지도 않는 걸요. 저는 상처받았고 힘들어요. 못할 것 같아요.”

바로 그때, 성신의 도움으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그녀를 사랑하시지요. 그녀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제게도 조금 나눠 주시겠어요? 저도 그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제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며, 마음속 변화가 일어나 그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는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리라.]”¹⁰

시간이 지나며 저희 둘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마음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을 구한다면 사랑하기 힘들 것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도록 도와주실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구주의 속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의 매개체입니다. 모두를 사랑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아버지와 아들에게 바칠 때,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려는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여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분별력, 자신감,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물론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지니기 위해 마음의 힘을 다해 기도하여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게 하라고 말했습니다.¹¹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상에서 맺는 관계에서 생기는 간극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영광과 기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와 당신 사이에 크게 벌어진 그 틈을 메우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영속적 사랑과 영원한 목적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그분과 관계를 맺어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맺는 충실한 관계가 그분들은 물론 우리에게 영원히 중요한 일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예레미야 31:3.
2. 모세서 6:34.
3. 브루스 알 맥쿱키, “The Mystery of Godliness” (Brigham Young University fireside, Jan 6, 1985), speeches.byu.edu.
4. 브루스 알 맥쿱키, “The Mystery of Godliness” 참조.
5. 작자 미상.
6. 에즈라 테프트 벤슨,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함”, 성도의 빛, 1986년 7월호, 4쪽.
7. 교리와 성약 88:63.
8. 야곱서 4:11.
9. 이사야 58:12.
10. 이사야 30:26.
11. 모로나이서 7:48 참조.



조이 디 존스
본부 초등회 회장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우리는 우리가 지닌 영적 가치를 진실되게 확인시켜 주는 성신의 감미로운 속삭임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을 방문하던 중에 마리아마라고 하는 스테이크 초등회 지도자가 사회를 맡았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마리아마는 사랑과 품위와 자신감이 넘치는 태도로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자매님이 교회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마는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매였습니다. 먼저 교회에 들어온 그녀의 여동생이 마리아마에게 교회 공과에 같이 참석하자고 권유했고, 마리아마는 공과에서 들은 메시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순결의 법에 관한 공과였습니다. 마리아마는 선교사에게 더 배워 보기로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2014년에 침례받았으며, 지난달에는 그녀의 딸이 침례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마를 개종으로 이끌었던 두 가지 근본적인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종종 현실성이 없거나, 시대에 뒤처지거나, 불편하다고 여겨지는 순결의 법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마는 마치 나방이 빛에 이끌리듯 그 가르침에 끌렸다고 간증했습니다. 마리아마는 “복음을 발견하면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신성한 원리들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한 것입니다. 마리아마는 성신을 통해 자신에게서 하나님 딸로서의 가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도에 사는 싱 자매들을 만나 보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레누는 다섯 자매 중 가장 먼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레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관해 알아보기 전에는 제가 그리 특별하다고는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그저 많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일 뿐이었고 제가 속한 사회나 문화도 제가 개인으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가르치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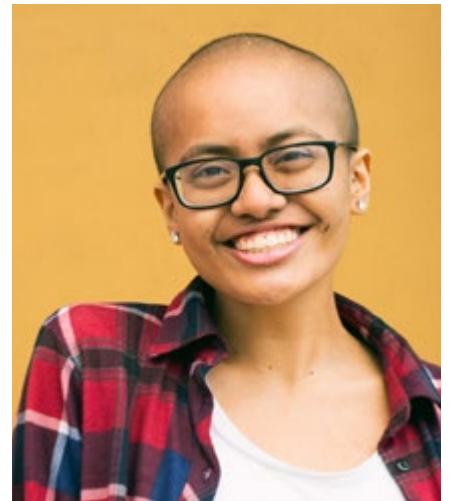
딸과 함께한 마리아마의 사진. 그녀는 신성한 원리를 찾고 알게 된 후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다.

않았어요. 이 복음을 배우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니 제게 변화가 찾아왔어요. 갑자기 저 자신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를 창조하셨고, 제 영혼과 제 삶을 창조하시면서 가치와 목적을 부여하셨어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다른 이들에게 제가 특별하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진리를 배우고 나니 이제 더 이상 남에게 그 어떤 것도 입증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 여러분이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¹

감사하게도 저는 최근에 이와 같은 진리를 이해하는 또 다른 청녀를 만났습니다. 그 청녀의 이름은 타이아나입니다. 타이아나를 만난 곳은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한 아동 병원이었습니다. 타이아나는 중학생이었을



타이아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평안을 찾았으며 그녀가 겪고 있는 시련에 맞설 용기를 얻었다.

때 암 진단을 받았고 바로 몇 주 전 세상을 떠나기까지 18개월 동안 용감하게 병마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녀는 빛과 사랑이 가득한 자매였습니다. 타이아나는 자신의 미소로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는 재능과 함께 그녀의 트레이드마크인 “양손 엄지 척”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필이면 너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물으면 타이아나는 “저라고 예외일 이유는 없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타이아나는 그녀가 온 마음으로 사랑했던 구주와 같이 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저는 타이아나가 자신이 지닌 신성한 가치를 이해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이아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토록 힘든 시련에 긍정적으로 맞설 평안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마, 레누, 타이아나로부터 영이 우리가 지닌 신성한 가치를 우리 개개인에게 확인시켜 주시리라 가르침을 연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딸임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 진리는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줄 것이며 매일 하는 봉사에서도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은 장엄한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과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영원한 예지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서 지니고 있는 가치에 관해 마음속에 어떠한 의문도 갖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복음 계획의 의도는 여러분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영원한 진보 및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도달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²

여기서 두 가지 매우 중요한 단어의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가치와 합당성입니다. 이 두 단어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가치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으로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이 지상에 오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며 영원히 인내하는 사랑”입니다.³

반면, 합당성은 순종을 통해 얻어집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의 합당성은 떨어질지 몰라도 결코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회개하며 우리의 온전한 가치를 지니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 지상에서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영혼이라도 … 이 세상만큼의 가치가 있습니다.”⁴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토록 놀라운 진리 앞에서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기본으로 종종 힘들어하는 이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누구든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사탄은 모든 것의 아버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성한 본성과 목적을 왜곡시키는 데 능합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 좋을 것은 없습니다. 결국 퇴보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종종 받은 가르침처럼 “그 누구도 당신의 동의 없이는 당신이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⁵ 우리는 우리의 최약을 다른 사람의 최상과 비교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비교는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입니다.⁶

반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덕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다음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 성신은 변하지 않는 네 동반자가 될 것이요.”⁷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진리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 받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으로 여길지이다. 또 자신이 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김이 되었음을 기뻐할지이다.”⁸ 이 구절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영을 느낄 때 그 느낌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축복을



복음을 통해 레누 싱 자매(가장 오른쪽)는 하나님의 딸로서 자신의 가치를 배웠으며 다섯 자매 중 처음으로 교회에 가입하게 되었다.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 받았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아침 경전을 읽고 있는데 영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것이 참되다고 속삭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꼈고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음에 행복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 여러분,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네 살배기 아이 옆에 함께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의 기도에 귀 기울이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입니다. 그 짧은 순간, 여러분은 자신이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엄청난 영적 현시를 경험할 일은 드물지만, 우리가 지닌 영적 가치를 진실되게 확인시켜 주는 성신의 감미로운 속삭임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관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영혼의 가치가 하나님 보시기에 큼을 기억하라.

이는, 보라, 주 너희 구속주가 육체로 죽음을 겪었음이라. 그런즉 그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자기에게 나아오게 하려고 모든 사람의 고통을 겪었느니라.”⁹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므로 “우리는 주님과 사랑의 끈으로 결합”됩니다.¹⁰ 주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십자가 위에 들리게 하심이요, 또 내가 십자가 위에 들린 후에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함이라]”¹¹

베냐민 왕 또한 구주와 우리를 결합하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를 겪으리니, 이는 보라,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나옴이라, 그의 백성의 사악함과 가증함으로 인한 그의 고뇌가 그처럼 크리라.”¹² 그분이 겪으신 고통과 그 고통의 결과는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웁니다. 폴 이 컬리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당기는 혼란을 없애고 주님을 찾는 데 우리의 선택의지를 사용한다면, 우리 마음은 우리를 주께로 이끌어 주는 하늘의 힘을 향해 열리게 됩니다.”¹³ 구주와 그분께서 하신 일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약점, 의심, 나쁜 습관에 쏠는 에너지보다 크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 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십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세상의 힘이 구주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신뢰보다 강하다면 세상의 힘은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주께 매달리는 대신 부정적인 생각에 집중하고 우리의 가치를 의심한다면, 성신이 주는 느낌을 인식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워 맙시다.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려는 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영적으로 타성에 젖기가 더 쉬울 때도 있지만, 이 후기에 우리는 그런 방종을 허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하[십시오.] …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 올리시기를 바라며, 또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 그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과 그의 영광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¹⁴ 구주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실 때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그분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의 신성한 신권 책임”,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2. 스펜서 더블유 김볼, “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번역 수정.
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4. Brigham Young, “Remarks,” *Deseret News*, Mar. 6, 1861, 2.
5. 엘리너 루즈벨트의 말.
6. 테오도어 루즈벨트의 말.
7. 교리와 성약 121:45, 46.
8. 교리와 성약 50:34.
9. 교리와 성약 18:10-11.
10. “Our Savior’s Love,” *영어 찬송가*, 113장.
11. 제3니파이 27:14.
12. 모사이야서 3:7.
13. 폴 이 컬리커, “그분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14. 모로나에서 9:2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세 자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 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리고 친구 여러분, 전 세계 자매들의 모임으로 연차 대회에 서막을 장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연령, 상황, 국적, 언어를 막론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신앙으로 하나가 된 자매들을 그려 보십시오.

최근 우리의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뵈었을 때 구분은 자신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몬슨 회장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주님에 대한 헌신에 참으로 감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옛날 아주 먼 나라에 세 자매가 한집에 살았습니다.

만이는 슬픔이라고 했습니다. 슬픔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신의 어느 곳 하나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하는 말은 간혹 어설피게 들렸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거나 “깜박” 잊고 자신을 불러 주지 않을 때면, 슬픔은 발개진 얼굴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왜 삶은 이렇게 절망적이고 암담한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노여움이라고 했습니다. 노여움은

자신이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학교에 가면 항상 자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여움은 자신이 재미있고, 예쁘고, 유행에 앞서가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재미있고, 더 예쁘고, 유행에 더 앞서가며, 더 매력적인 사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디서도 최고가 될 수 없었고, 노여움은 이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여움은 때로 사람들을 호되게 몰아세우곤 했으며, 항상 이런저런 일로

분통을 터트리기 일보 직전인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은 더 큰 호감과 인기를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노여움은 이따금 이를 양다물고 주먹을 움켜쥐며 생각했습니다. “삶은 정말 불공평해!”

이 집의 막내는 언니들과 달랐습니다. 막내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기쁨이 된 것은 언니들보다 똑똑하거나 예뻐서 혹은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쁨도 무시당하고 소외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입은 웃이나 기쁨이 하는 말을 두고 놀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녀에 대해 악의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전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쁨은 노래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썩 잘 하지는 못해서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노래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기쁨은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들의 생각 때문에 노래를 그만두지는 않겠어!”

막내가 끊임없이 노래를 부른다는 사실 때문에 만이는 슬퍼했고 둘째는 노여워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마침내 세 자매가





지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삶에는 실망할 일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번번이 실감한 만이는 슬프게 죽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유로 삶은 것만 눈에 들어왔던 둘째는 노여워하며 죽었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기쁨은 평생 확신에 찬 미소를 띠고 온 힘을 다해 노래했고, 기쁘게 죽었습니다.

물론 삶은 절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사람들도 이 자매들처럼 단편적인 모습으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적인 예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에 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이들 중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세 명 모두에게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세 자매를 각각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피해자

만이는 자신을 피해자, 즉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¹ 그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 탓에,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행위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휘둘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온갖 말은 바람처럼 사람을 흔들어 놓기 마련입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가 일상이 된 오늘날에는 그 바람이 거센 폭풍이 되어 몰아치곤 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왜 우리의 행복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리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그들은 우리나 우리의 행복에 크게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해결책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고귀한 집안의 일원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늘 부모님의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영적으로 창조될 때 받아서 지나간 전세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발전시킨 특별한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비롭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셨고, 광활한 우주 전역에 별들을 흩뿌리셨으며, 행성을 두시어 정확한 궤도 안에 움직이게 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손은 선량한 손.

사랑이 가득한 손.

보살피는 손입니다.

여러분에 관해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이는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관해 말씀하신 것에 비하자면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귀한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저지르고 그분께 등을 돌릴 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길을 잃고, 버려지고, 잊혔다는 기분이 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는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려오실 것입니다.²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이 신성한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 두십시오. 영원한 운명에 도달해야 하는 여러분에게는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구주께서는 여러분이 그 운명을 이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받들어 온 여러분은 그분의 제자입니다. 또한, 그분이 계시기에 여러분은 영원한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하는 자

둘째는 세상에 화가 나 있었습니다. 둘째도 슬픔에 가득 찬 만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모두 다른 사람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구, 상사와 동료, 경찰과 이웃, 교회 지도자를 탓했고, 최근 패션 경향, 심지어는 뜨거운 태양과 단순한 불운까지도 원망했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저 스스로 방어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고 용졸하며 증오로 가득 차 있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자신은 정의롭고 고결하며 사랑이 넘치는,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히도 둘째의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흔한 일입니다. 이는 경쟁 집단 간의 갈등을 다룬 최근의 한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연구를 시행한 연구자들은 중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원과 민주당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집단은 자신들은 증오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고 답했고, 반대 집단과 갈등을 겪는 이유를 문자 ‘상대편’의 증오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³

다시 말해, 각 집단은 자신들을 올바르게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 즉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나, 경쟁 집단의 사람들은 무지하고 부정직하며 사악한 사람, 즉 “나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해에 세계는 참혹한 전쟁 속에서 슬픔과 고뇌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제가 살던 나라의 한 무리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특정 집단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증오하도록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욕하고 악마 취급을 하며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한 집단의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나면, 그들에 대한 폭력적인 말과 행위는 더 쉽게 합리화되는 법입니다.

20세기 독일에서 벌어졌던 일을 떠올릴 때면 끔찍합니다.

우리는 나와 입장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분명 그 사람이 틀렸다고 미루어 짐작하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말과 행위에 가장 나쁜 의도가 담기기 십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항상 옳은 것을 수호해야 하며, 그 명분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가슴속에 분노와 증오를 담은 채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침묵하게 할 작정으로 그들을 몰아세운다면, 그것은 옳은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악으로 이용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⁴

이것이 구주의 방법입니다. 이는 세상에 그토록 큰 분노와 증오, 분열,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장벽을 무너뜨릴 첫 단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기꺼이 적을 사랑하겠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요.”

하지만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대가로 이해받고 사랑받기를 바라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와 별개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할 때, 그들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선한 영향력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우리의 다짐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적을 사랑할 것입니다.

분노와 증오를 이겨 내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보살피려 도울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악으로 이용하고 박해한다 해도 말입니다.⁵

진정한 제자

막내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를 상징합니다. 기쁨은 몹시 어려울 법한 일을 해냈습니다. 조롱받는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녀는 주위의 경멸과 냉소 속에서도 신앙과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생활했습니다. 즐거운 환경에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즐거운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삶에서 아무런 장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세력이 맞서, 어떻게 하면 충실한 자에게 약속된 영광스러운 행복만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수천 년 전 한 선지자가 꾸었던 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지자는 리하이라고 합니다. 귀하고 놀라운 책인 물문경에는 리하이의 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하이는 꿈에서 광활한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경이로운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리하이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 나무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그 열매가 큰 행복과 변치 않는 평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생각하며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 나무로 가는 길은 비좁았지만, 그 길에 이어진 쇠막대 덕분에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두운 안개가 드리워져 있어서 길도 나무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근처의 크고 넓은 건물에서 요란하게 들려오는 조롱과 비웃음 소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나무에 다다라 경이로운 열매를 맛본 사람들 중 일부도 그 소리를 듣고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⁶

아마도 그들은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무가 정말 아름다운지를 의심하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것의 실상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나무에서 등을 돌리고 사는 편이 더 쉬우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더는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 자신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펍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혹여 나무를 버리면, 크고 넓은 건물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을 환영하며 그런 판단력과 지성과 철학이 있다는 데 박수를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길에 머무르십시오

사랑하는 자매와 친구 여러분, 쇠막대를 붙들고 확고부동하게 구원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일이 험겨우시다면, 확신에 찬 태도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신다면, 답을 찾지 못한 질문이나 미처 이해하지 못한 교리로 혼란스러우시다면, 그리고 실망스러운 마음에 슬픔을 가누기가 어려우시다면, 부디 리하이의 꿈을 기억하십시오.

계속 이 길에 머무르십시오.

쇠막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손에서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취했다고 해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뜻을 행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다시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⁷

찬사와 용인을 앞세운 세상의 약속은 믿을 수 없고, 진실하지 않으며,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은 물론 영원히 확실하고 참되며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더 높은 관점으로 종교와 신앙을 바라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크고 넓은 건물에서 주어지는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함으로써 얻는 열매에 비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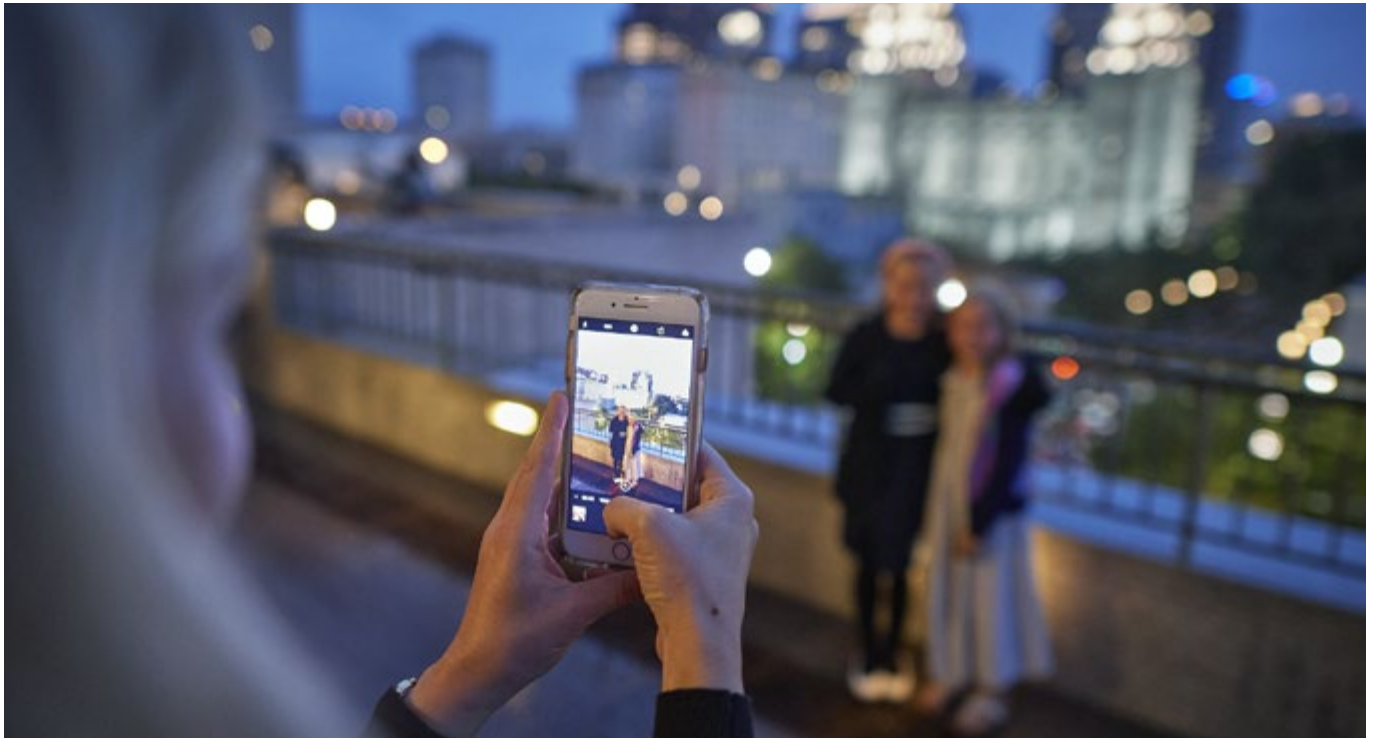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법입니다.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기쁨으로 향하는 길임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길은 안전과 평화로 향하는 길이며, 진리로 향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성신의 은사와 권능으로 스스로 이 진리를 알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렇게 가는 길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초등학교, 청년, 상호부조회 등 교회의 훌륭한 조직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직들은 길을 가다 잠시 머물 쉼터와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걸어갈 여정에 대한 확신과 신앙을 재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소속감을 누리고 자매와 동료 제자들에게서 힘을 얻는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얻는 배움은 청년가 되어 더 많은 진리를 배우도록 준비시킬 것입니다. 청년반에서 제자로서 걷다 보면 상호부조회의 우정과 자매애를 누리도록 인도될 것입니다. 이 길에 놓인 각각의 단계마다, 여러분은 신앙, 연민, 사랑, 봉사를 행하며 타인에게 사랑을 보일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의 길을 통해 지금까지 몰랐던 행복을 누리고 여러분의 신성한 본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길에서는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과 창의력, 신앙, 고결성, 힘, 결단력, 사랑을 전부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 여러분의 노력을 돌아볼 때, 이 길에 충실히 남아 믿음을 행사하고 이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더없이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멈추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목적지를 선택하고, 그곳에 이르기까지 경험할 많은 것을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삶의 변수가 되는 것은 많은 경우 능력이 아니라 선택입니다.⁹

상황 때문에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깊이 감사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향해 멈추지 않고 걸어갈 것을 선택하시기를, 제 영혼의 애정을 다해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여, 찬양이 담긴 영광스러운 교향곡을 부르듯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교회 및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가져다줄 경이로움 속에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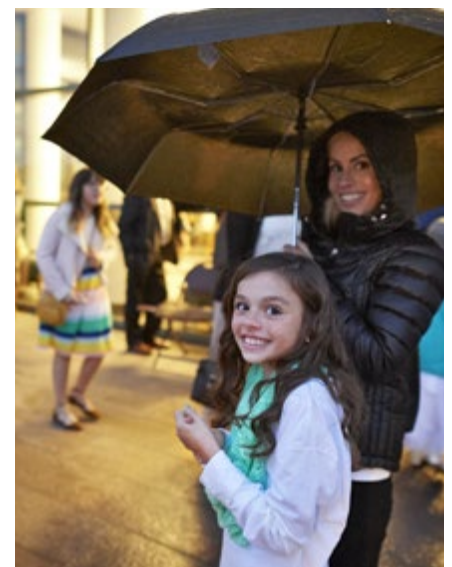
참된 제자의 노래를 음정이 맞지 않는 소음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태초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들에게 이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사랑이 담긴 송고하고 고결한 노래이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이기 때문입니다.¹⁰

주님의 사도로서, 저는 여러분이 매일 기쁘게 영광스러운 제자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의 딸로서 잘 성장할 힘과 용기를 찾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후서 2:14, 26 참조.
2. 누가복음 15:4~6 참조.
3. Boston College, "Study Finds Intractable Conflicts Stem from Misunderstanding of Motivation," *ScienceDaily*, Nov. 4, 2014, sciencedaily.com.
4. 마태복음 5:44~45.
5. 마태복음 5:44 참조.
6. 니파이전서 8장 참조.
7. "난 하나님의 자녀", *어린이 노래책*, 2~3쪽 참조.
8. 고린도전서 2:9.
9. "The Most Inspirational Book Quotes of All Time," pegasuspublishers.com/blog 참조.
10. 앨마서 5:26 참조.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본향을 향한 그리움

여러분의 영혼을 빛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본향으로 가는 여러분의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목적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최근 뵈었을 때 그분은 아주 경건하면서도 행복한 얼굴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도 자신을 사랑하심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몬슨 회장님이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위대한 복음에 대한 헌신에 참으로 감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윈터도그 바비

약 50년 전, 오리건주에 사는 어느 가족이 집에서 3,200여 km 떨어진 인디애나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아끼는 애완견 바비를 잃어버렸습니다. 당황한 가족은 사방으로 개를 찾아 헤맸지만 헛수고였습니다. 바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내내 소중한 애완동물로부터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6개월 후, 그 가족은 오리건주에 있는 자신들의 집 현관에 바비가 나타난 것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지저분하고, 앙상하고, 발바닥은 뼈가 드러날까 싶도록 닳아 있었어요. 그 먼 길을 줄곧 걸어온 듯했습니다. 혼자서요.”¹ 바비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바비는 윈터도그라는 애칭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방향 감각과 귀소본능으로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동물인 바비뿐만은 아닙니다. 어느 왕나비 군락은 해마다 4,800km 이상을 이동하여 생존에 더 용이한 기후대를 찾아갑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출발한 장수거북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캘리포니아 해안에 도달합니다. 혹등고래는 북극과 남극의 차가운 바다에서 적도까지 헤엄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더 놀라운 경우도

있습니다. 북극 제비갈매기는 북극권 한계선에서 남극까지 매년 왕복하는데 그 거리가 97,000km에 달합니다.

이처럼 놀라운 동물의 습성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어떻게 아는 걸까?” 그리고 “매번 새로운 세대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학습하는 것일까?”

동물들이 가진 이런 강력한 본능에 대해 읽었을 때 저는 궁금해했습니다. “인간에게도 이와 비슷한 회귀성, 또는 일종의 내면적 길찾기 시스템이 있어서 하늘의 본향에 이끌리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가 삶의 어느 시점에 하늘의 부르심을 느껴 보았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어떻게든 휘장 너머로 손을 뻗어 한때 우리가 알고 사랑했던 하늘의 부모님을 포옹하고픈 그리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그리움을 억누르고 자기 영혼이 그에 반응하지 않도록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이 빛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은 놀라운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본향을 향한 신비로운 여정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송고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염려하신다는 것과,
 그분께 돌아갈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슬픔과
 큰 소망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신을 찾았던 그 많은 시간들을 아십니다.
 한없는 기쁨을 맛보던 때도, 외로움이
 사무쳐 눈물짓던 때도, 무력감, 혼란, 분노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때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좌절하고, 실패하고, 체념하고, 낙담하고,
 배신감이 들거나, 패배감을 느꼈더라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에게 손을 뻗으십니다.
 그리고 오래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랫동안
 서 있던 어부들에게 그러하셨듯, 무한한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²

여러분이 귀를 기울인다면 주님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무언가가 여러분이 구주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마음을 빛으로 향하게 했음을 확증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길에
 있으며 여러분이 본향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해 줄 것입니다.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여 …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³

경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수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슬픔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 비극과 불의를
 당하는 경우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누구보다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듯]”, 대적이 의인과 불의한 자
 모두를 시험하도록 하십니다.⁴ 사실 때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신앙대로 생활하려
 노력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구주를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고난이 전부 사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를 따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도움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곁에서 걸으시고 필요할 때에는
 여러분을 안아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송고한 열매를,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을 경험할 것입니다.⁵

이러한 영적인 열매들은 현세적인
 변영이나 성공이나 행운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는 구주를 따를 때 오며, 가장 세찬 폭풍우
 중에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필멸의 삶의 불과 소동이 위협적이고
 무서울 수 있으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자들은 그분의 평안에 둘러싸일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버림받거나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러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⁶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즉 기도하고 믿으며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때로 길에서
 비틀거리더라도,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함께 역사하리라”는 위안과
 확신을 받습니다.⁷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⁸

또한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⁹

선하신 주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번치 않는 기쁨을 경험하고 싶으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마음에 느끼기를 갈망하느냐?¹⁰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빛으로 돌이키십시오.

본향으로 가는 위대한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목적이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걷다 보면 이 여정이 자신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만이 아님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길은 필연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 즉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의 삶에 축복이 되도록 이끕니다. 이 여행의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돕는 동안 여러분의 삶에 상상 이상의 큰 발전이 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다지 쓸모 있지 않다고 여길 수도 있고,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종종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면 뭔가 “더” 대단해져야 한다고,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하고, 더 지도력이 있고, 더 재능이 있고, 더 영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허나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보다는 선택에 달려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의 겸손한 노력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언제나 “작은 일에서 큰 일이 생겨난다”는 중요한 원리 위에서 발전했습니다.¹¹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던 사도 바울은 그들 중 세상적인 기준으로



지혜롭게 여겨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¹²

예로부터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히 봉사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다음과 같은 그분의 약속에 의지했습니다. “그들의 팔은 나의 팔이 될 것이요, 내가 그들의 ... 방패가 될 것이며, ... 그들은 나를 위하여 남자답게 싸울 것이요 ... 내가 그들을 보전하리라.”¹³

지난 여름 가족과 함께 미국 동부에 있는 초기 교회사의 유적지를 방문할 소중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는 당시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책에서 읽었던 사람들, 마틴 해리슨나 울리버 카우드리나 토머스 비 마쉬 같은 이들이 걸었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그들이 감수한 희생을 깊이 생각하자 그분들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많은 훌륭한 자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저나 여러분처럼

나약하고 실수할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일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훗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스스로를 겸손하게 한 뒤 다시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구하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형제들이나 그들과 비슷한 다른 회원들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선지자 조셉을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대와 상황에서 사는 것이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그들이 완벽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있었다는 것은 분명 용기를 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아셨고,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회복의 찬가에 한 소절 또는 한 멜로디로 기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다면 관대하고 친절하신 그분이 우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임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류를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함을 지닌 채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이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단한 듯 보였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 앞에 가서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나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든,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의로운 열망을 영화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행위가 씨앗이 되어 많은 선을 이루는 풍성한 추수로 이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는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¹⁴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본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길을 잃었다거나 혼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주셨습니다.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는 우리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하늘의

속삭임이 작동합니다.

이 과정은 노력을 요합니다. 하나님에 관해 배우고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부지런히 적용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내딛는 노력이 없다면 본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자율주행차가 아닙니다. 자동 조종 장치로 운항하는 비행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바다에 가만히 떠서 조류가 자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 상류를 향해 헤엄쳐야 하는 상황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요구합니다.

다른 누구도 여러분 개인의 여행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구주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시고 여러분 앞에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은 여러분에게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이고 또 특권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위대한 모험입니다.

구주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르십시오.

주님께서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여러분의 다짐을 돕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격려하고,

가르치고, 고양하고,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 훌륭한 교회는 여러분이 공감 능력을 발휘하고, 다른 이들에게 다가가고, 성스러운 성약을 새로이 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능을 주님의 훌륭한 사업에 바치십시오. 우리의 하늘 본향을 향한 갈망을 느끼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지지하십시오. 하늘의 본향으로 가는 이 영광스러운 순례의 길에 우리 함께합시다.

복음은 희망과 행복과 기쁨의 영광스러운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시간 신앙과 행위로 복음을 향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고, 주님께서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쓰셔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간증과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Susan Steljes, “Bobbie the Wonder Dog,” *The Oregon Encyclopedia*, oregonencyclopedia.org 참조.
2. 마태복음 4:19; 누가복음 18:22 참조.
3. 신명기 30:10.
4. 마태복음 5:45.
5. 갈라디아서 5:22.
6. 잠언 3:5~6.
7. 교리와 성약 90:24.
8. 이사야 40:29.
9. 잠언 24:16.
10. 빌립보서 4:7 참조.
11. 교리와 성약 64:33.
12. 고린도전서 1:27.
13. 교리와 성약 35:14.
14. 히브리서 11:13; 베드로전서 2:11.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년 회장

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대부분의 중요한 필요 사항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와드,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합니다.

최 근 우리는 멕시코와 미국, 아시아, 카리브해,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많은 자연 재해를 목격했습니다. 이를 본 수천 명의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노란색 도움의 손길 티셔츠를 입은 텍사스와 플로리다의 청년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허리케인의 잔해로 뒤덮인 집을 청소하는 모습은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수많은 다른 이들 역시 거리상의 제약이 없었더라면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혹 그곳에 가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들의 고난을 보살피기 위해 후히 기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의 관대함과 동정심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저는 오늘 봉사의 한 측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모두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최근 일어나는 사건들을 뉴스로 접하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에 무력함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답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¹ 이 구절에 관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비유적으로 보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을 잊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실상 자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입니다.”²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보다 손에 쥘 작은 화면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트윗을 올리는 것이 누군가의 눈을 직접 바라보며 짓는 미소나 심지어는 얼굴을 맞대고 나누는 대화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친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사랑과 염려,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자신의 “팔로워”가 몇명인지, “좋아요”가 몇개인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의 기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개인용 기기를 사용할 때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복음 생활의 정수는 봉사라는 사실을 그만 잊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십 대와 청년 시기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 대한 큰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를 통해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려 하는 여러분의 소망을 보고 느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회원들이





자신의 성약과 제자됨의 중심에 봉사를 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다른 것에 주의를 빼앗기거나 세상을 바꿀 야심찬 방법을 찾느라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들을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요 사항은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 와드, 지역 사회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하면서도 바로 옆 자리에 앉은 같은 반 친구가 우정을 갈구하고 있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린다 케이 버튼 자매님은 1990년대에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켈트를 모은 한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딸과 함께 트럭에 가득 실린 켈트를 런던에서 코소보까지 실어 나르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매님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는 분명한 영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성신은 ‘네가 했던 일은 아주 훌륭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길 건너편의 이웃을 위해 봉사하거라!’고 속삭였습니다.”³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의 필요 사항은 무시하면서 세상을 구하고자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한들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가장 가까운 곳에

두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를 행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보좌인 캐롤 에프 맥콩키 자매님은 최근 저에게 열 살 난 손녀 사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것을 알고 스스로 어머니를 돕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라는 아픈 어머니가 설 수 있도록 스스로 여동생을 깨워 옷을 입히고 이를 닦이고 머리를 묶어 주고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주변 사람의 필요 사항을 발견했고 돕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단순한 봉사를 행했습니다. 사라는 그녀의 어머니를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누군가의 짐을 가볍게 해 주며 기쁨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불어 동생과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는 거의 모든 연령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대대적으로 행해질 필요가 없으며, 그것은 가족 안에서 가장 고귀한 것이 됩니다.”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봉사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여러분의 가족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형제자매와 부모님께 친절과 관심을

보이는 것은 단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영을 가정으로 초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나의 가족을 강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봉사의 또 다른 초점은 우리가 속한 와드의 가족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에 왜 가야 하죠? 별로 유익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순간을 가르침의 기회로 삼으려면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왜 상호 향상 모임에 너의 유익을 찾기 위해 간다고 생각하니?”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이 참석하는 모든 교회 모임에는 외롭거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친구가 필요하거나 그 자리에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모임이나 활동에는 여러분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또래를 살펴보고 그분처럼 보살피기를 바라십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두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서 성도들이 서로 돕는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이 종교는 내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눈이자 손이며, 머리가거나 발이며 또한 다른 여러 신체 부위입니다.”⁵

물론 우리가 매주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는 의식에 참여하고 교리를 배우고 영감을 얻기 위해서지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유는 와드의 가족으로서,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를 살피고 격려하며 봉사하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것을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는 자,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 청년 여러분, 다음 상호 향상 모임에 참석할 때 휴대폰을 통해 가상의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 살펴보기보다는, 멈추고, 주변을 돌아본 뒤

“오늘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라고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또래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보살피고 남몰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용기를 줄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주변의 누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알려 주시도록, 또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가장 잘 봉사할 수 있을지 영감을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구주께서는 대부분의 경우 한번에 한 사람씩 보살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손자 에단은 열일곱 살입니다. 저는 손자가 어머니의 모범에서 영감을 얻어 매일 누군가에게 봉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매우 감명받았습니다. 지난여름 그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에단이 형제자매들에게 인내와 사랑, 친절을 보이고, 부모님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단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는 관심과 그들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소망은 참으로 인상깊었습니다. 그는 제게 좋은 모범입니다. 에단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할 방법을 찾도록 주님을 초대한다면,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 사람들의 필요 사항과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한 개인”을 볼 수 있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보살필지 알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가족과 와드 회원들에게 봉사하는 것에서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과 지역 사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십시오. 매우 커다란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경우 우리에게 도움 요청이 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일으키고 돕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최근 저는 현세적인 어려움이 많은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한 지역 회장님께서 세계 다른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 현금을 후히 내고 교회의 인도주의적 기금에 기부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이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축복받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특히 청소년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성약에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은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고 불행한 이를 돕고자 하는 소망을 계속 간직하도록 축복받을 것입니다.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족은 여러분과 영원히 이어질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상황이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오히려 그렇다면 더더욱, 여러분은 봉사하고 복돋아 주고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가족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미래에 꿈꾸는 가족을 위해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와드의 가족 중 사랑과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교회에 갈 때 “오늘 모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 대신 “오늘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할까?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가족과 와드 회원들을 축복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속한 지역 사회의 이웃들을 축복할 방법들을 찾아보십시오. 대대적인 봉사 활동을 할 시간이 있든, 한 달에 몇 시간만 할애할 수 있든 상관 없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다른 이의 삶을 축복할 것이며, 여러분 자신의 삶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축복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러나 보통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⁶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필요 사항을 도움으로써 그분의 사업을 완수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특권과 축복임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9:24.
2. 토마스 에스 몬슨,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나?”,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84쪽.
3. 린다 케이 버튼, “나그네 되었을 때”,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13쪽.
4. 제임스 이 파우스트, “여성: 가장 영예로운 자리”, *리아호나*, 2000년 7월호, 116쪽.
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교회가 필요한 이유”, *리아호나*, 2015년 11월호, 108쪽.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유 김볼(2006)*, 82쪽.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가족 선언문은 현재 세상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복음 진리를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것입니다.

가족 선언문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우리만의 특별한 교리와,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고대 및 현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어떤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기도 합니다.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9; 또한 요한복음 17:14, 16 참조)

이와 유사하게, 예수님의 초기 사도들의 기록에는 “세상”의 이미지가 종종 복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로마서 12:2),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고린도전서 3:19) 또한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누가 ...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골로새서 2:8) 사도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고 가르쳤습니다.(야고보서 4:4)

물론경에서도 “세상”의 이미지는 종종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니파이는 “세상의 눈에 들기 위해 세워진 자들과 ... 세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파멸에 대해 예언했습니다.(니파이전서 22:23; 또한 니파이후서 9:30 참조) 엘마는 “세상의 헛된 것으로 부풀어” 오른 자들을 책망했습니다.(엘마서 31:27) 리하이의 꿈은 쇠막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자들이 세상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보여 줍니다. 리하이가 본 “크고 넓은 건물”에 속한 사람들은 “조롱하는 태도로” “멸시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니파이전서 8:26~27, 33) 이 꿈을 해석한 시현에서, 니파이는 이 조롱과

I.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3:22) 이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에 더 마음을 쓰는 것을 질책하시며,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23, 26) 그분은 필멸의 생 마지막 가르침에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므로] ... 세상이 너희를



반대가 “땅의 허다한 무리, … 세상과 그 지혜, … 세상의 교만”에서 온 것임을 배웠습니다.(니파이전서 11:34~36)

“세상에” 속하지 말라는 경전의 경고와 계명 또는 현대에 주어진 “세상을 버[리라]”는 계명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교리와 성약 53: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에서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 버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에 맞지 않는 어떤 것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하겠다는 가장 큰 소망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¹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이 영광을 얻기를 바라셨으며, 이를 위한 필수 단계로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영의 자녀들이 필멸을 경험할 장소를 마련해 주시게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수많은 왕국과 영광들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들을 위해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것은 몬슨 회장님이 “하나님 왕국에서의 영생”이라고 부르신 것, 즉 가족으로서의 승영입니다. 이는 구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승영은 가족의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²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계가 조금 뒤에 이야기할 영감에 찬 가족 선언문은 필멸의 상태로 승영을 준비하는 과정을 인도하는 데 필수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사악해져 가는 세상에서 결혼 관련법 및 기타 전통과 더불어 생활해야 합니다. 하지만, 승영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려는 사람은 주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이 다를 때 가정 생활에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으며 살아가는 동안 반대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옳은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를 선택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여기에는 성약과 의식,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회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신앙이 없거나 마땅히 요구되는 일을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물론명은 “이 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고 가르칩니다.(앨마서 34:32)

II.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하는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이유와 그분께서 요구하시는 의식의 불변성,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속죄는 우리가 사망을 극복할 방안을 제공하며,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합니다. 그 세계관으로 후기 성도들은 뚜렷한 우선순위와 관행을 갖게 되며, 필멸의 삶에서 오는 낙담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르려 노력하는 이들은 그런 원리를 믿지 않는 가족

일원이나 친구들로부터 불가피하게 오해를 사거나 갈등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갈등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자 했던 모든 세대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고대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며 힘을 주었습니다. 그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라고 부르며,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이사야 51:7; 또한 니파이후서 8:7 참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갈등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 계획을 이해하는 자들은 언제나 세상의 방법 대신 주님의 방법을 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III.

가족이 영생과 승영을 준비하기 위해 따라야 할 복음 계획은 교회에서 1995년에 발표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³ 물론 여기에 선언된 내용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행법과 관계, 행동 노선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시대에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바로 동거, 동성 결혼,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입니다. 승영이라는 개념을 믿지 않거나 이를 열망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상의 방식에



쉽게 설득되고 동요되는 사람들은 이 가족 선언문을 그저 잘못된 정책을 써 놓은 글이라고 여깁니다. 반대로, 후기 성도는 가족 선언문이 가족 관계를 정의해 주며, 바로 그러한 가족 관계에서 우리의 영원한 진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동거와 동성 결혼이 사회에서 급속도로 용인되어 가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대중 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지지와 교육, 심지어 직업에 관련된 요건은 후기 성도들에게 어려운 과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사랑을 보이려 노력하면서도 개개인의 삶과 가르침에서 복음의 율법을 따르라는 이상충된 요구 사이에 균형을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때로 우리는 이사야가 말한 “그들의 비방”에 직면하게 될 테지만 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거의 사반세기 전에 발표되어 이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된 가족 선언문이 현재 세상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를 지탱하는 데 필요한 복음 진리를 주님께서 다시 강조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두 가지 예가 바로 동성 결혼과 동거입니다. 가족 선언문이 발표된 지 불과 20년 만에 미 대법원은 동성 결혼을 허용했습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행해졌던 결혼

제도를 뒤집는 결정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의 놀랄 만한 수치는 조금 더 서서히 진행된 편입니다. 1960년대에 5퍼센트였던 수치는⁵ 1995년에 32퍼센트를 거쳐⁶ 이제는 40퍼센트 이상에 이릅니다.⁷

IV.

가족 선언문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며 가족은 창조주께서 그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하여 마련하신 계획의 중심[이다.]” 또한 “남녀의 성별은 각 개인의 전세와 현세와 영원에 걸친 개인의 신분과 목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특성”임을 확증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선언문은 이렇게 공표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하셨음을 선언한다.”

선언문은 또한 남편과 아내에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며,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으며,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는

행위는 엄중히 경고하는 동시에 “가족 생활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근거를 둘 때 가장 훌륭하게 성취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선언문은 “가족을 사회의 기본 단위로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공식적인] 방안들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1995년에 교회 회장과 주님의 사도들 열네 명은 이 중대한 교리적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아직 살아 있는 일곱 명의 사도들 중 한 명으로서, 저는 그 선언문을 읽으신 모든 분들을 위해 가족 선언문의 작성 배경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에 대한 선언문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 준 영감은 23년 전에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교리는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서 다시 선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도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증을 받았으며 그 일을 진행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거의 일 년 동안 이 주제와 내용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적절한 표현과 단어를 선정하고,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떤 식으로 말해야 하는지를 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영감을 구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식으로 배웠습니다.(교리와 성약 98:12)

이러한 계시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선언문은 교회의 가르침과 교리를 관리하고 공포하는 제일회장단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제일회장단의 감수와 수정을 거친 뒤,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가족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1995년 9월 23일에 열린 여성 총회에서 힝클리 회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선언문을 소개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많은 궤변들에 대해, 표준과 가치에 관한 많은 속임수에 대해, 서서히 세상을 오염시키는 많은 유혹에 대해 경고하고



[미래를 대비해] 미리 경고해야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⁹

저는 가족 선언문이 영원한 진리를 밝혀 주는 성명이자 영생을 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뜻을 간증합니다. 그 선언문은 지난 22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언문을 그렇게 여기고,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십 년 전 에스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모든 세대에게는 그 세대에 맞는 시험이 있으며 이를 이겨 내고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¹⁰ 저는 이 가족 선언문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활용하는가가 바로 이 세대에게 주어진 시험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모든 후기 성도들이 그 시험에서 굳건하길 기도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가족 선언문이

발표된 지 2년 후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불확실한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래를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굳게 지키고, 유산 위에 더 많은 것을 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단순히 복음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장엄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행복을 여는 열쇠를 발견한 특별한 사람들로 추앙받을 것입니다.”¹¹

저는 가족 선언문의 참됨과 그것이 지닌 영원한 중대성을 간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를 그분의 사도들에게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을(교리와 성약 131:1~4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82쪽.
2. 러셀 엠 넬슨, “구원과 승영”,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10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4. 맬린 에이치 옥스, “사랑과 율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26~29쪽 참조.
5. “Disastrous Illegitimacy Trends,” *Washington Times*, Dec. 1, 2006, washingtontimes.com 참조.
6. Stephanie J. Ventura and others, “Report of Final Natality Statistics, 1996,” *Monthly Vital Statistics Report*, June 30, 1998, 9.
7. Brady E. Hamilton and others, “Births: Provisional Data for 2016,” *Vital Statistics Rapid Release*, June 2017, 10.
8. 본부 청년 회장은 20년이 지나 이를 잘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요즘 세상의 미디어, 인터넷, 학계, 텔레비전, 영화, 심지어 정치인들이 쏟아내는 새로운 세상적인 신조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이 기본적인 선언이 이렇게 절실히 필요하게 될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에 대한 이 선언문은 세상의 철학을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선언문에 담긴 원리가 거의 2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때 그랬듯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참됨을 간증합니다.”(보니 엘 오스카슨, “가족 선언문의 수호자”,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4~15쪽.
9. 고든 비 힝클리, “세상의 속임수에 굳건하게 맞섬”,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00쪽.
10. Ezra Taft Benson, “Our Obligation and Challenge,” regional representatives’ seminar, Sept. 30, 1977,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인용함, “주님의 편에서 서서: 시온 진영에서 배우는 교훈”, *리아호나*, 2017년 7월호, 19쪽.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2016), 186쪽; 또한 고든 비 힝클리,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1998년 1월호, 69쪽 참조.



존 시 핑그리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진척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 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네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모세서 1:6)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실 일이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이루도록 예비하신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저는 “네!”라고 간증드립니다.

네팔에서 태어나고 자란 기리슈 기미레 형제는 청소년기에 중국에서 공부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미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솔트레이크 밸리에 정착하여 네팔 아이 두 명을 입양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네팔 난민촌에서 1,500여 명의 난민이 유타로 이주했을 때¹ 기리슈는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유창한 모국어 실력을 갖추고 그들의 문화를 잘 이해했던 그는 통역사, 교사, 멘토로 봉사했습니다. 네팔 난민 중에는 복음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팔 지부가 조직되었으며 기리슈는 이후 지부 회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는 또한 물문경을 네팔어로 번역하는 일에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리슈를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쓰고 계시는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일을 갖고 계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께서 자매들에게 전하신 다음 가르침은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지구에] 오기 전에 ... [우리는] 특정한 임무를 받았[습니다]. ... 지금 그 상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동의했던 영광스러운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² 이 얼마나

고귀한 진리입니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야 하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에베소서 2:10 참조)

이러한 신성한 임무는 특권을 지닌 소수의 사람이 아니라 성별, 나이, 인종, 국적,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나 교회 부름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일을 진척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모세서 1:39 참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중요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늘 평범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고린도전서 1:27~28; 교리와 성약 35:13; 124:1 참조)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이며 “많은 의를 이룩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58:27~28)³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시기와 장소를 위해 예비되고 남겨져



있었습니다. ...

주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따를 때, 여러분은 불가능한 일을 성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습니까? 도움이 될 네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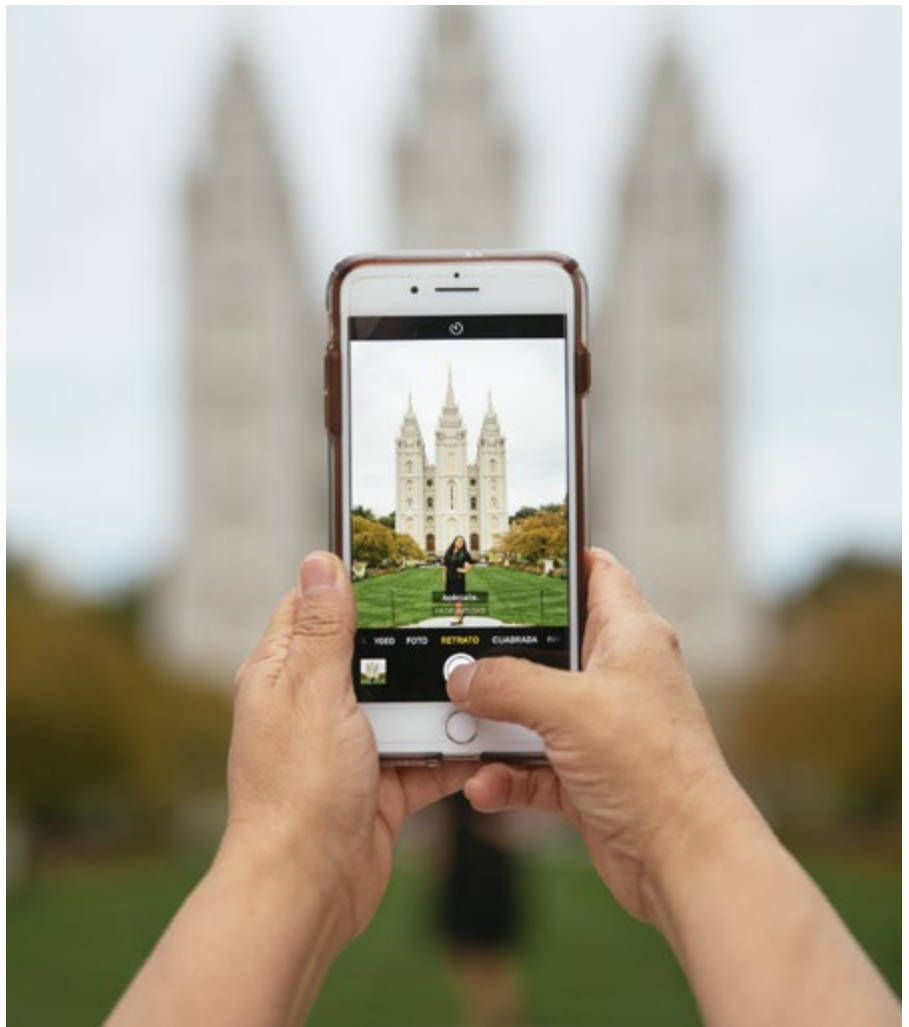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우리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사도행전 10:38; 또한 니파이후서 26:24 참조)

선교 사업을 마친 후, 저는 매일같이 목적을 가지고 생활했던 그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분명, 저는 성약을 지키고, 교육을 받고, 가족을 꾸리고,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더 많은 일 혹은 특별한 일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러 달을 생각하던 중 저는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면, 너는 이 세대에 많은 선을 행하는 방편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11:8) 저는 신성한 임무의 일차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많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영을 통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공부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혹은 어디에 살지처럼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족이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유한 동네에서 집을 찾은 대신, 사회 경제적으로 힘든 지역에 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주님께서서는 그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우셨고 그 지역의 와드와 스테이크를 강화하셨습니다.



한 의사는 일상적으로 진료를 보던 중 일주일에 하루는 의료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료 진료를 해 주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었던 그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은 대가족을 부양하면서도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도울 방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찾아 발전시키십시오

둘째, 영적인 은사를 찾고 발전시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통해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찾고, 수행하며,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나한테 은사가 있기는 한가?”라고 의아해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 대답은 “네!”입니다. “각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한 가지 은사가 주어[집니다.] ... 이는 모두가 그로써 유익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교리와 성약 46:11~12; 강조체

추가)⁵ 경전에는 여러 종류의 영적인 은사가 나와 있지만(고린도전서 12:1~11, 31; 모로나이서 10:8~18; 교리와 성약 46:8~26 참조), 그 외에도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⁶ 여기에는 동정심 갖기, 소망 표현하기,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효과적으로 조직하기, 설득력 있게 말하거나 글쓰기, 분명히 가르치기, 열심히 일하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은사를 알 수 있습니까? 축복사의 축복을 참고하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내가 선천적으로 잘 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쭙볼 수 있습니다.(야고보서 1:5; 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은사는 하나님에게서 오므로 그분은 우리의 은사를 알고 계십니다.(교리와 성약 46:26 참조)



재능을 찾았을 때, 우리는 이를 발전시킬 책임이 있습니다.(마태복음 25:14~30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 은혜에 은혜를 받아 발전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93:13)

미술 작품을 통해 종교적 가치를 고취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작품 중 구주의 초상화를 좋아하여 저희 집에도 걸어 두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은사를 발전시키고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청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제자가 되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에게 특별히 중요한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낙담한 한 자매는 어느 날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제 개인적인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분은 “다른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라고 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받은 영적인 은사였습니다! 그 후로, 그녀는 쉽게 등한시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기쁨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일하시며 많은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은 은사들도 있지만,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⁷

역경을 활용하십시오

셋째, 역경을 활용하십시오. 시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찾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많은 환난 후에, 주께서 … 나로 그의 손에 있는 도구를 삼으사.”(모사이아서 23:10)⁸ 구주께서 속죄 희생으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듯(엘마서 7:11~12 참조), 우리는 힘든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북돋아 주고, 강화하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한 성공적인 인사부 간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리 해고를 당한 후, 축복사의 축복을 읽던 중 다른 사람의 취업을 돕는 회사를 창업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도 선교 사업을 마친 뒤 직업을 찾을 때 그분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그의 시련을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디딤돌로 사용하셨고, 동시에 그에게 더욱 의미 있는 직업을 주셨습니다.

한 젊은 부부는 사산을 겪었습니다. 마음이 아팠던 그들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부모들에게 상담과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딸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주님은 역경을 겪으며 특별한 공감력을 키운 이 부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넷째,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의도와 신앙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신성한 임무를 알려

주십니다.⁹ 우리가 그 임무를 찾게 되면, 그분은 우리가 그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나타나 있[으며]”(교리와 성약 38:2; 또한 아브라함서 2:8 참조), 그분은 적절한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문들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요한계시록 3:8 참조) 하나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의지하여 자기 능력 이상의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빌립보서 4:13; 엘마서 26:12 참조)

지방 정부가 내리는 결정에 관심이 있던 한 형제는 공직에 출마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든 선거 과정이었지만 그는 신앙을 행사하여 출마를 위한 자원을 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선거에서 졌지만, 지역사회에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도록 주님이 그를 인도하고 힘을 주셨음을 느꼈습니다.

발달 장애 자녀들을 홀로 키우던 한 어머니는 자신이 가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록 힘들기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맡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내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도록 도와주시지만, 대적은 우리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 의미 있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는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장애물인데, 이는 죄가 성신을 느끼는 우리의 민감성을 둔하게 하고 영적인 힘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일을 수행하려면, 깨끗하게 되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제3니파이 8:1 참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탄은 또한 덜 중요한 문제로 우리의 관심을 돌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마음은 … 나의 일과 네가 부름을

받은 성역보다는 땅의 일에 더 많이
있었고.”(교리와 성약 30:2) 우리도 세상적인
일에 너무 몰두하여 우리의 신성한 임무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와 더불어, 사탄은 우리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는 우리의
일을 너무 어렵거나 두려워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신명기
31:8; 또한 시편 32:8; 잠언 3:5~6; 마태복음
19:26; 교리와 성약 78:18 참조)

또 사탄은 다른 사람이 맡은 일보다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가 덜하다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임무는
중요하며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영광으로 여[길]” 때 성취감을 얻을
것입니다.(앨마서 29:9)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대적은 업적의 공로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주의 겸손함을 본받아 개인적인
찬사를 피하고 그 대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5:16; 모세서
4:2 참조) 한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빈민을 도운 일생의 과업에 감사를 표하려
하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 그분의
손에 있는 연필에 불과합니다. ...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이 쓰십니다. 연필은
그러한 일에 하등 관여하지 않습니다.
연필은 다만 그분의 뜻에 따라 사용될
뿐입니다.”¹⁰

결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자신을] ...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권고드립니다.(로마서 6:13)
자신을 드린다는 말은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함을 그분께 알려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여 그분의 힘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우리는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전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러자 예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또한 이사야서 6:8 참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로서 예민된 역할을 맡아들이고
준비하시어 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으며(요한복음 5:30;
6:38; 제3니파이 27:13 참조) 그분의 신성한
임무를 완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사업을 진척하고 사람들을 축복하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Refugee Processing Center, “Admissions and Arrivals,” ireports.wrapsnet.org/Interactive-Reporting 참조.
2. 스펜서 더블유 김볼, “의로운 여성의 역할”,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50쪽.
3.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위대[한] ... 일들을 행할 여러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 여러분은 끝없는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헝클리[2016], 72쪽)
4. Russell M. Nelson, *Accomplishing the Impossible: What God Does, What We Can Do* (2015), 147.
5.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잠재력을 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대해서 우리도 모르는 것들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이룰 것을! ... 우리의 일생에 걸쳐 축구하십니다. ... 구주를 따르고,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재능을 인식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후회와 결심에 관하여”,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22~23쪽)

6. 브루스 알 맥쿱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영적 은사는 수도 없이 많으며 그 종류도 무한하다. 경전에 나오는 은사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끝없이 주시는 신성한 은혜의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A New Witness for the Articles of Faith* [1985], 371)
7.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항상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눈에 띄는 것은 아니나, 매우 중요한 몇 가지 은사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사 중에는 여러분이 받은 은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도 실제적이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은사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질문하는 은사, 귀 기울이는 은사,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듣고 활용하는 은사, 울 수 있는 은사, 다름을 피하는 은사, 동의하는 은사, 중언부언을 피하는 은사, 의로운 것을 구하는 은사, 심판하지 않는 은사,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는 은사, 제자가 되는 은사,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은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사, 기도드리는 은사, 강한 간증을 전하는 은사, 성신을 받는 은사 등이 있습니다.”(“여러 가지 은사”, 성도의 빛, 1988년 1월호, 22쪽)
8. 바울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린도후서 1:4)
9.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지속적인 순종으로 그분을 찾을 때 그분께서는 그 계획을 조금씩 여러분께 나타내실 것입니다.”(“점점 증가하는 악 속에서 잘 사는 방법”, 리야호나, 2004년 5월호, 102쪽)
10. Edward W. Desmond, “Interview with Mother Teresa: A Pencil in the Hand of God,” *Time*, Dec. 4, 1989, time.com.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간절히 바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 수께서는 갈릴리에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으로 오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시고,¹ 이튿날 가버나움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많은 이가 당신의 가르침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고, 다시 음식을 얻을 것만 생각하고 있음을 아셨습니다.² 그리하여 주님은 “[인자가 가져다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려 하시며³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⁴

그 가운데 구주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이해한 이들은 그분이 뜻하신 바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에 기겁하며 의문을 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⁵ 계속하여 예수께서는 그 원리를

이렇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⁶

그런 후 주님은 이 상징의 심오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⁷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중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⁸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직설적인 표현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 곧 우리 존재 안에 구주를 얼마나 온전히 임하게 해야 하는가를 피력합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희생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압니다.⁹ 그렇다면 분명 우리는 그분이 치르신 속죄에서 비롯된 권능과 축복을 얻을 때 그분의 살을 취하고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에는 속죄의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해야 하고, 회개하여 침례받아야 하며, 성신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과 성신에 의하여 [우리의] 죄 사함이 임”합니다.¹⁰ 바로 이 관문을 통해 우리는 구주의 속죄 은혜를 얻고 그분의 왕국으로 이어지는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즉 만일 너희가 [그 길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니라.

… 보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리요, 한 하나님이시요 끝이 없으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유일하고 참된 교리니라.”¹¹

마지막 만찬에서 행해진 성찬에는 아름다운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떡이요 생수이신¹² 그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빵과 물을 생각할 때,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고자 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통렬히 깨닫습니다. 빵이 떼어질 때, 우리는 구주께서 살이 찢기었음을 기억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떼이고 찢긴 빵은 조각마다 서로 모양이 다릅니다. 빵을 취하는 사람이 서로 다르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회개할 잘못이 다릅니다. 저마다 필요한 것들도 다릅니다. 우리의 필요 사항은 우리가 성찬 의식에서 기억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강화됩니다.”¹³ 우리는 성찬식에서 물을 마시며, 그분이 겻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그 피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생각합니다.¹⁴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함과 끝까지 충실함으로 인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빨자”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¹⁵

죄와 죄로 인한 얼룩을 지우려면 구주가 베푸신 속죄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데는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육으로 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¹⁶ 성도가 되어 감으로써 그리스도의 특성과 성품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주 성찬식에서 빵과 물을 취하는 시간은 그분의



성품과 죄 없는 삶의 방식을 우리의 삶과 존재에 얼마나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좋은 기회입니다. 예수께서는 죄 없는 몸이 아니셨더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죄를 대속할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고 공의의 요구에서 자유로우셨기에, 공의를 충족하고 자비를 베푸시고자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줄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죄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는 동안, 그분의 죄 없는 삶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몫을 다하고자 온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쉬지 말고 나아가야 합니다.¹⁷ 물론경에 나오는 라모나이 왕의 부친처럼, 우리도 기꺼이 모든 죄를 버리고¹⁸ 개개인으로서는 물론 다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얼마 전 친구 하나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며 겪었던 일을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는 수술을 하여 회복되기까지

몇 주가 걸렸기에, 많은 시간 동안 경전을 탐구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3니파이 27장에 있는 구주의 말씀을 상고하던 중에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친구의 말입니다.

“꿈을 꿴데, 내가 살아온 시간이 선명한 전경으로 눈 앞에 펼쳐지더군요. 죄를 짓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순간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인내하지 못한 … 순간이며, 좋은 말과 행동이 필요했지만 그냥 넘기고 만 순간도 봤지. … 삶을 전부 돌아보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몇 분이었지만, 내겐 훨씬 더 길게 느껴졌지. 깜짝 놀라 눈을 뜨기 무섭게 …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네. 그렇게 깊은 감정을 쏟아내며 용서를 구한 적은 없었을 거야.

그 꿈을 꾸기 전에는 내가 그토록 회개가 필요한 사람인 줄 몰랐다네. 내 잘못과 약점이 순식간에 너무도 명백히 눈에 보이자, 당시의 내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모습과 천 길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네. 그 늦은 오후의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 온 영혼을 다해 더없이 깊이 감사드려다네. 그분들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그리고 내게 정말 소중한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가 그렇게 감사할 수 없었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내가 함당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손에 만져질 듯했네. ...

그날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어. ... 마음이 달라졌지. ... 그 일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느끼며 더 큰 사랑의 힘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네. ... 신앙, 소망, 회개의 은사와 관련된 물문경의 메시지도 그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네.”¹⁹

중요한 것은, 이 훌륭한 남성이 자신의 죄와 약점에 관한 선명한 계시를 보고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는 충격도 받고 후회도 했습니다. 꼭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는 겸손해졌지만, 감사와 화평, 그리고 진정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²⁰

제 친구는 그 꿈에서 본 자신의 삶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 사이의 간극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거룩함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명하셨습니다.²¹

에녹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는 곧, 아담의 언어로 말하건대, 거룩한 사람이 그의 이름이요, 그의 독생자의 이름은 인자[이니라.]”²² 어린 시절 저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약전서에서 (그분이 스스로 당신을 가리키실 때조차) 종종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일컬어지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녹의 말을 통해, 예수님의 이러한 명칭은 사실 그분의 신성과 거룩함이 드러난 말임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사람, 곧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을 간절히 바랄 때,²³ 우리는 육신과 영의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²⁴ 우리는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성전에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결혼과 가족, 가정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매주, 기쁨으로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며 거룩함을 추구합니다.²⁵ 말과 복장, 생각 등 일상의 세세한 부분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우리가 읽고 보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²⁶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십자가를 지며 거룩함을 추구합니다.²⁷

캐럴 에프 맥콩키 자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덕하고 칭찬할 만한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시험과 유혹, 시련을 압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필멸의 경험은 거룩함을 선택할 기회를 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성약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할 때 성결해지고 거룩하게 됩니다.”²⁸ 저는 우리의 희생에 봉사를 더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다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압니다.²⁹ 주님은 그러한 봉사가 그분의 생애와 성품의 핵심임을 다음과 같이 일깨워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³⁰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봉사는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살 권리를 얻기 위해 그저 이 지상에서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는 해의 왕국에서 승영의 삶을 이루는 근간입니다.”³¹

스가라는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복천년이 되면 말에 달린 방울에조차 “여호와께 성결”, 곧 주님께 거룩함이란 말이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³² 이 곳의 개척자 성도들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평범하거나 일상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비롯하여 종교 활동과 더 깊이 관련된 것들에 “주님께 거룩함”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성찬 컵과 성찬기에도 새겼고, 칠십인이 행한 의식 증서와 상호부조회 배너에도 인쇄해 넣었습니다. “주님께 거룩함”이란 문구는 시온의 상업 협동 기관인 ZCMI 백화점 진열장에도 붙였습니다. 건설 현장의 망치에서도, 악단의 북에서도 보였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의 자택 문에 달린 철제 손잡이에도 있었습니다. 거룩함과 관련된 이 문구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곳에서 보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은 거룩함에 집중하는 일이 얼마나 보편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구주의 살을 취하고 그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과 걸맞지 않은 모든 것을 삶에서 몰아내고 그분의 속성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회개의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과거의 죄에서 멀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악에서 돌이켜 ...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을 뜻합니다.³³ 제 친구가 꿈에서 계시를 얻었을 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흠을 보여 주시겠지만 그것들을 또한 강점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³⁴ 진지하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라고 여쭙다면³⁵ 그분은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큰 노력이 들어가는 일이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홀로 애쓰다면 너무도 벅찬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은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 성신의 위로와 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동료 성도들의 격려가 있습니다. 현재의 우리에게 만족하지 말되, 낙담하지도 맙시다. 단순하지만 사려 깊은 찬송가 가사에 담긴 충고처럼,

거룩하게 될 시간을 가지라 세상은
계속될지니

은밀한 중에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분을 닮으리니
너 보는 자마다 예수님 모습 떠올리리라³⁶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며,³⁷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임³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증거합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6:9.
2. 요한복음 6:26 참조.
3. 요한복음 6:27.
4. 요한복음 6:48~51.
5. 요한복음 6:52.
6. 요한복음 6:53~55.
7. 요한복음 6:56~57.
8. 요한복음 6:60, 66. 이때 구주께서는 열두 제자를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셨다.(요한복음

6:67) 베드로는 열두 명을 대신해 굳은 신앙으로 이렇게 답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8~69) 그 순간 베드로와 형제들이 이제 주님을 떠나가려는 제자들보다 그분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마태복음 16:15~17 참조), 그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영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분명히 알았다. 그러므로 그는 그와 관계없이 전심전력으로 예수님을 따랐다. 그가 질문이 있다면 결국 답은 주어질 터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충성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이 아닐 수 없다.

9. 마태복음 22:44; 히브리서 13:12; 모사이야서 3:7; 15:7~8; 엘마서 7:13; 교리와 성약 19:18; 38:4; 45:4~5 참조.
10. 니파이후서 31:17.
11. 니파이후서 31:20~21.
12. 요한복음 4:10 참조.
13. 델린 에이치 옥스, “소개 말씀”(신임 선교부 회장 세미나에서 한 말씀, 2017년 6월 25일), 2.
14. 모세서 6:60 참조.
15. 제3니파이 27:19; 또한 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16. 모사이야서 3:19.
17. 에베소서 4:13.
18. 엘마서 22:18 참조.
19. 개인 서한.
20. 요한복음 6:51.
21. 베드로전서 1:16.
22. 모세서 6:57.
23. 요한복음 6:56 참조.
24. 로마서 12:1 참조.
25. 이사야 58:13 참조.
26. *Teachings of Thomas S. Monson*, comp. Lynne F. Cannegeter (2011), 267.
27. 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16:25~26(마태복음 16장 24절의 주석 e); 누가복음 9:23;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14:27~28(누가복음 14:27, 주석 b); 조셉 스미스 역, 누가복음 14:31(누가복음 14장 30절의 주석 a) 참조.
28. 캐럴 에프 맥콩키, “아름답고 거룩한 것”,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0쪽.
29. 모사이야서 2:17.
30. 마가복음 10:45; 또한 엘마서 34:28 참조.
31. 매리온 지 롬니, “자립의 신성한 특성”, *리아호나*, 2009년 3월호, 19쪽.
32. 스가랴 14:20.
33. 경전 안내서, “회개” 참조.
34. 이더서 12:27 참조.
35. 마태복음 19:20.
36. William D. Longstaff, “Take Time to Be Holy,” *The United Methodist Hymnal* (1989), no. 395.
37. 요한복음 6:51.
38. 요한복음 6:54.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러므로 너희도 종국에는 온전하라

우리가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영원한 시간 어딘가에서 우리의
정화 과정은 끝나고 완성될 것입니다.

경 전은 우리를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였으며,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경전의 각 장과 구절에 대해 하늘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따금 경전 구절 하나가 눈에 들어와 우리가 아직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일깨우는 것을 여러분은 느낀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산상수훈은 마음에 위안을 주는 온화한 팔복으로 시작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 여러 가르침과 함께 살인하지 말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노하지도 말라고 가르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불순한 생각조차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는 속옷도 주고 겂옷까지도 주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악담을 퍼붓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합니다.¹

아침에 경전 공부를 할 때 겨우 여기까지 읽고 나서 복음 성적표에 표시될 우리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상당히 확신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나오는 계명을 보고 나면 그 확신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² 이

결론적인 계명에 이르러서는 자리에 도로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같은 해의 왕국의 목표들은 결코 이루지 못할 일들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시는 계명은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이 당혹스러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저는 교회 여기저기에서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는 결코 기대에 못 미칠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청소년들에게서 듣습니다. 선교사들에게서도 듣습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에게서도 듣습니다. 평생 교회 회원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도 듣습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성약과 계명이 저주와 단죄인 것처럼 여겨지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통찰력 있는 후기 성도인 달라 아이잭슨 자매가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탄은 복음의 이상과 영감을 자기 혐오와 비참함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³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계명도 거부하거나 약화시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분께서 완전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그분의 영의 아들과 딸이고 그분과 같이 될 수 있는 신성한 잠재력을 지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자신을 비하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을 두들겨 패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든 될 수 있거나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저는 우리가 기꺼이 회개하려는 마음과 의롭고자 하는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서, 궤양이나 거식증을 일으키지 않으며,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존감을 무너뜨리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서, 또는 정직하게 “주 예수를 닮으려고”를⁴ 노래하는 그 누구에게서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전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으며 현재로는 우리가 타락한 백성임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해의 왕국이 아니라 별의 왕국에**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이 필멸의 삶에서 완전함은 아직 “대기 중”인⁵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께서 우리의 결점에 대해 언어의 망치로 때리기 위해 이 주제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수께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며,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찬미로 그 가르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제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심을, 예컨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실 수 있음을** 알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안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으로⁶ 말미암아 바로 그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원하거나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따금 그분을 악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화평하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게 자비가 필요하며 세상에 화평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미덕에 관해 말하는 모든 것은 지상 생활을 하시고 돌아가시어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완전함에 이르신 독생자께 해당합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성취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흐트러진 삶을 살거나 우리 표준을 낮추는 행위가 조금이라도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복음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⁷ 저는 다만 경전이나 계명이 지닌 목적 중 적어도 하나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⁸ 진정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서,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더 큰 사랑과 찬양 그리고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불러일으키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모로나이이는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라.] …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러면 …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지라.”⁹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사를 받음으로써만 진정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를 슬픔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비판으로부터도 구원해 줍니다.

이 점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기 위해 구주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인내와 자비를 호소하는 종의 간청을 듣고서 “주인이 불쌍히 여겨 …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자신에게 100테나리온을 빚진 동료 종을 용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애석해하며 용서해줬던 그 종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했습니다.¹⁰

여기에서 언급된 화폐 가치에 관하여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지만,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의 탕감받지 못한 빚 100테나리온을 현재의 가치로 10만원이라고 치고, 매우 후하게 탕감받은 10,000달란트

빛을 1조원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는 개인이 진 빛 치고는 전문학적인
액수로, 우리의 이해력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쇼핑하는 데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빛은
무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빛은 우리의
값을 능력을 넘어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이해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단지 신약전서에 나오는, 두 종 사이에서
벌어진 다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타락한 인간 가족,
즉 모든 필멸의 채무자요, 범법자요, 죄인인
우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개인은
채무자이며,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판결은
투옥이었습니다. 우리 왕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모두 그 옥에 계속 갇혀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향한 연민의 정으로 ... 애가 끊[어]”¹¹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서 헤아릴 수 없는
액수를 사용하시는데, 그분의 속죄는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 적어도
바로 그 점이 예수께서 온전하라고 명하신
의미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성취하신 10,000달란트의 온전함을 발휘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조그만한 일에서 아주 조금 더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 적어도
100테나리온의 온전함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향상하라고
하시는 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닐 뿐더러,
분명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제외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결점 없는 삶이란 이 지상
여정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에는 행동 과학자들이 말하는
“치명적 완벽주의”에¹² 집착하지 말고 꾸준한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타인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지나친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후기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름받은 사람이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기 때문입니다.

그 점과 관련하여, 레프 톨스토이는
한 성직자에 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 성직자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대로
완벽하게 살지 않는다고 한 신도가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신도는
부정한 성직자가 가르친 원리 또한 그릇된
것이 분명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비난에 대해 그 성직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내 삶을 보고 과거의 내
삶과 비교해 보시오. 그러면 내가 전하는
진리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요.” 자신이 가르친 높은 이상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그 성직자는
자신이 실패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원한다면] 나를 비난하시오. 나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소. 그러나 내가
따르는 길을 ... 비난하지는 [마시오.]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지만 술에 취해서 그
길을 따라 걷고 있다면, 내가 이리저리로
비틀거리며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될까요?”

... 의기양양하게 ‘저 사람을 보세요!
... 저 사람이 수렁으로 기어들어가고
있어요.’라고 소리치지 마시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고 고소해하지 마시고 ...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을 걸으려고 애쓰는
사람을] 도와주시오.”¹³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열망하는데, 실제
삶에서 해내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렇게
살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그 점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더 나아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어리석음 때문에, 또는 우리
주위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도마져도 불가피한
단점을 지녔다는 이유로, 복음 진리, 교회의
참됨, 미래에 대한 희망 혹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한다면, 영원한 시간 어딘가에서

우리의 정화 과정은 끝나고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전서에서 의미하는
온전함입니다.¹⁴

저는 그 원대한 운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 자신도
계속해서 “은혜에 은혜를”¹⁵ 더하여 불멸에
이르시고¹⁶ 해의 영광을 온전히 충만하게
받으셨습니다.¹⁷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매순간에도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사히
본향으로 돌아가 하늘 부모의 품속에 안길
때까지 못자국이 있는 손으로 바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간증드립니다. 그 완전한 순간을
향해 저는 아무리 어설피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그
완전한 은사에 대해 제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계속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어설피거나 부족하지 않으셨으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완전함 그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태복음 5:1~47 참조.
2. 마태복음 5:48.
3. Darla Isackson, “Satan’s Counterfeit Gospel of Perfectionism,” *Meridian Magazine*, June 1, 2016, ldsmag.com 참조.
4. “주 예수를 닮으려고”, 어린이 노래책, 40쪽.
5. 러셀 엠 넬슨, “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6~88쪽 참조.
6. 모사이야서 3:19.
7. 에베소서 4:12~13.
8. 에베소서 4:13.
9. 모로나이사서 10:32; 강조체 추가.
10. 마태복음 18:24~33 참조.
11. 교리와 성약 121:4.
12. Joanna Benson and Lara Jackson, “Nobody’s Perfect: A Look at Toxic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Millennial Star*, Mar. 21, 2013, millennialstar.org 참조.
13. “The New Way,” *Leo Tolstoy: Spiritual Writings*, sel. Charles E. Moore (2006), 81–82.
14. 신약전서에서 사용된 그리스어 단어 온전함(“teleios”)의 의미를 좀 더 이해하고자 한다면, 러셀 엠 넬슨 회장이 1995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인 “인젠가는 실현될 온전함”(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86~88쪽)을 참고한다.
15. 교리와 성약 93:13.
16. 누가복음 13:32 참조.
17. 교리와 성약 93:13 참조.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교회 역원 지지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교회의 총관리 역원과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도마스 스펜서 문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러셀 매리언 넬슨을,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러셀 엠 넬슨, 맬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게리 이 스티븐슨, 데일 지 렌런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일원으로 봉사해 주신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님과 리차드 제이 메인즈 장로님을 그 직에서 해임하겠습니다.

이분들의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봉사하시도록 부름받으신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님과 패트릭 키아론 장로님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새로운 임무를 지명받으신 장로님들을 지지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지 엘리스, 래리 알 로렌스, 더블유 크레이그 즈위크 장로님의 헌신적인 봉사에 감사하며 이분들을 칠십인 총관리 역원에서 해임하고 명예직에 임명할 것을 제의합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호명되는 분들을 지역 칠십인에서 해임하고자 합니다. 페드로 유 아두루, 데틀레프 에이치 아들러, 앙헬 에이치 알라르콘, 윈저 발데라마, 로버트 엠 콜, 크리스토퍼 찰스, 진 알 치메스터, 랄프 엘 듀스넵, 앙헬 에이 두아르테, 피터 에프 에번스, 프란시스코 디 엔 그랑하, 유리 에이 구신, 클리포드 티 허버트슨, 아녜피오코 우도 이니언, 루이스 엠 릴, 알레한드로 로페즈, 엘 장 클로드 마바야, 데클란 오 마두, 알렉산더 티 메스트리, 재러드 알 오캄포, 앤드류 엠 오리어던, 헤수스 에이 오르티스, 아브니르 브이 파자로, 시우 흥 폰, 로버트 시 리엔, 호르헤 루이스 호메우, 호르헤 엘 살디바르, 시로 슈메일, 알린 스파나우스, 모로나이 비 토간, 스티븐 엘 토론토, 리카르도 발라다레스.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르벵 앙비에르를 지역 칠십인에서 봉사하도록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를 표하신 분들은 소속 스테이크 회장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을 보여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적인 일식

삶의 장애물이 하늘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올 해 8월 21일, 보기 드문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사랑하는 우리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아흔 번째 생신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호주, 바누아투, 뉴질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성도들이 몬슨 회장님의 중요한 개인사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생신을 기쁘게 축하하는 모습을 보며 아주 감동했습니다. 그들이 이 위대한 분을 향해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다니 그것은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후기 성도들이 선지자와 유대감을 갖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큰 영감을 얻게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몬슨 회장님은 당신의 생일을 축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상적인 선물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몸이 편치 않거나 외로운 사람을 찾아 구체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제가 부탁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몬슨 회장님, 저희는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일식

같은 날 일어난 또 다른 보기 드문 사건은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이목을 사로잡은 개기 일식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미국 전역에 걸쳐 일식이 일어난 것은 99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² 일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개기 일식은 달이 지구와 태양 사이로 들어와서 태양 표면에서 나오는 빛을 거의 완전히 차단할 때 일어납니다.³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태양을 일반적인 자전거 바퀴 크기라고 한다면, 달은 겨우 작은 조약돌 크기나 될 것입니다.

온기와 빛, 생명의 원천을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작은 무언가로 완전히 가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태양은 달보다 400배 크지만,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보다 400배 멀기도 합니다.⁴ 이 상대적인 위치 때문에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은 같은 크기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똑바로 한 줄로 늘어서면 달이 태양을 모두 가린 듯이 보이는 것입니다.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에 있었던 제 친구와 가족들은 빛이 사라지고 어두워지자 별이 보이고 새들이 잠잠해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식이 일어나면 기온이 11도 이상 떨어질 수 있기에 공기도 차가워졌다고 합니다.⁵

그들은 일식이 야기하는 위험을 알고 있었기에 두렵고 놀라운 마음과 함께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일식을 관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구적인 안구 손상, 즉 “일식맹”을 예방하기 위해 다들 조심했습니다. 그들은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특수 필터 렌즈로 된 보안경을 착용한 덕분에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비유

아주 작은 달이 거대한 태양을 가려 빛과 온기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일상에서 직면하는 사소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서 나오는 크고 밝고 따뜻한 빛이 가로막혀 영적인 일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 비유를 더 자세히 설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지손가락처럼 작은 것도 눈에 가까이 갖다 대면 태양처럼 큰 것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눈을 멀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그것을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시야가 가려 하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⁶

의도적으로 시야를 막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삶에 영적인 일식을 불러올 사람은 분명 없을 것입니다. 영적인 일식이 일어나 영적인 면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일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몇 가지 언급하겠습니다.

보안경과 같은 복음: 복음의 관점 유지하기

일식을 관찰하다가 눈이 손상되거나 실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수 안경을 쓴다고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영적인 일식이 일어날 때, 보호와 완화 기능을 하는 영의 렌즈를 통해 보면 복음의 관점이 생기기 때문에 영적인 실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령을 조연자로 삼는다면, 하늘의 빛이 부분적으로 가려지더라도 복음의 보안경을 사용하여

바라봄으로써 영적인 일식의 타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의 보안경을 쓸 수 있을까요? 다음은 그중 몇 가지 예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보안경을 쓸 때 주님께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취하고, 매일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사탄이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할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사탄은 우리를 방해하고 세상적으로 유혹하여 우리의 선택의지를 앗아가려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 욥의 시대에도 영적인 일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⁷

형제 자매 여러분, 복음의 보안경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은 직면한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거나 언급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대적이 우리 앞에 놓아둔 덫과 해악을 깨닫지 못한 채 마냥 행복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저는 눈가리개를 쓰고 무지해지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렌즈를 통해 어려움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점은 모든 관련된 사실을 의미 있는 관계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⁸ 복음의 관점은 우리의 시야를 영원한 시각으로 넓혀 줍니다.

“복음의 보안경”을 사용하면 우선순위, 문제, 유혹, 심지어 실수까지도 더 강화된 관점과 초점, 시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 안경이 없을 때는 볼 수 없었던 강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것만이 삶에서 영적인 일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훌륭하고 긍정적인 일에 지나치게 전념하다 보면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되어 어둠이

드리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교육, 번영, 권력, 영향력, 야망, 심지어는 재능과 은사도 이런 위험이나 방해물에 속합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미덕도 지나치면 악덕이 될 수 있습니다. … 오히려 성취가 걸림돌이 되고, 야망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⁹

영적인 일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영적인 일식의 기폭제가 되는 예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셜 미디어

몇 달 전, 브리검 영 대학교의 여성 대회에서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¹⁰ 저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기술이 어떻게 “구주에 대한 지식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두루” 퍼지는 데 일조하는지 설명했습니다.¹¹ 이러한 기술에는 LDS.org나 Mormon.org 같은 교회의 웹사이트와 복음 자료실, 물론 채널, LDS 도구, 패밀리 트리 같은 모바일 앱,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핀터레스트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수백만의 ‘좋아요’와 ‘공유하기’, ‘조회수’, ‘리트윗’, ‘핀’을 양산하며, 가족, 친구, 동료와 복음을 나누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기술은 정말 장점이 많으며 적절하게 활용할 방법도 많지만, 지나치게 비중이 커지면 사람을 영적인 일식 상황에 빠트려 잠재적으로 복음의 빛과 온기를 차단할 위험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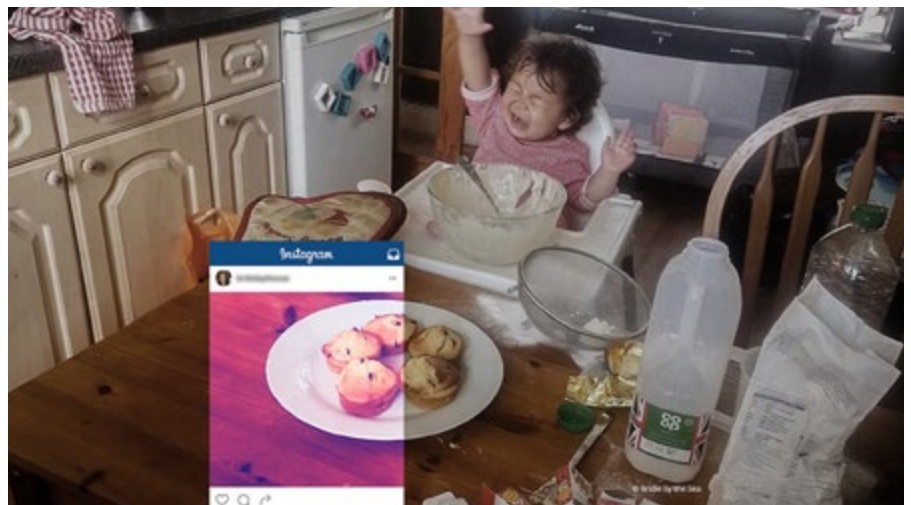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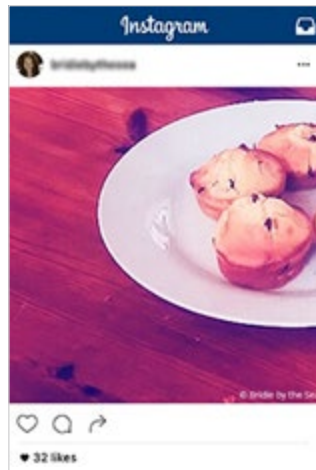
소셜 미디어나 모바일 앱을 사용하고 게임을 하다 보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거기에 들게 되고, 얼굴을 맞댄 직접적인 교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대화가 줄어들면 결혼 생활이 영향을 받게 되고, 소중한 영적 행위들이 밀려나며, 특히 십 대의 경우 사회성 발달이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상화된 현실과 상대적 열등감을 일으키는 비교를 소셜 미디어와

관련된 위험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사진에는 삶의 가장 좋은 모습이 담기기 마련입니다.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로 말입니다. 아름답게 장식된 실내와 멋진 휴양지, 미소를 지은 채 직접 찍은 자신의 얼굴, 정교한 요리 과정, 인형 같은 몸매 등이 담긴 사진을 우리는 모두 보아 왔습니다.

예컨대, 여러분은 누군가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서 이런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는 현실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일이 제대로 다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되는 사진은 실제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

잘 편집되고 완벽하게 가공되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타인의 삶과 평범하게만 보이는 나의 삶을 비교할 때, 우리는 기가 꺾이고 부러운 마음이 들며 실패한 기분마저 듭니다.

자신에 관해 수없이 많은 게시물을 올린 한 여성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진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면 행복이 다 무슨 소용이예요?”¹²

앞서 보니 엘 오스카슨 자매님이 일깨워 주셨듯, 삶의 성공은 ‘좋아요’ 개수에 달려 있지도 않고, 소셜 미디어의 ‘친구’나 팔로워 숫자에 달려 있지도 않습니다. 삶의 성공은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쌓고 그들의 삶에 빛을 더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이 미화된 사진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으로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될 때, 우리가 더 현실적이 되고, 웃을 줄 알며, 덜 낙담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비교는 분명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에도 자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로써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써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¹³

기술을 올바르게 탁월하게 사용할 방법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상적으로 꾸며

낸 가상의 자신을 드러낼 목적으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고, 영감을 주며,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 그 사람이 자신이 지닌 최고의 모습이 되게끔 독려할 목적으로 기술을 사용해 봅시다. 또한, 자라나는 세대에게 의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보여 주며, 그들에게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알리고 기술을 해롭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 소셜 미디어를 바라본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서 영적인 일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교만

이제 교만이라는 오래된 걸림돌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교만은 “주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인 겸손의 반대입니다.¹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주님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영예를 돌리기보다 자신이 그 영예를 차지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만은 경쟁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며 나는 남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흔히 분노와 미움을 낳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면 원한을 품게 되고, 용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교만은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인 겸손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겸손한 가운데 굳건해지고 교만한 가운데 와해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해 전에 한 대형 소매 업체의 임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경쟁 업체 한 곳이 자신이 다니던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를 비롯한 본사의 직원들은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로 몹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대 회사의 고위 경영진과 잘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그쪽에 자신을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물으며 만남도 추천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뭐라고 하는지 아는가? ‘온유한 자는

망하리라!’라고 한다네.”

그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농담이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그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중요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려는 말은 그것이 아닐세. 사실은 그 반대라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라는¹⁵ 말을 하는 것이라네.”

제가 교회와 직장에서 경험한 것에 따르면, 제가 알았던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겸손과 온유는 손에 낀 장갑처럼 긴밀한 관계입니다. “온유하며 마음이 겸손한 자가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함”을¹⁶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겸손의 미덕을 받아들여 교만이라는 영적인 일식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일식은 태양의 아름다움과 온기, 빛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물질인 달에 완전히 가려져 주위가 어둡고 차가워지는 참으로 놀라운 자연 현상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문제에 치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깃든 아름다움과 온기, 빛은 차단되고 차가운 어둠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일식이 일어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시력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보안경을 사용하여 영구적인 손상과 실명까지도 막을 수 있습니다.¹⁷ 영적인 일식에 노출된 사람 역시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관한 지식과 간증으로 이뤄진 “복음의 보안경”을 사용하면 영적으로 더 안전히 보호받고 명확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의 관점을 지닐 수 있게 됩니다.

삶에서 복음의 기쁨과 빛을 가로막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복음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고,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들로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대한 영원한 시야를 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리 하지 마십시오. 즉, 인생의 장애물이 하늘의 빛을 가리지 않게 하십시오.

간증

장애물이 앞을 가려 복음의 빛을 볼 수 없더라도, 빛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 온기와 진리, 밝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옵니다. 저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구주요 구속주로서 그분이 하신 역할에 대해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Thomas S. Monson, in Sarah Jane Weaver, “What Gift Does President Monson Want for His 90th Birthday?” *Deseret News*, Aug. 17, 2017, deseretnews.com.
2. Christina Zdanowicz and Judson Jones, “An Eclipse Will Cross the US for the First Time in 99 Years,” July 24, 2017, cnn.com 참조.
3. “Eclipse: Who? What? Where? When? and How?” eclipse2017.nasa.gov 참조.
4. EarthSky in Space, “Coincidence That Sun and Moon Seem the Same Size?” earthsky.org 참조.
5. Brian Lada, “5 Surprising Effects the Total Solar Eclipse Will Have besides Darkness,” accuweather.com 참조.
6. Neal A. Maxwell, *Of One Heart: The Glory of the City of Enoch* (1975), 19.
7. 욕기 5:14.
8. 멜린 에이치 옥스 장로가 2015년 2월 8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솔트레이크 보니빌 청년 독신 성인 스테이크 노변의 모임에서 전한 말씀.
9.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가장 중요한 것들”,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20쪽.
10. Gary E. Stevenson, “The Knowledge of a Savior” (Brigham Young University Women’s Conference, May 5, 2017) 참조.
11. 모사이아서 3:20.
12. Jade, “The Obsession of Creating a Picture-Perfect Life on Social Media.”
13. 고린도후서 10:12.
14.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20~121쪽 참조.
15. 마태복음 5:5; 제3니파이 12:5
16. 모로나이서 7:44.
17. “Solar Eclipse and Your Eyes,” preventblindness.org 참조.



스티븐 더블유 오언 형제
본부 청남 회장

회개는 언제나 긍정적입니다

회개의 길에 첫발을 들인 순간 우리는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을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고든 비 힙클리 회장이
대학 풋볼 경기에 오셨습니다.
은퇴를 앞둔 팀의 감독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경기장의 이름을 발표하러
오셨는데, 이 감독은 오랫동안 팀과
함께하며 사랑을 받았습니니다. 팀은 코치를
기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경기에서 이기고
싶어 했습니다. 힙클리 회장은 선수
탈의실을 방문하여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힙클리 회장의 말씀에 고무된 그 팀은
그날 그 시합에서 이겼을 뿐 아니라 그해를
우승으로 장식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에서 이기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¹ 스포츠로
보면 무패를 기록하는 시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회개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간증드립니다. 회개는 희망의
온전한 밝은 빛과 승리하는 인생으로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종종 우리는 회개를 비참하고 우울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행복의 계획이지 불행의 계획이
아닙니다! 회개는 고양시키고 고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죄입니다.² 회개는 우리의 탈출구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님의 말씀처럼,

“인생에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발전이나
개선도 없습니다. ...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따른 은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자유와 확신,
평안으로 이끕니다.”³ 여러분 모두에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회개는 언제나 긍정적인
것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란 단순히 스스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 이상의 것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우리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대한 믿음에서 옵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속주가 없다면, ... 회개는 쓸쓸한 행동의
수정에 불과합니다.”⁴ 우리는 자기 행동을
스스로 변화시키려 노력할 수 있지만, 오직
구주께서만 우리의 얼굴을 없애고 짐을
들어 올리며 우리가 확신과 힘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기쁨이란 멀쩡한 삶을 사는 기쁨
이상입니다. 그것은 용서의 기쁨, 다시
깨끗해지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하의 기쁨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는 순종을 결심하게 만듭니다. 침례 때 시작하여 매주 주님의 만찬인 성찬을 들며 새로이 하는 성약을 지키게 합니다. 성찬식에서 우리는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며]”⁵ 그러한 지속적인 영의 동반으로 인한 모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열매이며, 회개가 기쁜 이유입니다!

회개는 끈기를 요합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좋아합니다.⁶ 탕자가 “스스로 돌이[키는]” 결정적인 순간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돼지우리에 앉아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던]” 그는 마침내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만 낭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도 낭비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다시 받아줄 거라는 믿음으로—아들로서가 아니라면 종으로라도 말입니다—그는 반항적인 과거를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저는 종종 이 아들이 집을 향해 걷는 긴 여정을 생각했습니다. 때로 주저하며 마음 졸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찌 나를 받아 주실까?” 다시 돼지들에게로 몇 발짝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포기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그는 믿었으므로 계속 걸었고, 아버지도 믿었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회개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탕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하여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가는 길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일생 동안 날마다 내리는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회개를 “마음에 크나큰 변화”⁷를 요하는 무거운 죄와 연관짓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즉 “금단의 길로 떨어져 나가서는 잃어버린 바 [되]”⁸ 자들 뿐 아니라 “협착하고 좁은 길에 들어선 후에” 이제는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⁹ 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회개는 우리를 옳은 길로 되돌리고, 또 옳은 길에 머물도록 합니다. 회개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과, 늘 믿어 온 사람과, 다시 믿기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속죄가 죄인들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종적이고, 합당하며, ... [더 나아지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속죄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¹⁰

최근 선교사 훈련원에 갔을 때 한 무리의 신임 선교사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다가 그들의 눈 안에 있는 빛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밝고 행복하고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기쁨과 희망에 차 있는 거야.”

그들이 모두 과거에 심각한 범법을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들이 회개하는 방법을 알고, 회개가 긍정적인 것임을 배웠고, 이 기쁜 메시지를 세상과 나누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개의 기쁨을 알 때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이노스의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노스도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을 경험했고, 그의 “허물이 씻기워[진]” 후에는 즉시 다른 이들의 복리를 염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노스는 그의 남은 생애 동안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권유했고 “세상의 것 이상으로 이를 기뻐하[였습니다].”¹¹ 회개는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웃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 모든 이들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평생의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에게는 저활동 가정에서 자란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 또한 “스스로 돌이켜”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귀환하기 하루 전에 선교부 회장이 그를 불러서 접견하고 그의 간증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간증을 나누고 눈물을 흘리며 회장님과 포옹한 후에,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님, 그런 간증을 키워 준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기울이지 않는다면, 오늘 나에게 들려준 모든 것은 몇 달 안에 잊혀지거나 없었던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친구는 귀환한 후에도 매일 기도와 경전 읽기를 계속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되었기 때문에 그는 “바른 길에 있을”¹² 수 있었습니다.

전임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과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간증을 얻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그 간증을 지키고 강화해야 합니다. 모든 선교사가 아는 것처럼, 자전거 페달 밟기를 멈추면 넘어지게 됩니다. 간증을 키우는 노력을 멈춘다면 약해지게 됩니다. 같은 원리가 회개에도 적용됩니다. 회개는 일생에 한번 하는 일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모든 분들, 청소년과 청년들, 부모와 조부모, 그리고 증조부모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이 시작할 때입니다. 회개의 날을 미루지 마십시오.¹³

결정을 내렸다면, 그 길을 계속 가십시오. 우리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맞이하길 고대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종일” 그의 팔을 여러분을 향해 내뻗고 계십니다.¹⁴ 노력의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니파이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¹⁵

때로 그 여정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영생으로 가는 여행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속죄에 대한 희망을 품고 노력한다면 기쁜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길에 첫발을 들인 순간 우리는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을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임을 간증합니다. 그 권능은 우리의 발걸음을 안정되게 하고, 시야를 넓혀 주고, 한 발 한 발 계속 전진하려는

결의를 강하게 만들 것이며, 마침내 우리가 우리 하늘 본향에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였도다”¹⁶라는 말씀을 듣는 영광스러운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로마서 3:23.
2. 엘마서 41:10 참조.
3.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회개는 신성한 은사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11월호, 38쪽.
4. 데일 지 렌랜드,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22쪽.
5. 교리와 성약 20:77.
6. 누가복음 15:11~32 참조.
7. 엘마서 5:12.
8. 니파이전서 8:28.
9. 니파이후서 31:19, 20.
10.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필멸의 여정과 속죄”, *리아호나*, 2012년 4월호, 14쪽.
11. 이노스서 1장 참조.
12. 모로나이서 6:4.
13. 엘마서 13:27 참조.
14. 야곱서 6:4.
15. 니파이후서 31:20.
16. 마태복음 25:21.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원한 일상

우리가 누구인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생각할 때 겸손함을 지니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영국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이후로 영국식 유머를 즐겨 왔습니다. 영국식 유머는 자조적이며, 허식 없이 겸손한 태도로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여름은 비교적 짧고 번덕스러운데 한 작가는 절제하는 톤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여름을 사랑한다. 여름은 일 년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다.”¹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국 만화 캐릭터는 늦잠을 자고 일어난 뒤 애완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런! 너무 오래 자는 바람에 여름이 다 지나가 버렸네!”²

이 유머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의 삶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경전에는 우리의 소중한 필멸의 삶이 매우 짧은 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시간은 영국의 여름만큼이나 짧은 한순간인 것입니다.³

인간의 목적과 그 존재도 매우 겸손한 언어로 묘사될 때가 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요즘으로 치자면 소위 특혜받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값진 진주에 기록되어 있듯이, 주님께서서는 모세를 선지자로 준비시키시면서, 이 세상과, 현재 지음을 받으며 또 지음을 받았던 모든 사람의

자녀들을 보여 주셨습니다.⁴ 이에 모세는 다소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제 ... 나는 사람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아나니, 이 일은 내가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도다.”⁵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인간의 하찮음에 대한 일종의 반박으로 그분의 진정한 목적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यो, 나의 영광이니라.”⁶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분의 교리는 명확합니다. 물문경에는

“검거나 희거나, 맴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 모두 다 하나님께는 동일하”라고 나옵니다.⁷ 따라서, 우리는 모두 주님께 나오도록 권유받습니다.⁸

누군가 아버지의 계획에서 인종이나 성별, 국적, 언어 또는 경제 상황 등을 내세워 자신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주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⁹

불행히도, 우리는 오늘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겸손함과 책임감은 폄하되고 자만이나 교만이 활개 치는 모습을 봅니다. 사회는 기본적인 진리나 우리가 이 지상에 있는 이유를 대부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한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정한 겸손함은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¹⁰

경전에서 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겸손함, 의로움, 성품, 지성의 위대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같은 자질과 속성, 특히 겸손함과 같은 성품을 얻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¹¹

경전은 이생이 비교적 짧지만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경에서 엘마의 선교 동반자였던 앰올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생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참으로 보라 이 생의 날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수행할 날이니라.”¹² 제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랬듯이 우리는 이 인생을 잠으로 허비할 수 없습니다.

구주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보이신 겸손함과 희생의 모범은 역사상 가장 감명 깊은 사건입니다. 신회의 일원인 구주께서는 기꺼이 가장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오셔서 그분의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고 치유하셨으며, 마침내 그분의 속죄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겹세마네와 십자가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이신 이와 같은 사랑과 겸손의 행위를 일컬어 구주의 낮추어 오심이라고 합니다.¹³ 그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앞으로 창조하실 모든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해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은 존경과 경외심, 감사와 겸손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려면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엘마는 그 당시에 오늘날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였고, 만일 너희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꼈다면, 내가 묻고자 하노니, 너희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¹⁴ 엘마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만일 너희가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아 죽게 된다면, 너희는 … 너희가 충분히 겸손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¹⁵

저는 경전에서 엘마 이세가 국가의 수장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부분을 읽을 때마다 큰 감명을 받습니다.¹⁶ 엘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간증이 있었으며 주저 없이 그분들 앞에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엘마는 올바른 우선순위를 알고 있었고, 신분과 지위를 포기할 겸손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를 세울 때 겸손함을 지니는 것은 중요합니다. 교회 역사에는 이를

여실히 보여 주는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1837년 6월, 선지자 조셉은 커틀랜드 성전에서 사도인 히버 시 김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국으로 가게 하여 … 그 나라에 구원의 문을 열게 하라”는 영감을 받았습니다.¹⁷ 사도인 올슨 하이드와 몇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김볼 장로의 반응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그토록 막중한 임무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는 일이었다. …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지경이었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볼 장로는 절대적인 신앙과 헌신과 겸손함으로 그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때로 겸손함은 우리가 책임이 아니라고 느낄 때 부름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현재 맡은 부름보다 더 중요한 부름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느낄 때도 지금의 부름에 충실히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겸손한 지도자들은 중요한 것은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충실히 봉사하느냐라는 것을 말과 모범으로 입증했습니다.¹⁹ 때로 겸손함은 지도자나 다른 회원들이 우리를 홀대한다고 느껴질 때 그 상처받은 마음을 이겨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1837년 7월 23일, 선지자 조셉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토머스 비 마쉬 장로와 만났습니다. 마쉬 장로는 선지자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 두 사람을 영국으로 가라고 부름을 준 것에 확실히 언짢은 상태였습니다. 조셉과 마쉬 장로가 만났을 때 둘 사이의 언짢은 기분은 제쳐 두고, 선지자는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교리와 성약 112편입니다.²⁰이 계시에는 겸손함과 선교 사업에 관한 하늘의 놀라운 지시가 담겨 있습니다. 10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겸손하라. 그리하면 주 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너를 인도할 것이요, 네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리라.”²¹

이 계시가 주어지던 바로 그날, 김볼 장로와 하이드 장로, 그리고 존 굿슨

장로는 영국 프레스턴의 복스홀 예배당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었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²² 이 경륜의 시대에 선교사들이 복미를 벗어나 회복된 복음을 선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선교 활동을 통해 많은 이들이 곧바로 개종하여 침례받았으며 후에 이들은 교회의 충실한 회원으로 성장했습니다.²³

계시의 다음 부분은 오늘날 선교 사업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 내 이름으로 파송하는 자는 너희가 그들을 보내는 어느 나라에든지 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권능을 가지리니—그들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내 말에 거하며 내 영의 음성을 듣는 만큼, 그러하리라.”²⁴

이 기적같은 선교 사업을 가능케 했던 원동력은 바로 겸손함이었고, 주님께서는 이를 바탕으로 그분의 교회를 놀라운 방법으로 세우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포함하여 많은 회원들이 교육과 취직을 뒤로 미루고 그들의 시간을 바쳐 선교 사업을 나갑니다. 장년 회원들 중에는 어떤 직책의 부름을 받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생업을 접고 여러 희생을 감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개인적 문제도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²⁵ 교회에서의 봉사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부름받은 대로 겸손히 봉사합니다. 교회의 모든 부름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갖추도록 도우려면 매일 끊임없이 겸손함을 지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²⁶에 기꺼이 복종하겠다는 목표를 예전처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일부 다른 종파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²⁷



대대로 종교적인 덕목으로서의 겸손과, 겸허와 절제라는 시민 정신은 사회의 지배적인 통념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만, 자기 과시를 비롯하여 “술직함”이란 미명하에 참된 겸손함을 잃게 만드는 가치들을 날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날 행복의 도덕적 가치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현실적이고, 강하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어라.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아라. 당신의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²⁸

경전은 이와 다른 접근법을 옹호합니다. 경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더 겸손한 태도로 삶에 접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베냐민 왕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²⁹

육에 속한 사람을 칭송하고, 겸손, 친절, 사랑, 용서, 공손함 등과 반대되는 자질을 치켜세우는 용도로 술직함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 술직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 개인이 지닌 고유한 특성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인터넷은 겸손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노력에 걸림돌이 됩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예가 제 멧에 빠져 내키는 대로 사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고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사람들과, 분노에 찬 글들을 소셜 미디어에 쏟아내며 다른 이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은근한 자랑”입니다. 이 말은 “겸손하거나 자신을 낮추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랑하고 싶은 어떤 것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는 말이나 사진”이라고 정의됩니다.³⁰ 선지자들은 항상 교만과, 세상의 헛된 것에 중점을 두는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³¹

전반적으로 정중한 의사소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선택의지의 영원한 원리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선택들도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갈등과 분쟁은 종종 “상식적인 예절”을 위반합니다.³² 우리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엘마는 “너희 마음의 교만 중에 부풀어 오”르는 것과 “너희가 다른 이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차를 좇”아 걷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경계하라 하셨습니다.³³

저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책임감을 느끼는 여러 종교인에게서 진정으로 선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여럿은 구약의 선지자인 미가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³⁴

우리가 진정으로 겸손하면, 기도로 용서를 구하고 다른 이를 용서합니다. 엘마는 모사이야서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리라고 가르쳤습니다.³⁵ 반면, 주기도문³⁶에는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를 정죄 아래 들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³⁷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었기에 우리는 회개를 통해 죄를 용서받습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자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구주의 속죄를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양심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겸손하게 인간관계에 접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죄받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품은 양심은 우리 영혼을 갇아먹습니다.³⁸

모든 형태의 교만을 주의하시라는 당부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두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비웃으나 그들이 애통할 것이요, 나의 은혜가 온유한 자에게는 족하니”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약함을 주는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하려 함이요, 내 은혜가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진 모든 자에게는 족하니, 이는 만일 그들이 내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할 것임이니라.”³⁹

우리가 받은 수많은 축복과 하늘의 도움에 감사하는 것도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은 눈에 띄는 대단한 업적도 아니고 힘든 시련을 이겨 내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매일 매시간마다 우리가 주님께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조용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 분쟁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매일 진정한 겸손함을 지니도록 힘써 노력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영원한 일상을 어떻게 마주하고 대하는가 그것이 위대함의 시험이다.⁴⁰

저는 구주와 그분의 속죄와 매일 그분을 겸손하게 섬기는 것의 위대한 중요성에 관한 확고한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Kathy Lette, in “Town and Country Notebook,” ed. Victoria Marston, *Country Life*, June 7, 2017, 32; 강조체 추가.
2. Annie Tempest, “Tottering-by-Gently,” *Country Life*, Oct. 3, 2012, 128.
3. 시편 90:4 참조. 지상의 시간으로 짧은 길든, 우리의 삶은 영원한 관점에서는 매우 짧은 시간이다. “모두가 하나님께는 하루와 같고, 시간은 다만 사람에게 측정함이 되느니라.”(엘마서 40:8)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베드로후서 3:8)
4. 모세서 1:6-9 참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신성한 권세를 위임받아 말씀하시는 것이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필딩 스미스(2013), 47쪽, 각주 11번 참조)
5. 모세서 1:10.
6. 모세서 1:39.
7. 니파이후서 26:33; 또한 교리와 성약 1:34~35; 38:16; 공식선언—2 참조.
8. 교리와 성약 20:37은 이렇게 시작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그런 다음, 침례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또한 마태복음 11:28 참조.
9. 교리와 성약 20:37 참조.
10.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의식을 받지 않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성약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수행할 수 없는 어둠의 밤이” 온다는 것을 안다.(엘마서 24:33)
11. 제3니파이 27:27 참조.
12. 엘마서 34:32.
13. 니파이전서 11:26~33; 니파이후서 9:53; 야콥서 4:7; 교리와 성약 122:8 참조.
14. 엘마서 5:26.
15. 엘마서 5:27.
16. 엘마서 4:19 참조.
17. Joseph Smith, in Heber C. Kimball, “History of

Heber Chase Kimball by His Own Dictation,” ca. 1842–1856, Heber C. Kimball Papers, 54, Church History Library;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an Apostle: the Father and Founder of the British Mission* (1888), 116.

18. Heber C. Kimball, “History of Heber Chase Kimball by His Own Dictation,” 54; see also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16.
19. 제이 르우벤 클라크 주니어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을 섬길 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어디서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봉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우리는 합당하게 부름받은 직책을 받아들이며, 직책을 구하지도 거절하지도 않습니다.”(in Conference Report, Apr. 1951, 154)
20. *The Joseph Smith Papers, Documents, Volume 5: October 1835 – January 1838*, ed. Brent M. Rogers and others (2017), 412~417 참조. 빌리트 킴볼은 남편인 허버 시 킴볼에게 쓴 편지에서 그녀가 “조셉의 말을 그대로 받아적은 마시 장로의 책에 있는 계시를 편지에서 옮겨 적었다고 말했다.(Vilate Murray Kimball to Heber C. Kimball, Sept. 6, 1837, Heber C. Kimball, Correspondence, Church History Library)
21. 교리와 성약 112:10; 강조체 추가.
22.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36~137 참조.
23. Orson F. Whitney, *Life of Heber C. Kimball*, 149 참조.
24. 교리와 성약 112:21~22; 강조체 추가.
25. “부름에서 해입해 주도록 요청하지 않고 있던 중에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에게 부름을 주신 분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결정을 맡기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주 섬기라”, 성도의 벗, 1월호 1998, 8쪽).
2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 120쪽, 제 6장, “겸손” 참조.
27. Charles J. Chaput, *Strangers in a Strange Land* (2017), 14~15; Rod Dreher, *The Benedict Option* (2017).
28. Carl Cederstrom, “The Dangers of Happiness,” *New York Times*, July 19, 2015, SR8.
29. 모사이야서 3:19.
30. *English Oxford Living Dictionaries*, “humblebrag,” en.oxforddictionaries.com/definition/humblebrag.
31. 어떤 면에서 이 부분은 엘마가 “그들의 근면함으로 얻은 바, ... 온갖 귀한 것들로 인하여 ... 그들이 그 눈의 교만 중에 자고하게 되었나니”(엘마서 4:6)라고 묘사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은근한 자랑”도 결국 자랑이다.
32. David Brooks, “Finding a Way to Roll Back Fanaticism,” *New York Times*, Aug. 15, 2017, A23.
33. 엘마서 5:53, 54.
34. 미가 6:8.
35. 모사이야서 26:30 참조.
36. 마태복음 6:12, 15 참조.
37. 모사이야서 26:31 참조.
38.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원한을 품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그것이 적을 죽일 것이라고 바라는 것과 같다”(in Jessica Durando, “15 of Nelson Mandela’s Best Quotes,” *USA Today*, Dec. 5, 2013, usatoday.com)
39. 이터서 12:26, 27; 강조체 추가.
40. Edmund Vance Cooke, “The Eternal Everyday,” *Impertinent Poems* (1907), 21.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신성한 계획에 따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세세한 부분에도 역사하십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이 영감을 주는 전 세계적인 연차 대회를 맞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힘과 영을 느끼니, 사도 베드로가 한 다음 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¹

엘마가 앰몬아이하 성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 했던 말은 전혀 다릅니다. 엘마는 백성들의 사악함 때문에 그 성을 떠났습니다. 곧 천사가 엘마에게 나타나 그에게 “앰몬아이하 성으로 돌아가 그 성 백성에게 다시 전파”하라고 말했습니다.²

엘마는 “속히” 돌아가 “다른 길로 ... 성에” 들어갔습니다.³

“그가 성에 들어갈 새 그가 주린지라, 어떤 사람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낮은 종에게 먹을 것을 줌 주시겠느냐 하며,

그러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니파이인이요,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인 줄 아노니, 이는 당신이, 천사가 시현 속에서 말하기를 네가 영접하라 한 그 사람임이니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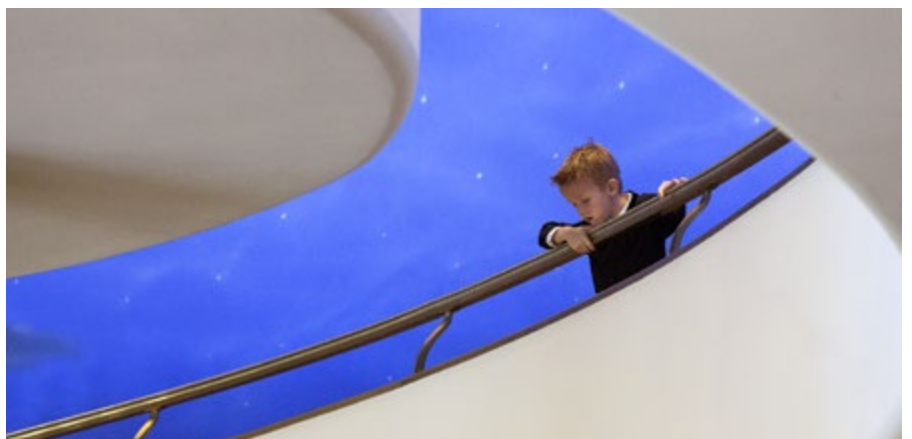
이 사람은 앰올레크였습니다.

자, 엘마가 그저 우연히 앰올레크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엘마가 그의 선교사 동반자가 될 이 충실한 사람과 만나도록 그 다른 길로 성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언젠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우정의 원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과의 기회를 완전히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필멸의 인간이기에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연의 일치라는 말로 설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우연의 일치’를 빌려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계획’에 따라 일하십니다.”⁵

우리 인생은 마치 장기판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영의 속삭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움직이십니다.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 미친 그분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늘의 개입은 니파이가 라반에게서 판을 가져오려고 돌아가던 순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알지 못한 채 영에 의해 이끌렸”습니다.⁶ 얼마 지나지 않아 라반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그 앞에 나타났고 니파이는 라반을 죽인 후, 판을 취하여 형들에게로 달아났습니다. 니파이가 운이 좋아 우연히 라반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신성한 계획”에 따른 것이었을까요?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더욱 발전하도록 할 중대한 사건들이 복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빛으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도 있고 엘마와 앰올레크를, 또 니파이와 라반을 정확히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 있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켜 줄 여러 사건과 만남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조셉 비 위스린 장로님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자신에게 하신 이러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것을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흔히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느 날 우리의 삶에서 우연으로 보였던 것들을 돌아볼 때,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⁷

우리의 선행은 대부분 몇 사람에게만 알려집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늘에 기록되며, 언젠가 우리는 자신이 전심을 다해 의의 일에 헌신했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복의 계획은 어떠한 시련이나 재앙에도 무산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성한 계획”에 따라, “아침에는 기쁨이 [옴]” 것입니다.⁸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세상에 왔느니라.”⁹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제 인생 여정의 경험을 통해, 저는 주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하도록 장기관에서 우리를 움직이실 것임을 압니다. 우연한 기회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모든 머리의 머리카락도 헤아릴 수 있는¹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조차도 아버지께서 모르신 채로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¹¹ 주님께서서는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에 역사하시며, 그러한 사건과 기회들은 우리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고양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다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시작부터 끝을 아느니라. 그러므로, 내 손이 네 위에 있으리라.”¹²

주님께서서는 저를 의로운 부모님이 계신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 부모님은 아주 평범한 분들이셨습니다. 헌신적인 제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였고, 천사 같은 제 어머니는 가정 주부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사랑스런 아내 멜라니를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한 사업가에게 제 취업의 기회를 주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 사업가와 저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가 선교 임지에서 봉사하도록 젊은 선교사로 그리고 선교부 회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저를 칠십인 정원으로 부르셨고, 지금은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뒤돌아보니 말을 움직이듯 그런 수를 둔 것은 제가 조율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요한 수를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단다”라고 하시며 여러분 가까이로 계심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주는 그런 기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거둬 행동을 취하셨던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때를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선택에 신뢰를 보여 주신 순간으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나 자신의 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분께서 역사하시어 여러분을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그분의 역사하심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때로 우리는 삶에서 계획을 변경할 때 실수를 했다고 여깁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변경이 “주의 심부름을 하는”¹³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몇 달 전에 손녀가 청소년 그룹에 참가해 교회의 여러 유적지를 돌아보는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일정으로 일행은 어떤 지역을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은 바로 손녀의 오빠이자 제 손자가 선교사로 봉사 중인 곳이었습니다. 손녀는 선교 사업 중인 오빠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봉사하던 마을로 버스가 들어갔을 때 두 선교사가 길을 걸어내려 오는 것이 보였고, 그중 한 사람이 오빠였습니다.

버스 안은 기대감이 가득했고 청소년들은 버스 운전사에게 제 손녀가 오빠에게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차를 세워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눈물과 따뜻한 말을 나눈 뒤 그는 선교사 의무를 다하기 위해 다시 갈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제 손자는 약속 장소를 떠나 차로 가던 길이었고, 그 길에 있었던 시간은 불과 5분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음에 명확한 의도를 품고서 우리를 특정한 상황에 두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제 삶에서 그렇게 해 오셨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 손주들의 삶에서 그리하셨듯 말입니다.

우리는 제각기 소중하며 주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각자에게 맞는 독특한 방식으로 돌보시고, 속삭이시며, 보살피십니다. 그분은 필멸의 인간보다 무한히 현명하시고 강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우리의 승리와 우리 가슴 속의 의로운 소망을 아십니다.

약 1년 전에 템플 스퀘어를 가로질러 걷고 있는데 한 자매 선교사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를 기억하세요? 저는 플로리다에서 왔어요.” 그녀는 자신이 아이다 칠란 자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만났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그 지역 스테이크 회장의 제안으로 그 가족을 방문했었는데, 방문하는 동안 우리가 그곳에 간 목적이 침례받지 않은 딸 아이들을 위해서였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후 1년 이상의 가르침과 우정 증진 덕에 아이다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템플 스퀘어에서의 만남 후 아이다는 제게 편지를 보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를 아시며 계속해서 우리를 서로의 인생길에서 만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라는 것을 제 온 마음으로 압니다. 제 선교사 중의 한 분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년 전 저를 찾아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¹⁴ 아이다는 또 다른 편지에서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쓰면서, 삶에서 일어난 “신성한 우연의 일치”들이 어떻게 침례와 확인, 템플 스퀘어에서의 선교 사업, 그리고 최근의 성전 결혼으로 이어졌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¹⁵

스테이크 회장이 우리를 칠란 가족의 집으로 이끄신 것과 후에 그녀와 제가 템플 스퀘어에서 재회한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이다의 간증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임을 증거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주님의 영을 느끼고 첫 번째 속삭임대로 행동할 때 그분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¹⁶

우리는 모두 삶에서 비슷한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듯한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고, 알던 사람과의 친분을 새롭게 하기도 하며, 낯선 사람과 공통점을 찾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진실로 형제와 자매임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실제로 조셉 스미스가 “그리스도의 대업”이라고 불렀던 것과¹⁷ 같은 대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성한 계획”에서 우리의 선택의지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는 구주와 그분의 택함받은 지도자들을 따르거나 또는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경에는 니파이인들이 주님에게서 돌아섰을 때의 패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물론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또 그들은 … 주의 영은 더 이상 자신들을 지켜 주지 아니함을 알았더라. 참으로 주의 영은 그들에게서 물러갔나니 주의 영은 거룩하지 아니한 성전에는 거하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 기이하고 비길 데 없는 권능으로 그들을 지켜 주시기를 그치셨으니, 이는 그들이 믿지 않음과 참담한 간악함의 상태에 빠졌음이라.”¹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모두 우리의 강인함과 충실함과 지식의 결과물인 것만은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주님께서 멈추셨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삶에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남쪽이나 북쪽이나 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성한 손길로



사울의 삶의 방향이 수정되었습니다. 후에 바울로 알려졌을 때, 그가 사도로서 배푼 성역은 주님께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셨음을 보여 줍니다. 이것은 분명 그가 사울이었을 때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¹⁹

우리가 의롭고, 기꺼이 하려 하고, 능력을 갖춘다면, 합당해지고 자격을 갖추고자 힘써 노력한다면,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신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와 함께 일하심을 보게 될 때, 용기를 얻고 그러한 인도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²⁰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은 당신의 자녀 모두에 관해, 특히 여러분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신성한 계획”에

따라 중요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세세한 부분에도 역사하십니다. 잠언에 나오듯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 그리하면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²¹ 그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탱하시며,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주실 것임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9:33.
2. 엘마서 8:16.
3. 엘마서 8:18.
4. 엘마서 8:19~20.
5. Neal A. Maxwell, “Brim with Joy”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Jan. 23, 1996), speeches.byu.edu.
6. 니파이전서 4:6.
7. 조셉 비 워스린, “인생 여정에서 배운 교훈”, 리야호라, 2001년 5월호, 38쪽; 1999년 11월 7일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열린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워스린 장로가 하신 말씀에서 발췌.
8. 시편 30:5.
9. 제3니파이 27:13.
10. 누가복음 12:7 참조.
11. 마태복음 10:29 참조.
12. 아브라함서 2:8.
13. 교리와 성약 64:29.
14. 아이다 칠란의 편지, 2017년 4월 20일.
15. 아이다 칠란의 편지, 2017년 5월 30일.
16. 교리와 성약 84:88.
1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349~357쪽 참조.
18. 힐라맨서 4:24~25.
19. 로마서 8:28.
20. 모세서 1:39.
21. 잠언 3:5~6.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과부의 마음

과부의 마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축복에 진정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성인이 된 후로 삶의 대부분을 태평양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서 봉사하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헌신적인 성도들의 신앙과 사랑, 놀라운 희생은 제 마음을 영감과 감사, 기쁨으로 채워 줍니다. 그분들의 삶도 여러분과 비슷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곳 성도들은 구주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아주 비슷했습니다. “예수께서 ...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자신이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¹

두 렵돈이 적은 헌금이기는 했지만, 그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주었기에 그 헌금은 주님 보시기에 최고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구주께서는 그 과부를 충분히 아셨습니다. 헌금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과 신앙은 깊고 고결했으며, 그녀는 그 헌금을

바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태평양 제도의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태평양의 한 섬에 있는 작은 마을에 사는 한 중년 부부는 그들이 배운 토론이 참된지 주님께 진지하게 간구해 보라는 선교사들의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참되다는 응답을 받아 회복된 복음을 받아들일 경우, 어떤 결심을 해야 하는지, 또 그 결심으로 인해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참됨과 물몬경의 진실됨을 알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확고한 응답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렇단다! 그것은 참되느니라!”

이런 응답을 받은 두 사람은 침례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 선택에는 개인적인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그 결정과 침례로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사회적 지위도 잃었으며, 중요한 친구 관계도 끊어지고, 가족의 지지와 사랑, 존경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교회까지 걸어서 옵니다. 오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걷고 있는 친구나 이웃들과 어색한 눈빛을 교환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 훌륭한 형제는 교회에 들어오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교회가 참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택에 후회는 없습니다.”

새로 개종한 이 두 성도는 참으로 과부의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 과부처럼 자신들도 가진 것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면서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넣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에 믿는 마음과 견디는 신앙의 결과로 그들의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교회 회원들이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보살펴 주었으며, 그들은 교회 부름에서 봉사하며 개인적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바친 후 가장 기쁜 날이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된 것입니다. 엘마가 이끌었던 개종자들에게 주께서 하신 것처럼,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셨고], 그들[은]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했습니다.² 이 훌륭한 부부의 모범에 과부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과부의 마음이 정말 잘 나타나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모아에서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마을 평의회와 접촉해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 마을의 족장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주 오랫동안 선교사의 출입이 금지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대화를 나누었던 때는 대족장이 교회에 마을 문을 열고 복음과 교리를 배우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선교사가 가르쳐도 된다고 승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런 기적적인 반전이 생기자 저는 어떤 일이 있었길래 대족장이 마음을 바꾸어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묻자, 저와 이야기하던 족장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한동안은 어둠 속에서 살 수 있겠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기를 열망하는 때가 오게 마련이지요.”

마을 문을 여는 과정에서 대족장은 과부의 마음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진리의 빛과 따스함이 나타날 때 부드러워지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지도자는 기꺼이 오랜 세월의 전통을 포기하고, 큰 반대를 감수하며, 흔들림 없이 견디고자 했습니다. 이 족장은 전통, 문화, 개인적인 권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의 복지와 행복에 초점을 맞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그런 걱정을 떨쳐냈으며, 몬슨 회장님의 다음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구주의 모범을 따른다면, ... 우리는 타인의 삶에 빛이 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³

끝으로, 태평양 제도 성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경험을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 경험은 제 영혼에 깊이 뿌리내려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저는 미국령 사모아에 있는 신생 와드의 감독단에서 젊은 보좌로 봉사했습니다. 그 와드에는 근근히 살아가는 농부, 통조림 공장 노동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으로 구성된 99명의 회원이 있었습니다. 1977년에 제일회장단이 사모아에 성전이 건축될 것임을 발표했을 때, 우리는 모두 기쁨과 감사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미국령 사모아에서 성전에 가려면 하와이나 뉴질랜드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충실한 교회 회원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값비싼 여행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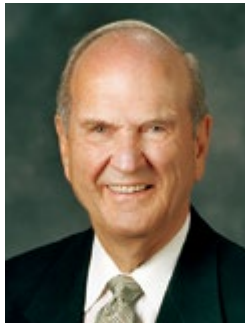
그러는 동안 성전 건축을 보조하기 위해 건축 기금을 내라는 권고가 회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취지에 따라, 우리 감독단은 와드 회원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족들이 헌금을 모아서 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이후에 감독단은 개별 장소에서 그 헌금 봉투들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와드 회원들이 보여 준 신앙과 관대함에 겸허해지고 감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가족과 그들의 처지를 알고 있던 저는 깊은 경외심과 존경심, 그리고

겸손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것은 사모아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약속된 축복에 대한 기쁨으로 넘쳐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기꺼이 바친, 현 시대의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계속하여 어려운 상황에 남기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들의 헌금에는 과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헌금을 바친 이들은 모두 이를 기쁘게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과부의 마음은 그들이 신앙의 눈으로 그들의 가족, 사모아와 미국령 사모아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예비된 최상의 축복을 볼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신성한 헌금, 즉 과부의 헌금을 아시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두 렘돈을 바친 과부의 마음은 희생을 감내하면서도, 역경과 박해, 거부를 견디면서도, 그리고 온갖 종류의 짐을 짊어지면서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마음입니다. 과부의 마음은 진리의 빛을 감지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마음이며, 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 어떤 것이라도 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또한, 그 마음은 다른 사람도 같은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며 같은 양의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과부의 마음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려는 마음으로 정의됩니다.

전 세계에 계신 성도 여러분, 과부의 마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일을 행합시다.



러셀 엠 넬슨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그러면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채워질 것이며 우리는 진정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의 짐을 능히 짊어지고, 필요하다면 희생을 감내하며, 기꺼이 행하고 내어주겠다는 의지와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과부의 마음은 구주께서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이시기에⁴ 우리는 “쓴 잔”을⁵ 마시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결점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약점과 결점 때문에,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못 박하신 손을 계속 내미십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분의 복음 빛으로 나아오려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그분을 통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자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위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사랑하고 그분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지합니다. 몰몬경은 세상에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증거이며, 모든 사람이 그 책을 읽고 그 안에 담긴 여러분을 위한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그분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은 평화와 사랑과 빛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시며 구속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 그분의 무한한 속죄의 기적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12:41~44.
2. 모사이야서 24:15.
3. 토마스 에스 몬슨, “본이 되고 빛이 되십시오”, 리야호나, 2015년 11월호, 86쪽.
4. 이사야 53:3.
5. 제3니파이 11:11.

몰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몰몬경이 가장 기적적이고 훌륭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19 86년에 가나 아크라에 있는 한 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해 달라는 초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프리카 부족장 한 분을 포함하여 고위 관리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강연에 앞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족장은 자신의 통역사를 거쳐서만 제게 이야기하고, 그 통역사가 제게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제가 통역사에게 대답하고, 그 통역사가 제 대답을 그 부족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제 강연이 끝난 후 그 부족장이 제게 곧장 왔는데, 이번에는 통역사가 없이 왔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완벽한 영어, 덧붙이자면 영국식 표준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부족장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성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족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무얼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고

저는 “그분에 관해 이미 알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여쭙봐도 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에서 그분이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대 미대륙 백성들에게 베푸신 성역에 대해 아는지 물었고,

제 예상대로 그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후 고대 미대륙 백성들에게 가서서 그분의 복음을 가르치셨으며, 그분의 교회를 조직하셨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 중에서 행하신 그분의 성역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기록이 우리가 몰몬경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며 성과와 짝을 이루는 경전입니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쯤에서 그 부족장은 굉장한 흥미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저와 동행한 선교부 회장님에게 혹시 여분의 몰몬경을 갖고

계시는지 물었고, 그분은 가방에서 물문경을 한 권 꺼내셨습니다.

저는 제3니파이 11장을 펴서 구주께서 니파이인들에게 전하신 설교를 부족장과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 후 물문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제 마음에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다이아몬드나 루비를 줄 수도 있었겠지만, 제게는 그 어떤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더 알게 된 것보다 더 소중하지 않습니다.”

제3니파이에서 구주의 말씀이 주는 힘을 경험한 후, 그 부족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개종하여 교회에 속하게 된다면, 제 모든 부족민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부족장님,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개종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구주께서도 니파이인들을 한 번에 한 명씩 보살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증거와 간증은 각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¹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문경은 얼마나 소중한니까? 누군가가 다이아몬드나 루비 또는 물문경을 주겠다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더 큰 가치가 있습니까?

2017년 4월 연차 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물문경을



201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물문경을 매일 읽고 숙고하라고 권고했다. 벨슨 회장이 그 권고에 따라 물문경을 공부하고 있다.

공부하고 숙고해 보도록” 간청하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² 많은 분이 우리 선지자의 간청에 응하셨습니다.

저도, 여덟 살짜리 라일리도 누군가 이 사진을 찍는다는 걸 몰랐다는 걸 분명히 하겠습니다. 라일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적힌 책갈피를 도움 삼아 물문경을 읽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 관해 더 알고자 노력할 때 강력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그 어디에서도 물문경보다 더 분명하고 힘있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없습니다.

6개월 전 몬슨 회장의 권유 이후로 저는 그분의 조언을 따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 중에서는 저는 물문경이란 무엇인가, 물문경이 확인해 주는 것, 물문경이 부인하는 것, 물문경이 성취한 것, 물문경이 명확히 한 것, 물문경이 밝힌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작성해 왔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물문경을 보는 일은 통찰과 영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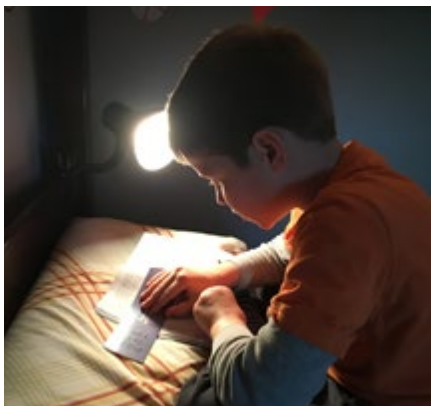
얻는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지난 6개월 동안 저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형제들, 칠레의 선교사들, 아르헨티나에 모인 선교부 회장 및 아내들을 포함하여 여러 그룹의 사람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해 보시라고 권고할 세 가지 질문을 숙고해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물문경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둘째, 물문경이 없다면 여러분이 모르고 지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셋째, 물문경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룹마다 그분들의 마음에서 우리나라 열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문경이 없다면 저는 많은 것에 대해 상충하는 가르침과 의견으로 혼란을 겪었을 겁니다. 그건 교회를 찾기 전의 제 모습과 같을 겁니다. 그때 저는 지식과 신앙, 희망을 찾고 있었지요.”



라일리가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적힌 책갈피를 도움 삼아 물문경을 읽고 있다.



어떤 분은 “제 삶에서 성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라고 답했고, “제가 이곳 지구에 존재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라고 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응답자는 “이생 이후에 계속 발전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경이 있기에 저는 죽음 이후의 삶이 실재함을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마지막 답변을 들으며 저는 수십 년 전 제가 신참 외과 레지던트였던 시기를 생각했습니다. 외과 의사의 쉽지 않은 책임 중 하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이가 숨을 거뒀다고 알리는 일입니다. 제가 일하던 한 병원에는 벽에 완충재를 댄 특별한 방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가족들에게 비보를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폭신한 벽에 머리를 찡으면서 슬픔을 표출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죽음이란 뒤에 남은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불멸의 존재에게 죽음은 필수라는 점을 얼마나 알려 드리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죽음으로 우리는 다음 세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³

어떤 응답자는 제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경을 읽기 전까지 제게 삶이란 없었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교회에

나갔었지만, 물론경이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과 실제로 대화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경이 없었다면 저는 구주께서 저의 죄를 위해 고통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 고통과 슬픔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⁴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이도 있었습니다.

물론경의 진리를 정기적으로 깊이 연구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선교사로 봉사 중인 제 손녀 올리비아 벨슨 자매는 구도자에게 물론경을 매일 읽는다면 대학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벨슨 회장의 손녀 올리비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구도자는 그렇게 했고,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친애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물론경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임을 간증합니다. 거기에는 인생의 가장 흥미진진한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경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가르칩니다.⁵ 그것은 수 세기의 시간과 수많은 성경 번역으로 인해 사라진 “명백하고 소중한”⁶ 여러 진리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밝혀 줍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찾을 수 있는 가장 온전하고도 권위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도 알게 됩니다. 물론경에서 우리는 분산된 이스라엘의 집합에 대해 배우고 우리가 왜 이 지상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이 진리와 다른 진리들을 더욱 힘 있고 설득력 있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닌 모든 권능이 물론경에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물론경은 구주의 가르침을 밝혀 주고, 대적의 전술을 알려 줍니다.⁷ 물론경은 어린아이에게 침례를 주는 것과 같은 잘못된 종교적 관행을 없앨 참된 교리를 가르칩니다.⁸ 또한 영생과 “끝이 없는 행복”⁹을 향한 잠재력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알려 줍니다. 물론경은 간악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으며¹⁰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에는 개인의 선함만이 요구 된다¹¹는 거짓 믿음을 설파합니다. 그것은 계시가 성경 시대에서 끝났으며 현재 하늘은 닫혀 있다는 잘못된 개념을 영원히 없앴습니다.

물론경을 생각할 때면 힘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물론경의 진리에는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며, 회복하고, 구제하고, 강화하며, 위안을 주고, 복돋을 힘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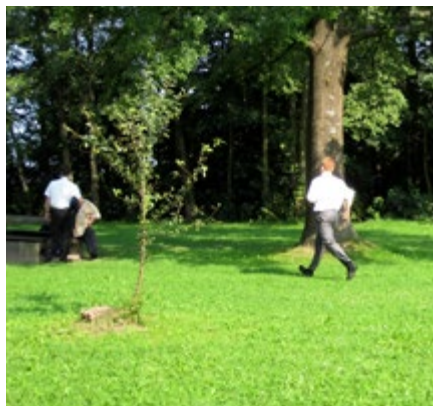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물론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매일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공부한 것을 깊이 생각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얻고 인생에서 인도받을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매일 물몬경에 몰두한다면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 특히 외설물이라는 강력한 역병과 정신을 마비시키는 다른 중독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누구든 “저는 물몬경이 참됨을 압니다.”라고 말하는 걸 들을 때마다 저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는 물몬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느껴야 합니다.¹² 물몬경 없이는 절대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깊이 느껴야 합니다. 저는 브리검 영 회장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약간 바꾸어 말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와 같은 음성이 사람들에게 [물몬경의 진리와 권능]에 대해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¹³

유럽에서 봉사하던 한 젊은 선교사는 물몬경의 참됨을 깊이 느껴 그 신성한 기록을 들고 공원에서 동반자와 함께 찾은 한 남성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이 선교사처럼 되어야 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바로 그 선지자였고 선지자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이 성스러운 책을 번역하신 분이었습니다. 이 책은 세상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도울 바로 그 책입니다.



한 젊은 선교사가 공원에 있던 사람에게 물몬경을 전하기 위해 뛰어 가고 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며 위대한 모범이시고 아버지께 우리의 변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약속된 필멸의 메시아시며, 복천년의 메시아가 되실 것입니다. 저는 제 온 영혼을 다해 물몬경이 가장 기적적이고 훌륭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오늘날 지상에 계신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압니다. 저는 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넬슨 회장이 작성한 물몬경 목록

물몬경이란 무엇인가: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다. 물몬경의 주요 저자인 니파이, 야곱, 물몬, 모로나이, 그리고 번역자인 조셉 스미스는 모두 주님을 직접 보았다.
-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성역에 관한 기록이다.
- 물몬경은 참되며 주께서 직접 그것을 확인해 주셨다.

물몬경이 확인해 주는 것:

-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개별적인 존재라는 점.
- 아담의 타락과 이브의 지혜는 인간이 기쁨을 가지는 데 필요했다는 점.

물몬경이 부인하는 것:

- 계시는 성경 시대와 함께 끝났다.
- 어린아이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
- 간악함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
- 승영을 얻는 것은 개인적인 선택만으로 충분하다. (의식과 성약이 필요함)
- 아담의 타락은 인류에게 “원죄”라는 오점을 남겼다.

물몬경이 성취한 성경상의 예언:

- “다른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 말소리가 “티끌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 “유다의 막대기”와 “요셉의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다.
- 흩어진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에 모일 것이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 요셉 지파에 상속된 땅은 미대륙이었다.

물몬경이 명확히 한 것:

- 전세에서의 우리 존재.
- 사망. 사망은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 필수 요소이다.
- 사후 세계가 존재하며 이는 낙원에서 시작된다.
- 육체는 부활하면서 영과 재결합하여 불멸의 영혼이 된다.
- 주님은 우리의 행위와 마음의 소망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
- 침례, 성찬, 성신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의식을 올바르게 집행하는 방법.
-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 부활.
- 천사의 중요한 역할.
- 신권의 영원한 본질.
- 인간의 행동이 어떻게 갈보다는 말씀의 권능에 더 영향을 받는가.

물몬경이 밝혀 준, 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전부터 행해졌다.
- 고대 미대륙 사람들은 성전을 짓고 사용했다.
- 이스라엘의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은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예견했다.
- 니파이(주전 600~592년)는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식민지화를 내다보았다.
- 성경에서 명백하고 소중한 부분이 손실되었다.
-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주어진다.
- 개인의 선택 의지의 중요성과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 필요성.
- “비밀 결사”에 대한 경고.

주

1. 제3니파이 17:9~12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물몬경의 권능”,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7쪽.
3. 앨머서 42:8 참조.
4. 앨머서 7:11~12 참조.
5. 예를 들어, 니파이후서 31:2~21 참조.
6. 니파이전서 13:29~33 참조.
7. 니파이후서 26~33장 참조.
8. 모로나이서 8:11~15 참조.
9. 모사이야서 2:41; 또한 앨머서 28:12 참조.
10. 앨머서 41:10~11 참조.
11. 특별하고도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 또한 필요하다.
12. 앨머서 13:27 참조.
1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299쪽 참조. 그는 특히 성전과 가족 역사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데일 지 렌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신권,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신권이 이 속죄 권능을 전달해 줍니다.

지 금부터 발사대에 막 올려져서 발사 준비를 마친 로켓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로켓이 점화되고 있습니다. 연료가 적절히 통제된 상태로 연소되면 뜨거운 가스를 뿜어내며, 이는 로켓을 우주까지 나아가게 하는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이번에는 그 로켓의 맨 위에 탑재된 장비나 화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켓에 탑재된 장비는 그것이 목표로 하는 곳에 도달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만 그 값어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고가의 통신 위성 장비라도 창고에 처박혀 있다면 별 가치가 없다는 사실은 로켓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로켓이 하는 일은 단지 탑재된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는 우리가 지닌 신권을 로켓에,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로켓이 운반하는 화물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 희생을 치르심으로써 모든 인류를 구속할 권능과 권세를 지녔습니다. 그분의 속죄 권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분은

당신의 권능과 권세의 일부를 지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된 권능과 권세를 신권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해 신권 소유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권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구주의 속죄 권능에서 오는 축복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혼자 힘만으로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멸의 기간 동안, 우리는 예외없이 실수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얼룩지게 되며 하나님의 면전에 거하기 위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자격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구주의 속죄 권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우리가 부활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영생은 그분을 통해서 옵니다.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기회야말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화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¹ 신권이 이 속죄 권능을 전달해 줍니다. 신권이 로켓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구원에 필요한 의식과 성약들은 오직 신권 권세를





통해서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신권이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신권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저 주목을 끌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신권이 일요일 공과반이나 봉사 활동 그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기를 바라시며 속죄 권능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로켓은 사소한 기능 이상만으로도 그 임무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밀폐되지 않거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부품들은 로켓의 오작동을 초래합니다. 신권에 이런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신권 수여와 사용 모두를 보호하십니다.² 신권 수여는 인간에게 주어진 회장단의 권한, 즉 신권 열쇠를 통해 보호됩니다.³ 이와 마찬가지로 신권 사용 역시 신권 열쇠뿐만 아니라 신권 소유자가 맺는 성약을 통해서도 보호됩니다. 결과적으로 신권의 사용은 신권 열쇠와 성약에 의해 통제됩니다. 신권 책임은 각 개인에게 주어지며 신권을 받은 개인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⁴ 자치권의 불분명한 근원이 아닙니다.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모두 성약을 통해 부여됩니다.⁵ 하나님께서 조건을 정하시고 인간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넓은 견지에서 말하자면,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돕기로 성약을 맺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권 성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신권 성약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확인되었거니와, 너희를 위해서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서도 확인되었[나니] … 그들이 내게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⁶

이 말씀은 신권의 목적이 다른 사람들이 회복된 복음을 받으시도록 도움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신권이 주어진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죄의 짐을 벗고 그분과 같은 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신권을 통해서 복음의 성약을 맺고 지키며 그와 관련된 의식을 받는 모든 사람의 삶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납니다.⁷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하여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은 화물을 나르는 로켓, 즉 신권에 의해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과 맺는 성약은 가벼이 볼 것이 아니며 엄숙한 것입니다. 사람은 성약을 맺기 전에 먼저 준비를 하고, 성약에 대해 배우고, 그런 뒤 그 성약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성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약은 온 마음을 다해 맺는 약속이자 서약이 됩니다. 영어 극작가인 로버트 볼트의 말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사람은 자신이 어떤 약속에 대해 온 마음을 다해 이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설 때만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약속의 참됨과 그 자신의 덕성 사이에 연결점을 형성합니다. 사람이 성약을 맺으면, 그는 마치 손에 물이 든 잔을 든 것처럼 자기 자신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손을 펴서 잔을 떨어뜨린다면, 잔에 쏟아진 물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영영 잃게 됩니다. 성약을



여기는 자는 자신을 잃고 결심을 하거나 약속을 맺을 수 없게 됩니다.⁸

아론 신권 소유자는 악행을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며,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⁹ 이런 성스러운 책임들은 가르치고, 침례하고, 교회 회원들을 강화하며,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할 때 성취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론 신권 소유자의 “로켓” 기능인 셈입니다. 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소망, 용서, 천사의 성역, 그리고 회개와 침례의 복음에 대한 열쇠를 약속하십니다.¹⁰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아론 신권과 관계된 책임들과 더불어 멜기세덱 신권에서 그가 받은 부름을 영화롭게 할 책임을 다하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¹¹ 그는 그 성약에 관계된 계명을 지키므로써 그렇게 합니다. 이 계명들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영생의 말씀에 부지런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¹²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후기 사업에 대해 간증하는 것,¹³ 스스로에 대해 자랑하지 않는 것,¹⁴ 그리고 구주의 친구가 되어 친구를 신뢰하듯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¹⁵이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하면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열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는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면전에 설 자격을 얻게 될 것이며 이 구원 사업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권 소유자와 함께하시며 그가 가는 길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신이 신권 소유자의 마음에 함께 거할 것이며 천사들이 그를 받들 것입니다. 그의 육신도 강건해지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의 아내와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에 대한 공동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¹⁶ 이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¹⁷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멜기세덱 신권을 받는 각 사람에게 맹세로서 그분의 성약을 확증하십니다.¹⁸ 이 맹세는 멜기세덱 신권에만 적용되며,¹⁹ 맹세의 주체는 신권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²⁰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권능과 권세가 결부된 특별한 경우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의 구속력과 불가역적인 특성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기를 위해 가장 강한 어조를 사용하여 맹세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신권 성약을 깨고 그 성약에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²¹ 신권의 부름을 가벼이 여기거나 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불량 부품으로 로켓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 인해 로켓의 임무가 실패할 수 있듯이, 그런 태도와 행동은 신권 성약을 위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성약을 깨뜨립니다. 지속적이고 빈번하게 성약을 저버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약속된 축복이 거두어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신권”이라는 로켓과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라는 화물 사이의 관계를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동안 저에게 두 가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어느 나라에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일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 젊은 형제를 접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그의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십 대 후반에 교회에 가입했던 서른 살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귀환한 뒤로 그는 길을 잃었고, 교회 회원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 년이 지난 뒤 그는 “스스로 돌이켰고”²² 사랑 많은 신권 지도자들과 친절한 회원들의 도움으로 회개하여 재침례를 통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뒤 그는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하고자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토요일 오전 열 시에 집회소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인터뷰가 있어서 저는 더 일찍 갔는데, 그는 이미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신권을 받기를 몹시 열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접견을 하는 동안, 저는 그에게 서한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서한은 몬슨 회장님이 직접 그의 요청을 검토하셨고 접견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차분하게 별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 형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우리가 하는 이 접견은 그의 인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날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제가 그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면, 그의 회원 기록에는 오직 그의 첫 침례, 확인, 신권 성임, 엔다우먼트 날짜만 나타나게 된다고 그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는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교리와 성약의 몇 구절을 읽어 달라고 했습니다.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²³

그의 눈에 세 번째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 뒤, 저는 제 손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멜기세덱 신권의 권세로, 그리고 교회 회장의 승인을 통해 그에게 신권과 성전 축복을 회복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성전에서 받은 축복 역시 다시 온전히 회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보다 훨씬 가벼워 보였고 그에게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정말 자랑스러웠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스테이크가 새로 조직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수많은 열정적이고 충실한 성도들이 참석했고, 훌륭한 스테이크 회장단이 지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에게 축복을 회복해 주면서 느꼈던 기쁨과 비교하자니, 한 나라의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도 무색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스테이크를 조직하는 목적,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신권을 사용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하나에게 구속과 승영을 얻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것이 존재 목적인 로켓처럼, 신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모든 사람이 성약을 맺고 그와 연관된 의식들을 받게 해 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²⁴가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성신의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복음의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는 것은 물론, 그에 더하여 저는 여러분께 신권 성약을 맺고 지키라고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그분의 서약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돕겠다는 신권의 책임을 더욱 확대하십시오. 구주의 속죄 권능을 통해 유익을 얻을 기회를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돕기 위해 신권을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할 것입니다. 구속주가 살아 계시고 이 사업을 이끄신다는 것을 간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니파이전서 11:31; 니파이후서 2:8 참조.
2. 교리와 성약 121:36 참조.
3. 교리와 성약 42:11 참조; 또한 델런 에이치 옥스, “신권의 열쇠와 권세”,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참조.
4. 교리와 성약 124:95, 130, 132 참조. 그리스도의 속죄 권능이 그리스도와 무관하지 않듯이 인간이 받는 신권 역시 그것을 받는 사람과 무관하지 않다.
5. 소신권에 관련된 성약에 대한 참고 사항은 민수기 25:10-13; 느헤미야 13:29 및 말라기 2:2-8에서 찾을 수 있다. 멜기세덱 신권에 관련된 성약에 대한 참고 사항은 조성 창세기 14:26-37(경전 안내서); 시편 110:1 및 교리와 성약 84:39-42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브루스 알 맥콩키, “신권의 교리”, *리아호나*, 1982년 7월호, 32-34쪽 참조.
6. 교리와 성약 84:48, 50.
7. 교리와 성약 84:19-21 참조.
8. Robert Bolt, *A Man for All Seasons: A Play in Two Acts* (1990), xiii-xiv, 140 참조.
9. 민수기 25:12-13; 느헤미야 13:29; 예스겔 34:2-6; 말라기 2:2-9; 교리와 성약 13:1; 20:46-59; 84:33-40 참조.
10. 히브리서 7:19; 교리와 성약 84:26-27 참조.
11. 교리와 성약 84:33 참조.
12. 교리와 성약 84:43-44 참조.
13. 교리와 성약 84:61-62 참조.
14. 교리와 성약 84:73 참조.
15. 교리와 성약 84:77-88 참조.
16. 조성, 창세기 14:26-37(경전 안내서); 히브리서 7:11; 교리와 성약 84:19, 33-34, 38, 42, 77-88 참조.
17. 베드로후서 1:4.
18. 조성, 창세기 14:27-31(경전 안내서); 시편 110:1, 4; Joseph Smith Translation, Hebrews 7:19-21 (in the Bible appendix); 교리와 성약 84:33-40, 48 참조.
19.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 223; Joseph Fielding Smith, in Conference Report, Apr. 1970, 59; *Teachings of the Prophet Joseph Smith*, sel. Joseph Fielding Smith (1976), 323 참조.
20. 멜기세덱 신권 성약을 맺을 때 하는 맹세를 받는 자에 대한 경전 참고 문헌이나 기사는 없다. 대신, 조성, 창세기 14:27-31(경전 안내서); 시편 110:1, 4; 히브리서 7:21 및 교리와 성약 84:40을 보면 하나님께서 신권을 받는 자와 성약을 맺으실 때 맹세를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 누구든지 멜기세덱 신권과 더불어 맺은 성약을 지키는 자는 그분의 영원한 왕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고 소유하게 될 것이라 맹세하셨습니다. ...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승영을 얻을 것이라 맹세하셨고, 우리 각자가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때 새로이 맹세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참되고 충실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승영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신권의 교리”, 33쪽)
21. 교리와 성약 84:41-42 참조. 기꺼이 변화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회개는 언제나 가능하다. 예를 들어, 데일 지 랜던드, “회개: 기쁨을 주는 선택”, *리아호나*, 2016년 11월호 121-124쪽 참조.
22. 누가복음 15:17.
23. 교리와 성약 58:42-43.
24. 모사이아서 4:2.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모든 것의 참됨

우리 각자에게는 강한 간증을 얻고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시는 성신으로 강화되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소망과 신앙을 품고 이곳에 왔습니다.¹ 저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울여야 하는 노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남 시절 제게는 교회에 관한 많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뭇 진지한 의문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심 때문에 생겨난 의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의문에 관한 생각을 어머니와 자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많은 질문이 제 마음에서 우리나라 진지한 질문이었음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지 진지하지 못하고 다소 논쟁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조금 실망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가 의문을 품는다고 결코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질문을 귀담아 듣고 답해 주곤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하실 수 있는 답을 모두 하신 후에도 제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구나, 데이비드. 그럼 네가 답을 얻을 때까지 찾고 공부하고 기도해 나가는 동안, 네가 해야 한다고 아는 일은 하고, 네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아는 일은 하지 않으면 어떻겠니?” 이것은 제가 진리를 찾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연구하고 기도하며 계명을

지켰을 때,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중요한 의문에 대한 답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어떤 질문에는 계속되는 신앙과 인내와 계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²

어머니는 신앙을 키우고 답을 찾는 책임을 제게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진리를 구할 때 중요한 답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직접 진리를 찾아야 함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질문에 진실해야 하며 이미 참되었다고 아는 것은 기꺼이 행해야 함을 아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님께 답을 구하고자 할 때는 제가 연구하고 기도해야 하며 더 큰 인내심을 키워야 함을 아셨습니다. 기꺼이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찾는 과정의 한 부분이자 주님께서 진리를 계시하시는 패턴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³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어머니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진리를 찾는 패턴을 가르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이 자랐고, 응답이 오기 시작했으며, 저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 사업 초기에, 교회가 참된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를 제 자신이 알아야만 한다고 느낀 순간이 찾아 왔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간증이 아직 확고하지 않다면, 간증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는 반드시 자기만의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간증이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지탱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⁴ 저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의도로 몰몬경을 읽고 그것이 참된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제게 필요했습니다.

선지자 모로나이를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약속에 귀를 기울여 들어 보십시오. “너희가 이 기록을 받거든, 내가 너희를 권면하거니와, 너희는 후이 기록이 참되지 아니한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라.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⁵

몰몬경에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해 저는 그 책을 읽어야 했습니다. 저는 책의 첫머리부터 시작하여 매일 몰몬경을 읽어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방 참됨의 증거를 받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도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몰몬경을 여러 번 읽는 것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몰몬경을 끝까지 읽기 전에는 약속된 증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신의 권능으로 몰몬경의 참됨을 제게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 일지에 진리를 알게 된 기쁨과 제가 받은 진리에 따라 행하겠다는 제 개인의 진정한 의도와 결심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 자신에게 굳게 약속했다. 정말 최선을 다하기로. 남은 평생 동안 무엇이 요구되든 내 전부를 바치기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 사업이 남았으니 훌륭하게 선교 사업을 할 것이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후회하는 일이 없는 선교 사업이 되게 할 것이다. 나는 주님과 이 사업을 사랑한다. 이 느낌이 내게서 결코 떠나가지 않기를 간구한다.”

저는 이 느낌이 결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마음의 양식을 취하며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간증을 얻은 다음에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간증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살아 숨 쉬게 해야 합니다.”⁶

수년 간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청년과 선교사들에게 진리를 구하고 간증을 얻기 위해 개인적인 노력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들은 거의 예외 없이 몰몬경을 처음부터 읽고 하나님께 그것이 참된지 물어보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으로부터 개인적인 간증을 얻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타인의 의심에 의해 “행함을 받는” 대신, 스스로 “행하는”⁷ 태도를 선택했습니다.

진리를 알기 위해 우리는 복음대로 살고⁸ 말씀을 “시험”할⁹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를 받았습니다.¹⁰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동반된 회개는 개인적인 진리 탐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¹¹ 사실,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버리겠”다는 결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¹²

우리는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고,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는 계명을 받았습니다.¹³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 “가장 좋은 책”과

가장 좋은 출처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이 가장 좋은 원천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 각자에게 강한 간증을 얻고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¹⁴ 간증을 다지고 강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강한 간증을 얻고 간직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야 할 개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께 응답을 받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동안, 참을성 있게 성약을 지키는 것은 진리를 배우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의 일부입니다. 특히 힘들 때는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¹⁵ 인내심을 갖고 성약을 지켜 나간다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소망이 깊어지며, 성신이 “[우리]가 복 받으며, 변영하며, 보전되도록 [우리]를 지혜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¹⁶

아내 메리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교회의 어떤 면 때문에 오랫동안 고심하여 힘겨워하셨습니다. 그녀는 복음과 교회를 사랑했지만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인봉되었고 활동적인 회원으로 부름을 수행하고 있으며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입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옳다고 아는 것들을 행하고, 잘못됐다고 아는 것들은 행하지 않으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약을 지키며 탐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들의 신앙에 의지하며 감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그녀의 감독님이 이 부부에게 접견을 청했습니다. 감독님은 성전 의식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대리 의식을 하는 성전 임무를 받아들이도록 부탁했습니다. 부부는 이 부름을 받고 놀라기는 했으나 받아들였고 주님의 집에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십 대인 그들의 아들이 최근 가족 역사 조사에 참여하여 성전 의식이 완료되지 않은 가족 이름을 찾았었는데, 이윽고 이 부부는 그분과 그 가족을 위해 성전 의식을 대리로 받았습니다. 제단에 무릎을 꿇고 인봉 의식이 집행되는 동안, 그토록 오랫동안 참을성 있게 답을 구해 왔던 이 훌륭한 자매님은 개인적인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성전과 그 안에서 집행되는 의식들이 참되고 진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아직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지만 성전이 참되고 성전 의식이 참되며 교회가 참됨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사랑과 인내심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함과 참을성 있게 계속해서 구했던 딸에 대한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을성 있게 성약을 지켜 나간다면 우리 삶에 하늘의 축복이 깃들 것입니다.¹⁷

저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는 모든 것의 참됨을 알게 되리라”라는 주님의 약속에서¹⁸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경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우리는 “물론경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앨마서 13:27 참조] 느”낄 수 있으며, “물론경 없이는 절대 단 하루도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것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¹⁹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회원이 됨을 소중히 여겨야 하며, 매주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도록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의식을 통해 참으로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및 회개와 용서의 축복이 참되고 실제적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주님의 선지자이고, 그분의 보좌들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사도이자 선지자,

선전자, 계시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참됨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10:5 참조.
2. 그러한 의문 중 하나는 모든 합당한 남성에게 신권을 부여하는 일에 관한 것이었다. 이 의문은 스펜서 더블유 킴볼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들이 1978년 6월 1일에 받은 계시에 의해 해결되었다. 이 계시는 교리와 성약 공식선언—2에 수록되어 있다.
3.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15; 로마서 8:5; 앨마서 32:41~43; 이터서 12:19; 교리와 성약 21:5; 101:38; 107:30~31 참조.
4. 토마스 에스 몬슨, “물론경의 권능”,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7쪽.
5. 모로나이서 10:4.
6. 토마스 에스 몬슨, “물론경의 권능”, 87쪽.
7. 니파이후서 2:14; 또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신앙으로 배움을 추구함”, *리아호나*, 2007년 9월호, 19~21쪽 참조.
8. 예를 들어 요한복음 7:17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 또한 앨마서 32장 참조.
9. 앨마서 32:27 참조.
10. 앨마서 32:28 참조.
11. 앨마서 22:18; 교리와 성약 93:27~28 참조.
12. 앨마서 22:18.
13. 교리와 성약 88:118.
14. 토마스 에스 몬슨, “물론경의 권능”, 87쪽.
15. 모사이야서 24:15; 또한 모사이야서 24:13~14;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매”,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87~90쪽.
16. 모사이야서 2:36.
17. 제프리 알 홀런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리아호나*, 2000년 1월호, 45쪽 참조.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축복은 곧 오며, 어떤 축복은 나중에, 그리고 어떤 축복은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오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에게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18. 모로나이서 10:5.
19. 러셀 엠 넬슨, “물론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및 교회 본부 직원

제일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디이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제2보좌

십이사도 정원회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옉스



엠 러셀 벨라드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엠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앤드슨



로널드 에이 래스밴드



케리 이스터먼슨



데이비드 지 렌랜드



엠 웨트니 클레이튼



크레이그 시 크리스텐슨



울리세스 소아레스



린 지 로빈슨



케يث 터블유 공



류안 에이 우셀라



패트릭 키아른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주님과 가족의 신뢰를 얻음

신뢰는 고결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마음이 고결”한 사람은 곧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형 제 여러분, 주님께에서 어떤 칭찬을 받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합당한 신권 소유자요 훌륭한 남편과 아버지로서 신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신뢰를 얻는 것은 큰 노력을 통해 받게 되는 축복이라는 점입니다. 신뢰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침례의 물에서, 또 거룩한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충실할 때, 그 결과로서 주님께 신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면, 주님은 우리를 더욱 신뢰하십니다.

저는 고대와 현대의 경전에서 의로운 사람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는 “마음이 고결”하다는 표현을 좋아합니다.¹ 고결성은 사람의 성품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신뢰는 고결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마음이 고결”한 사람은 곧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해, 고결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공적 생활과 사적 생활의 모든 면에서 행동만이 아니라 의도까지도 순수하고 의로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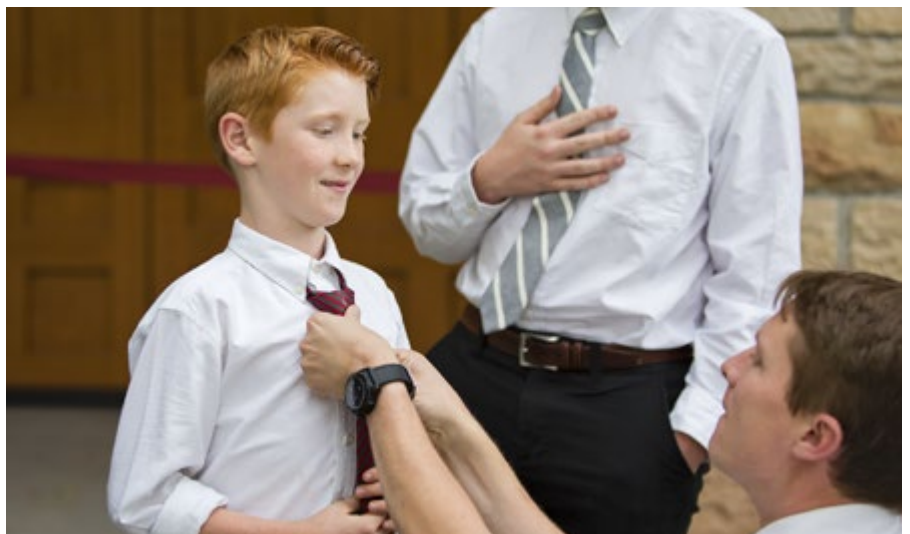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남편과 아내의 책임에서 가장 잘 나타날 것입니다.

현대의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는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통해 남편과 아내인 우리에게 신성한 책무를 주었습니다. 이 선언문에 따르면 (1)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2)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3)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²

하나님께 신뢰받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가족에 부여하신 이 세 가지 책임을 주님의 방법으로 성취해야 합니다. 가족 선언문에 언급되었듯이, “동등한 동반자로서” 아내와 함께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입니다.³ 저는 이런 세 가지 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아내와 함께 완전히 단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내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께 신뢰받기 위한 노력의 첫 단추는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이런 결심을 몸소 보여 주며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의뢰하였사오니 내가 또 영원히 주를 의뢰하리이다. 내가 육신의 팔에 나의 신뢰를 두지 아니하오리니.”⁴ 니파이는 주님의 뜻을 행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가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그분이 명하신 일을 성취했다는 사실은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고 우리가 살아 있음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우리가





광야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라.”⁵

니파이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하나님도 니파이를 신뢰하셨습니다. 주님은
풍성한 영을 내리시어 그를 축복하셨고, 그
영은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리며 가족과 백성을
부양하고 보호한 니파이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 관해 여성의 견해를
담아 보고자 결혼한 두 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딸들에게 신뢰의 중요성이
그들의 결혼과 가족생활에 미친 영향을 한두
마디로 요약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제
딸들인 라라 해리스와 크리스티나 헨슨의
의견입니다.

라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꼽는 한 가지는 남편이 제게
존경과 사랑을 보여 주는 선택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을 때 가정에
평화가 깃들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크리스티나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사람을 믿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 신뢰와 믿음이 없다면,
두려움과 의심이 자리 잡죠. 남편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 때 오는 가장 큰 축복의
하나는 평화입니다. 남편은 하기로 한 것을
반드시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니까 저는
마음이 평화로워요. 신뢰는 평화와 사랑,
또 그 사랑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요.”

라라와 크리스티나는 사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두
딸이 각자 가정의 평화라는 축복을 누리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남편에 대한 신뢰를
꼽고 있다는 점이 저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 딸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신뢰의
원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인 가정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또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권을 존중하고 “마음이 고결”하셨기에⁷
온 가족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셨습니다.
고결성에 바탕을 둔 신뢰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아버지가 가족에 행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제
청소년 시절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공장 자동화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세우셨습니다. 이 회사는 세계 곳곳에서
자동 생산 설비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설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무렵, 아버지는 제게
일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어하셨습니다.
또한, 제가 아주 자잘한 부분부터 사업을
배워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게 주어진
첫 번째 업무는 공장 부지와 도색 구역이
일반인에게 보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청사진을 읽는 법과, 철골 제작에 쓰이는 육중한 기계를 가동하는 법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교에 진학했다가 선교 사업을 떠났고, 귀환한 후에 저는 공장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필요한 학교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얼마 후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사무실로 저를 부르시더니, 로스앤젤레스로 출장을 갈 텐데 함께 갈지를 물으셨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출장을 가자고 하신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공식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는 일에 나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장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이번에 새로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관해 미리 몇 가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첫째, 고객이 될 회사는 다국적 기업이었습니다. 둘째,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보유한 생산 설비에 최신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는 중이었습니다. 셋째,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이 회사에 기술 용역이나 자문을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넷째, 이 회사의 구매를 담당할 최고 책임자가 새 프로젝트에 대한 저희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저희 회사에 새롭고도 잠재적으로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아버지와 저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상대 회사의 임원이 기다리고 있는 호텔로 갔습니다. 제일 먼저 이 프로젝트의 기술 설계 규격을 논의하고 분석했습니다. 다음으로 물류 및 배송 기일을 비롯한 세부적인 운영 사항을 논의했으며, 마지막으로 가격과 계약 조건을 논의했습니다. 이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이 책임자는 저희 회사가 이 프로젝트의 입찰에 참여한 회사 중 최저가를 제안했다고 설명하며, 이상하게도 그다음으로 낮게 제안된 입찰가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에게 제안을 철회했다가 다시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두 번째 저가 입찰자보다 가격을 조금 낮게 써서 제출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가 원래 제안했던 금액과 둘째로 제안할 금액의 차액을 자기와 반씩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양쪽 다 이익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원래 제안했던 금액보다 상당한 돈을 더 벌게 될 터라 저희 회사에 이익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쪽 회사도 최저가 입찰자와 거래를 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책임자도 이런 큰 계약을 성사시켜 자기 몫을 챙기면 당연히 이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이 요구한 금액을 받을 우체국 사서함 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자, 그렇게 하시는 거죠?”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사래를 치시며, 생각을 좀 해 보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회의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시며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물었습니다. “직원들을 위해 일감을 확보해야 하는 건 아닐까?”

아버지의 질문을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가 답을 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일단 뇌물을 받거나 고결성을 해친 뒤에는 다시 회복하기가 정말 어렵단다. 단 한 번이라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출장에



데려가셨을 때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은 적이 없기에 이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가 아버지로서 지속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고결한 마음을 보며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신뢰했는지 여러분도 상상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어머니와 자녀들, 또 그분이 알고 지냈던 모든 사람과의 사적인 관계 속에서도 이 원리를 실천하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니파이가 보여 주었듯이, 우리가 주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런 다음 마음을 고결하게 하여 주님만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기를 오늘 저녁 이 자리에서 간구합니다. 고결성에 바탕을 둔 이 성스러운 신뢰의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할 때, 우리는 성스러운 성약에 충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의로움을 다해 가족을 성공적으로 다스리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마련하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예를 들어, 열왕기상 9:4; 교리와 성약 124:15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129쪽.
4. 니파이후서 4:34.
5. 니파이전서 3:7, 15.
6. 니파이후서 5:27.
7. 교리와 성약 124:1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하늘의 빛을 지닌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빛을 지닌 사람입니다.

한 노인이 우표를 사려고 우체국 판매대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분이 걷기가 불편하다는 것을 눈치 챈 한 젊은 여성이 시간 절약을 위해 자동판매기에서 우표 사는 법을 알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고맙지만, 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게 더 좋구려. 기계는 내 관절이 괜찮은지 걱정해 주지 않거든.”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염려하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통, 슬픔, 질병은 누구나 겪는 경험입니다. 사고나 고통, 또는 불행의 순간은 영혼에 내장된 하드 드라이브에 상당량의 메모리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체적 안녕에 관한 한, 노화와 질병을 필멸의 여정 중 한 부분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신체를 잘 아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정서적인 고통이나 정신 질환으로 고통을 겪을 때는 이런 종류의 질병을 치료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는 이 필멸의 생에서 육체적, 정서적 시련에 봉착하듯이, 영적 어려움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간증이 밝게 빛나는 시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멀리 계시는 것 같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소중히 여기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그것들이 덜 소중하거나 그 중요성이 희미해지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영적 안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즉 침체 상태에서 치유를 얻고, 활기차게 영적 건강에 이르는 길로 나아가는 법 말입니다.

영적 질환

때로 영적 질환은 죄나 감정적 상처의 결과로 오기도 합니다. 영적 쇠약이 너무



서서히 진행되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알아차리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마치 퇴적암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쌓인 영적 고통과 슬픔이 우리 영을 짓눌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이나 가정, 교회에서 맡은 책임이 너무 무거워 복음의 기쁨을 잊고 누리지 못할 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거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이 너무 벅차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시련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서 치유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치유 불가능해 보이는 가장 깊은 영적 상처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권능은 우리 시대에도 존재합니다.

구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러했듯이, 그 치유의 손길은 우리 시대에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영혼을 하늘의 빛과 치유로 채우며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복된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¹

어둠과 빛

우리의 영적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신성한 빛이 없다는 점입니다.

어둠은 분명히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어둠은 한때 단순하고 명확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가는 길에 놓인 위험물을 볼 수 없으므로 그릇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희망을 잃기 쉽습니다.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면 만날 수 있을 평화와 기쁨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빛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합니다. 빛은 참과 거짓, 필수적인 것과 사소한 것을 분별하게 해 줍니다. 빛 안에 있으면, 참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 안에 있으면,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이 우리와 함께합니다.² 지상 생활의 시련을 영원한 관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서 벗어나 영원한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들어갈 때 영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빛의 교리적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수록, 다방면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영적 질병을 더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더욱 활기차고, 용감하며, 배려심 많고, 겸손한, 거룩한 신권의 소유자, 즉 우리가 사랑해 마지않는 영원하신 왕의 참된 종이자 제자로서 더 잘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³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이런 뜻입니다.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그분의 빛을 체험하고 함께 나눌 것이다. 그리고 그 빛은 결국 가장 캄캄한 어둠마저도 몰아낼 때까지 커질 것이다.

이 말씀은 구주에게서 나오는 권능, 즉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나아와 광활한 우주를 채[웁니다.]”⁴ 경전에서 종종 빛으로 불리는 이 권능은 우리 삶을 깨우치고, 고양하고, 밝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도 언급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이며, 무엇이든지 진리인 것은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인 것은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까닭이니라.”⁵



빛은 영이요, 영은 진리이며, 이 빛은 세상에 오는 모든 영혼 위에 비춘다는 이 심오한 통찰은 거기에 담긴 희망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고 충만하게 합니다.⁶

그리스도의 빛은 우주를 채웁니다.

온 지구를 채웁니다.

또 모든 가슴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⁷ 그분의 빛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특권을 가진 자나 받지 못한 자,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도록 생각과 마음을 열고 겸손히 구주를 따르다면, 더 많은 빛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둠이 사라질 때까지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더하여 영혼에 더 많은 진리와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⁸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여실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빛과 진리는 잠자는 존재에 생명이 솟아나게 하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⁹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눈이 순전하여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 너희 온 몸은 빛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요, 너희 안에 어둠이 없으리라,

빛으로 충만하게 된 그 몸은 모든 것을 이해하느니라.”¹⁰

이것이 바로 영적 질환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제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사라집니다.

영적 어둠의 비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둠을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빛이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우리의 행성 지구 전역을 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창조물이 보여 주는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늘 매료되곤 했습니다. 특히 지구와 태양 사이의 관계가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둠과 빛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관한 심오한 실물 공과로 여깁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24시간 동안 밤은 낮으로, 낮은 밤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밤이란 무엇일까요?

밤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어둠이 깃든 밤에도 태양은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합니다. 태양은 언제나 밝게 빛납니다. 그렇지만 지구의 반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생깁니다.

어둠의 밤이 오더라도, 우리는 태양이 소멸한다고 절망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그곳에 없거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림자 아래에 있고, 지구는 계속 자전할 것이며, 결국 태양 광선이 다시 우리를 비추리라는 것을 압니다.

어둠은 빛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는 우리가 단지 빛을 받아들일 올바른 장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있었던 개기 일식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밝은 대낮 중에 달이 창조해 내는 좁은 그림자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영적인 빛은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위를 끊임없이 비춥니다. 사탄은 그림자를 만들어 내거나,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 스스로 개기 일식을 만들어 빛을 보지 못하도록 강압하고, 우리를 그의 동굴 속 어둠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영적 어둠은 한때 빛 안에 걸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했던 사람들 주위에조차 막강의 장막을 드리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을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감한 어둠의 순간에도 우리의 겸손한 간구를 들으십니다.¹¹

엘마의 시대에는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빛과 진리가 그들의 영혼에 임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¹²

우리는 빛을 지닌 사람입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신성한 빛과 진리를 바라보기 위해 올바른 장소에 있는 일은 우리 몫입니다. 밤이 닥쳐와 세상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걷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그분의 실재하심과 위대함을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여러분은 빛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빛을 키워 줄 일들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들어”¹³ “[그]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여러분을 보고 존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들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¹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영혼에 빛과 치유를 가져다줄 목적으로 쓰일,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관절염에 걸린 노인을 돕는 우체국 직원보다도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의 영적 고충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도록 여러분에게 권세와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으키고 축복하도록 여러분께 그분의 성스러운 신권 권능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와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는” 소중한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¹⁵ 그분은 영적 안녕에 이르는 길, 침체 상태에서 치유를

얻고, 활기찬 영적 건강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겸손한 기도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때마다 여러분은 그분의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전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을 구할 때마다 빛은 밝게 자라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고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안락함을 희생할 때마다 빛은 확대되고 부풀어 오릅니다. 유혹에 맞서 순결을 선택할 때마다,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할 때마다, 용감하게 진리를 증거할 때마다, 빛은 어둠을 멀리 쫓아내며 빛과 진리를 찾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니다.

개인적 경험에서 여러분의 삶에 신성한 빛이 비치던,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의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전에서, 성찬대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색하던 고요한 순간에, 가족 모임에서, 또는 신권 봉사를 하는 동안에 일어난 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 순간들을 가족과 친구, 특히 빛을 찾는 청소년들과 나누십시오. 그들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이 빛이 있으면 희망과 치유가 온다는 말을 여러분에게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그 어떤 영적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상처나 질환에도 희망과 행복, 치유를 가져다줍니다.¹⁶ 이렇게 정련되는 과정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게 하기 위해 세상의 빛이신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됩니다.¹⁷ 그들은 라모나이 왕이 느꼈던 것, 즉 “이 빛이 그의 영혼에 것처럼 큰 기쁨을 넣어 주어, 암흑의 구름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그의 영혼에 밝혀졌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¹⁸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어둠 속에서도 우리의 간증이 확신에 넘치고 강하게 될 때까지 주님을 찾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권 소유자요 언제나 기쁨으로 하늘의 빛을 지닌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운명을 성취하는 데 성공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5:8.
2. 니파이후서 31:20.
3. 요한복음 8:12.
4. 교리와 성약 88:12; 또한 교리와 성약 88:6~7 참조.
5. 교리와 성약 84:45.
6. 교리와 성약 84:46 참조.
7. 사도행전 10:34.
8. 교리와 성약 88:40에는 “빛은 빛과 결합하며” 라는 가르침이 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빛, 진리, 지혜, 덕을 많이 받아들일수록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것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다.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9. 이는 우리가 지상 생활의 세속적인 삶을 장사지내고 침례의 물에서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다는 침례에 담긴 약속 중 하나이다. 우리는 새 생명의 길을 걷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로마서 6:4; 고린도후서 5:17 참조.)
10. 교리와 성약 88:67; 또한 마태복음 6:22 참조.
11. 마가복음 9:24.
12. 모사이야서 26:3.
13. 제3니파이 18:24.
14. 마태복음 5:16.
15. 야곱서 2:8.
16. 요한1서 1:7; 엘마서 7:11~13 참조.
17. 마태복음 5:14 참조.
18. 엘마서 19:6.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지상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모든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은 크고도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 나님의 신권을 소유하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지상 왕국을 이끄시는 놀라운 방법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리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성신을 통해 여러분이 이에 대한 확인을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이 지상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둘째, 그분은 선지자로 부름받은 남성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오늘날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며, 계시를 통해 그렇게 하신다.

셋째, 그분은 과거에 선지자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하실 것이다.

넷째, 그분은 선지자들의 지도력에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확증의 계시를 주신다.

이런 기본 원리들에서 우리는 지상에서 주님께 봉사하는 모든 주님 교회의 지도자들은 크고도 한결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매일





당신의 왕국에서 일어나는 세세한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데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분께서 불완전한 사람들을 부르시어 책임 있는 위치에서 봉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완벽하게 아시며, 그분이 주시는 부름에는 어떠한 실수도 없음을 믿는 데에도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이 받은 부름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아는 몇몇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부름을 수행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소하거나 고개를 가로저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될 때까지 그런 판단을 미뤄 두시라고 권고합니다. 그보다는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두려움 없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불완전한 중을 부르시어 여러분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려면 더욱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신앙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지도자로 부르신 불완전한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다는 사실에 대해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의 교회와 왕국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권 봉사의 연결 고리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부름이 주님의 선지자이든 갖 성임된 아론 신권 소유자이든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아실 것입니다.

교사 또는 집사 정원회 회장에게 신앙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친히 그 부름을 주셨으며, 자신의 약점과 강점을 아신다는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부름을 준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를 받았음을 믿는

신앙도 있어야 합니다. 그의 보좌들과 정원회 회원들에게도 두려움 없는 확신으로 그 회장을 따르겠다는 똑같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저는 집사 정원회 회장단과 함께 앉아 있는 한 소년에게서 그런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는 새로 부름받은 서기였습니다. 그 어린 회장단은 서로 협의하면서 저활동 청남을 교회로 다시 데리고 오라는 감독님의 요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와의 토의가 끝난 후에 그들은 서기에게 모임에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소년의 집으로 가서 그를 초대하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그 서기는 그 소년을 몰랐지만, 그 부모 중 한 분은 저활동 회원이고 다른 한 분은 비회원이며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분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는 긴장이 되긴 했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신권 소유자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데리고 오라고 요청했다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원회 회장단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합의를 통해서 구조될 그 소년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저는 그 서기가 저활동 소년의 집으로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마치 매우 위험한 곳에 가는 것처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삼십 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소년과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는 신앙으로 갔다는 사실을 그가 당시에 알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앙은 계속 유지되었고 그가 선교사, 아버지, 청남 지도자, 그리고 감독으로 봉사하는 동안 커졌습니다.

그런 신앙이 감독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감독님은 때때로 자신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와드 회원들은 그분의 인간적인 약점과 영적인 강점에 대해 알며, 와드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았거나, 경험이 많거나, 더 상냥하거나, 심지어는 더 잘 생긴 다른 사람이 그 부름을 받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회원들은 감독으로 봉사하라는 그

부름이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왔음을 알아야 합니다. 회원들의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감독이라도 회원들을 돕는 데 필요한 계시를 받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감독을 지지하는 회원들의 신앙이 없다면 그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주님의 종인 베냐민 왕이 자신의 백성을 회개로 이끌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은 베냐민 왕의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신앙이 있었기에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백성들이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 그것의 확실함과 참됨을 아노니,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모사이야서 5:2)

지도자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성공을 거두려면,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 마음이 그의 연약함과 인간적인 약점을 바라보는 시각을 능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냐민 왕이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명하여 이리로 올라오게 한 것은 너희로 나를 두려워하게 하거나, 너희로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사람 이상으로 생각하게 하려 함이 아니니라.

오히려 나는 너희 자신과 같이 몸과 생각에 있어 온갖 약점을 지니기 쉬운 자이나, 그럼에도 나는 이 백성에 의해 택함을 받고, 내 부친에 의해 성별되었으며, 주의 손의 용납하심을 받아 이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요 왕이 되었고, 비길 데 없는 그의 권능으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아, 주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신 온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너희를 섬겼느니라.”(모사이야서 2:10~11)

주님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지도자는 연약한 인간으로 보일 수도, 강하고 영감에 찬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지도자에게는 그런 특성과 그 외의 더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바라보셨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라는 부름을 받은 주님의 종들을 돕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그들의 잠재력과 미래를 아십니다. 그들의 본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아십니다. 그들이 인도하게 될 사람들과의 경험을 통해 어떻게 변화될지도 아십니다.

여러분은 부름을 받아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들을 통해 강화되는 경험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독신 성인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받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이 제가 그분을 도와 독신 성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는지, 그들이 이루어 낼 제 안의 변화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와드의 청년 독신들 대부분은 제가 특별히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제 약점을 보았지만, 그냥 넘겨 버렸습니다.

한 독신 형제가 학업에 관한 결정에 조언을 구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는 우수한 명문 대학에 막 입학한 신입생이었습니다. 제가 조언한 지 일주일 뒤, 그 형제가 제게 접견을 신청했습니다.

그 형제는 감독실로 들어오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감독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도 될까요? 무릎을 꿇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그 형제의 요청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그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 아이어링 감독님께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는데, 그게 효과가 없었음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감독님에게 영감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시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그 형제는 이미 주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감독이라는 직분을 존중했던 그는 어쩌면 제가 그 직분에서 계시를 받도록 더 큰 자신감을 얻을 기회를 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자리에 앉자마자 제게 계시가 왔습니다. 저는 그 형제에게 주님께서 그에게 하기를 바라신다고 느끼는 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당시 겨우 18살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훨씬 성숙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감독님을 만날 필요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종에게 인간적인 약점이 있더라도 그를 지지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그 형제는 나중에 스테이크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함께 배운, 다음 교훈을 기억하고 적용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당신이 부르시는 불완전한 종들에게 계시를 주시으로써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만일 여러분에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그 종들에게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 경험에서 제가 배운 교훈은 주님께 봉사할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의 신앙보다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계시를 더 가져다준다는 점입니다.

제가 배운 또 다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 청년에게 했던 효과적이지 않았던 조언으로 그가 저를 재단했다면, 다시는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재단하지 않았기에 그는 자신이 원했던 확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험에서 얻은 또 다른 교훈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형제는 와드 내 어느 누구에게도 제가 처음에 조언을 제대로 해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감독의 영감을 신뢰하는 와드 회원들의 신앙을 떨어뜨렸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을 재단하거나 눈에 띄는 그들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제 자녀들에게 모범으로 그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제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의 신조가 있는데 여러분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역 지도자들 역시 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었으므로 우리는 그들을 지지해야 합니다. 교회 회원들은 누구나 감독이나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이나 선교부 회장, 그리고 교회 회장과 그의 동료 지도자들로부터 권고를 받습니다. 이 형제들 중 아무도 부름을 달라고 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분의 종들입니다. 부름받고,

지지받으며, 성별된 사람들은 우리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경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약해지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를 감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불완전함, 과오 또는 결점이 드러났다 해도 그것에 매달리지 말고 그들의 직분을 지지해야 합니다.”(“부름을 받고 택함을 입은 자”,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5쪽)

이 권고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종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줍니다.

주님의 교회 초기 시절,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가까웠던 지도자들이 그의 단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조셉이 주님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질투의 영이 역병처럼 급속히 퍼져 나갔습니다. 십이사도 중 한 명이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봉사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지녀야 할 신앙과 충직함의 표준을 세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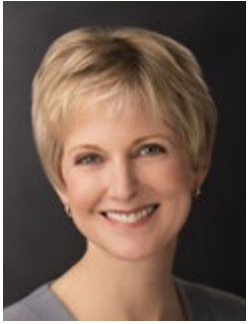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몇몇 장로들이 조셉 스미스가 타락한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성전에서 모임을 소집했다. 그들은 데이비드 휘트머를 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려 했다. … 브리검 [영]은 선지자를 반대하는 주장을 들은 다음 일어서서 이렇게 간증하였다. ‘조셉은 선지자였으며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멋대로 선지자를 비난하고 중상 모략할 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를 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무효화하고, 자신을 선지자와 하나님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줄을 끊고, 스스로 지옥에 떨어질 수 있을 뿐입니다.”(*Church History in the Fulness of Times Student Manual* [Church Educational System manual, 2003], 2nd ed., 174; *Teachings of Presidents of the Church: Brigham Young* [1997], 79 참조)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를 주님과 묶어 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이 왕국 어디서든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서 신권으로 우리를 감리하도록 부름받은 이들에게로, 그리고 선지자에게로 연결되어 있으며, 선지자는 주님에게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위치에서 봉사하고, 주님이 우리와 우리를 감리하는 자들을 부르셨음을 믿으며,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지지하는 데에는 신앙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커틀랜드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위치에서 봉사하며, 주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와 지도자들에게 충실하기 위해 브리검 영과 같은 신앙과 고결성이 필요할 때가 올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시다는 엄숙하고도 기쁨에 찬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와 종들을 인도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지상에서 거룩한 신권 열쇠를 모두 지니시고 행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분의 회복된 교회 안에서 참으로 기꺼이 그리고 훌륭하게 봉사하는 모든 겸손한 종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진 비 병엄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치유와 평안과 영원한 진보의 근원이십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께 바로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 신문에는 “각종 재난, 미국 전역은 물론 온 세계를 뒤흔들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¹ 허리케인, 홍수, 폭염, 가뭄, 산불, 지진, 전쟁, 악성 전염병에 이르기까지 “온 땅이 동요하”고 있는 듯합니다.²

이러한 재난으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두려움, 의심, 무너진 기대 등으로 인한 내적 갈등은 물론 가족 및 이웃과의 불화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리하이가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친 기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³ 우리는 누구나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를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⁴ 지상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기쁨을 찾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너무 간단해 보일 수도 있으나, 그 답은 아담의 시대부터 입증된 진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보여 주고 가르치신 대로 복음에 따라 생활할 때 영속적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배우고, 그분을 믿는 더 큰 신앙을 가지며, 그분을 더욱 닮아 갈수록 우리는 그분이 모든 치유와 평안과 영원한 진보의 근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께 오라고 권고하십니다.⁵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를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권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⁶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그분께 나아갑니까? 지난 4월, 러셀 엠 넬슨 회장님과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구주에 대해 배우기 위해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⁷ 공부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권고를 받아들이고 축복을 누렸습니다. 최근, 제 친구 한 명은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각각의 구절에 대한 삽화가 곁들여진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주면서 손주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외울 수 있게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그 친구는 열심히 침착하게 이를 외우는 여섯 살배기 손녀 레이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제게 보내 주었습니다. 여섯 살 아이가 할 수 있다면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더 집중하여 공부하고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외우려고 노력하자, 구주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더욱 커졌습니다.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 영감에 찬 문장 하나하나에는 교리적 가르침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신성한



역할과 지상에서의 사명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구하고 숙고하자 예수께서 참으로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심을 확실히 알고 느끼게 되었습니다.⁸ 그분에 대한 찬양을 담은, 기록되거나 전해진 고대 경전과 후기 선지자들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애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가르침을 공부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며, 완벽하게 이해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33년 간의 필멸의 삶을 사시는 동안 거부, 핍박, 육신의 주림, 갈증, 피로,¹⁰ 외로움, 언어 및 신체적 학대 등으로 고통받으셨고, 결국 사악한 사람들의 손에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¹¹ 그분은 겐세마네 동산과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고통과 고난, 유혹, 질병,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¹²

우리가 어떠한 고통에 시달리더라도 그분께서는 치유의 근원이 되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학대, 막대한 손실, 치명적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한 고통, 거짓된 비난, 악랄한 괴롭힘 등을 경험했거나 죄나 오해로 영적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세상의 구속주를 통해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초대 없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맑은 공기를 쉼 없이 문을 열어 두었습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열린 문으로 날아 들어오더니, 이내 이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님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그 새는 탈출하려고 창문 우리를 향해 계속 돌진하며 반을 필사적으로 맴돌았습니다. 저는 새를 열린 문 쪽으로 부드럽게 유도하려 했지만, 겁먹은 새는 계속해서 도망갔습니다. 당황한 그 새는 결국 힘이 빠진 채로 창문 커튼의 맨 위쪽에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빛자루를 세워서 불안하게 앉아 있는 새를 향해 살며시 들어 올렸습니다. 새의 발 옆에 빛자루 끝이 닿자 그 새는 머뭇머뭇하며 조심스럽게 빛자루 솔로 옮겨 앉았습니다. 저는 빛자루가 흔들리지 않게 최대한 꼭 잡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린 문 쪽으로 갔습니다. 문에 도달하자마자 그 새는 쉼새처럼 자유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그 새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배울 때, 그분들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행복과 발전 뿐임을 이해하게 됩니다.¹³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분들은 기쁘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¹⁴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그분들께서 주시는 응답을 겸손히 받아들일 때 우리를 구속하는 오해와 추측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강한 팔에 기대라”고 말씀하시며,¹⁵ “모든 시각에 뛰어난 … 평강”을 약속하십니다.¹⁶ 이는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에워싸도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혼에 평강을 말씀하”실 때 오는 그 느낌입니다.¹⁷



개인적인 고통이든, 가정불화든,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든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에게는 우리의 아픈 영혼을 달래 줄 권능이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크로아티아 카를로바츠에 있는 몇 안 되는 후기 성도 중 하나인 스네자나 포드빈스키는 작년에 6개월 사이에 남편과 부모님을 모두 잃고 구주께 기대었습니다. 커다란 슬픔 속에서도 가족은 영원하다는 간증이 있었던 그녀는 모아둔 돈을 전부 경비로 사용하여 성전으로 가, 그곳에서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녀는 성전에서 보낸 그 나날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었기에 그녀는 평안을 느끼고 치유를 얻었으며, 그런 본보기는 주위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치유와 평안을 넘어 훨씬 더 많은 은사를 가져다줍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필요했을 때 주님께서 여러 방식을 통해 보혜사로 저를 돌봐 주신 것에 감사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위로받는 것만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진보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¹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는 구속과 부활의 은사가 수반되며, 이를 통해 우리는 회개하고, 변화하며, 영원히 진보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때 그분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해 우리는 혼자 힘으로 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커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각자 신성한 본질과 목적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며, 이에 부합하는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금수”의 수준으로 허물어뜨리려는 세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¹⁹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우리에게 신성한 잠재력과 고귀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생이



끝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를 통해 우리가 구속되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게 될 때, 그분을 믿는 신앙이 커지며 자연스럽게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됩니다. 그분께서 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를 갈망하게 되며, 우리가 찾은 평안과 행복을 그들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하신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그렇게 강한 힘을 발휘할까요? 우리가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성신이 영원한 진리를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²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범을 따를 때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며, 그분의 길을 계속 걸을 때 충만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²¹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라는 단단한 반석 위에 간증을

쌓았습니까? 인생의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 대처법 관련 서적이나 인터넷 게시물에서 정신없이 답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쌓는다면 시련과 고난의 시기에 커다란 유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매일 경전을 읽고,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을 숙고하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기도하며, 매주 진지하게 성찬을 취하고, 구주께서 하실 만한 그런 봉사를 할 때, 이러한 단순한 행위들이 기쁜 삶을 이루는 초석이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줍니까? 긴 하루를 마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때인가요? 맑은 일을 잘 마무리 지어 흠족할 때인가요? 여러분이 짐을 털어 준 사람의 눈에서 빛을 볼 때인가요? 찬송가 가사가 마음속 깊이 와닿을 때인가요? 친한 친구와 악수를 나눌 때인가요? 시간을 내어 자신만의 축복을 돌아보고, 이를 나눌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웃은 물론 크게 중요하고 있는 세상 곳곳의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할 때, 더 커다란 평안과 치유와 발전까지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로 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둘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맛보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실로 해답은 "오직 주님뿐"입니다.²² 시간을 내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그분을 알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린 레이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²³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성스러운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Tamara Lush and Jay Reeves, "Disasters Rock the Nation, World," *Deseret News*, Sept. 10, 2017, A1.
2. 교리와 성약 45:26.
3. 니파이후서 2:25 참조.
4.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5. 제3니파이 9:14, 22 참조.
6. 헨리 비 아이어링, "그리스도께로 나아옴",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49쪽.
7.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참조.
8. "살아 계신 그리스도", 3쪽.
9. "살아 계신 그리스도", 3쪽.
10. 모사야서 3:7 참조.
11. 누가복음 24:7 참조.
12. 엘마서 7:11~12 참조.
13. 모세서 1:39 참조.
14. 마태복음 7:7 참조.
15. "Lean on My Ample Arm," *Hymns*, 120.
16. 빌립보서 4:7
17. 엘마서 58:11.
18. 헨리 비 아이어링,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17쪽.
19. "인간이 선택의지로", 찬송가, 175장.
20. 요한복음 7:17 참조.
21. 요한복음 15:11.
22.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23. "살아 계신 그리스도", 3쪽.



도널드 엘 홀스트롬 장로
칠십인 정의회

기적의 날이 그쳤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적인 기적에 궁극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일 년 전에 저는 임무를 받고 캘리포니아주로 가서 한 스테이크 회장과 함께 클라크와 홀리 페일즈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최근에 기적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자 클라크는 등과 목과 팔에 보호대를 찬 상태로 몸을 가까스로 일으키려 애썼습니다.

불과 두 달 전에 클라크는 그의 아들 타이를 비롯한 30명가량의 청소년 및 지도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의 하나인 4,322 미터 높이의 새스타 산 정상에 오르는 스테이크 고지 탐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된 하이킹의 둘째 날, 일행 대부분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몇 달에 걸쳐 준비했기에 가능했던 감동적인 성취였습니다.

클라크는 그날 정상에 가장 먼저 오른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클라크는 정상 가장자리에서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발을 헛디디며 뒤로 넘어져 12미터 높이의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이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얼음 덮인 산비탈을 따라 91미터가량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클라크는 살아남았으나 심각한 부상을 입어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클라크가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으며

경험하게 된 기적들은 그때 시작되었습니다. “때마침” 가장 먼저 그를 발견한 등산객 중 산악 구조 가이드와 긴급 의료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클라크가 쇼크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그의 몸에 담요를 덮어 몸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또 “때마침”, 이 등산객들은 새로운 통신 기기를 테스트하던 중이라 휴대 전화가 불통인 그 지역에서 긴급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 시간가량 떨어진 곳에서 작은 헬리콥터가 즉시 새스타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헬리콥터의 한계를

뛰어넘는 고도에서 위험한 착륙 시도를 두 번이나 실패한 후, 조종사는 위험한 바람과 맞서 싸우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했을 때 “때마침” 바람이 바뀌어 잠시 착륙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등산객들은 클라크를 조종사 좌석 뒤의 작은 칸에 신속하고도 힘겹게 끼워 넣었습니다.

외상센터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클라크는 목, 등, 늑골, 손목 등에 다수의 골절상을 입었고, 폐에 천공이 생겼으며, 온 몸이 베이고 굵힌 상처투성이였습니다. “때마침” 저명한 신경외상 전문의가 그날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일년에 단 몇 차례만 그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의사는 척수와 경동맥에 것처럼 심한 손상을 입고도 살아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후에 진술했습니다. 의료진은 클라크가 생존했을뿐만 아니라 원래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될 것이라 조심스레 예측했습니다. 자신이 불가지론자라고 밝힌 그 전문의는 클라크의 경우는 신경 손상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과학적 지식에 반한다며 오직 기적이란 말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클라크와 홀리가 전하는 이 강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지 확연히 드러난 이들 기적 때문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더 큰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 홀리, 그리고 거실에서 부모 곁에 모여 앉은 아름다운 다섯 자녀들 각자가 그 날 클라크에게 생긴 일의 결과가 어땠든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결과에 상관없이 여전히 영적으로 굳건할 그런 신앙을 지녔다는 깊은 인상을 영적 증거로 받았습니다. 클라크와 홀리 그리고 자녀들 중 큰 아이 둘인 타이와 포터가 오늘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페일즈 가족의 경험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저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앙으로 가득하고, 신권 축복도 받았으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약을 지키는 가운데 굳은 희망으로 생활하지만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후기 성도들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적어도 그들이 이해하는 방법으로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는 듯한 그런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년간이나 수십 년간 또는 평생토록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죽게 되는 아이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불과 두 달 전에, 성전 추천서를 가진 한 결혼한 부부가 전임 선교사인 세 명의 자녀들과 그의 다섯 자녀들과 함께 단거리 비행을 위해 소형 비행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이륙 전에 안전을 위해 기도했으며 기체에 심각한 기계적 문제가 생겨 추락하게 되었을 때에도 열렬하게 기도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선한 사람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물론이 제기했던 대로 “기적의 날이 그쳤느냐?”¹ 라고 물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제한적인 제 지식으로는 왜 때로는



신성한 개입이 있고 다른 때에는 없는 것인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이루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흔히 우리는 기적을 의학적으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치유되거나 분명한 영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비극적인 참사를 피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필멸의 존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능을 통해 오는 은혜로운 사건”²으로 정의한다면 더욱 확장된 시각을 가지고 더 영원한 성격의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정의를 바탕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신앙의 필수적인 역할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느 때라도 신앙을 갖기까지는 아무도 기적을 행하지 못하였나니.”³ 암몬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은 방편을 마련하사 사람이, 신앙을 통하여, 능한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⁴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무릇 나는 하나님이며, … 내 이름을 믿는 자 모두에게 기적…을 보여 주리라.”⁵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음과 같이 위협하며 자신이 신으로 내세운 금 신상을 경배하도록

강압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잘하지 아니하면 …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라.” 그런 다음 그는 조롱하며 물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⁶

이에 이 세 명의 헌신적인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⁷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실 수 있다는 완전한 확신을 가졌으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믿는 완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이 신권 축복을 요청하는 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물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젊은 나이에 죽어 영의 세계로 옮겨져 그곳에서 계속 봉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낫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신앙이 있습니까?”⁸ 우리는 이 지상의 고통에서 “낫지 않더라도” 영원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두는가?”입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우리의 신앙은 단지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거룩한 계획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확고히 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갖는다면 우리는 영원을 위해 준비해 나아가며 그분들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기적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기적입니다.⁹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육신을 받은 것은 기적입니다.¹⁰ 구주의 은사가 기적입니다.¹¹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기적입니다.¹² 영생을 얻을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¹³

필멸의 존재로 사는 동안 육체의 보호와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어질 수 있는 영적인 기적에 궁극적인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종과 국적이 무엇이든, 회개의 조건 아래 우리가 무엇을 했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우리 모두는 이런 기적을 얻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함께 살고 있으며, 더 많은 기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모로나이서 7:35.
2. *Encyclopedia of Mormonism* (1992), "Miracles," 2:908.
3. 이디서 12:18.
4. 모사이야서 8:18.
5. 교리와 성약 35:8.
6. 다니엘 3:15.
7. 다니엘 3:17~18.
8.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주님의 뜻과 그분이 정하신 시기를 받아들이는 것", *리아호나*, 2016년 8월호, 19~20쪽.
9. 시편 82:6; 사도행전 17:29 참조.
10. 아브라함서 4:26 참조.
11. 이사야 9:6 참조.
12. 마태복음 20:28; 엘마서 7:11~13; 교리와 성약 76:69 참조.
13. 요한복음 10:28; 모로나이서 7:41; 교리와 성약 45:8 참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는 교리와 의식과 성약을 비롯하여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의 염려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 가장 중요한 영원한 것을 등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와 매일 직면합니다.¹ 책임이 많고 일정이 바빠다 보면 중요한 영적 우선순위를 기억하고 그것에 계속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뛰려고만 하다 보니 어느 곳을 향해 왜 뛰고 있는지를 잊을 때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일을 다음과 같이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²

베드로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 필멸의 여정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왜 가고 있는지를 진정으로 일깨워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제 메시지를 통해 그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중요한 영적 약속을 기억하는 데 안식일, 거룩한 성전, 가정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 각각의 역할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는 동안 성신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침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는 교리와 의식과 성약을 비롯하여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을 규정하며, 우리가 배우고 변화하고 성장하여 마침내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 따라야 할 길을 알려 줍니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따라서 각각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 …

전세에서 영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로 알고 경배하였으며,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계획에 의하여 그의 자녀들은 육신을 얻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자신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³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마련하신 계획의 원리를 따르고,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모범을 따르며, 계명을 지키고, 신앙으로 끝까지 견딘다면, 구주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약속하십니다.⁴ 영생은 바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영적인 거듭남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과 덕으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이 소명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를 믿는 신앙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갈 때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신의 권능을 통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어지]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게 됩니다.⁵ 우리는 “거듭나[고] …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게 됩니다.⁶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⁷

그렇게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은 보통 순식간에 일어나지도 단숨에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구주처럼 우리도 “처음에는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나] 은혜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⁸ 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하리라. 내 교훈에 귀 기울이고 내 권고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지혜를 배울 것임이요.”⁹

신권 의식과 성스러운 성약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며, 우리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식을 합당하게 받고 항상 기억할 때, 그 의식은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 올 수 있는

하늘의 통로가 됩니다. 성약을 굳건히 지키고 항상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성약을 통해 현세와 영원에서 삶의 목적을 알게 되고 축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 예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충실할 때 신회의 세 번째 구성원인 성신과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¹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¹¹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¹² 그리고 구주께서 사망의 사슬을 끊으시고 무덤을 이기셨으므로,¹³ 가족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온전히 헤아리거나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약속된 축복을 일부만 보고도, 우리는 그 “사랑에 놀라며”,¹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앞드려 … 아버지를 경배”¹⁵하게 됩니다.

약속을 기억하며

로렌조 스노우 회장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멸의 육신을 얻도록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인, 위대한 인생의 목적과 부름받은 거룩한 소명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성스러운 도움이 역사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여 사소하고 덧없는 것들을 던고 일어서는 대신 자신을 세상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¹⁶

안식일과 거룩한 성전은 성스러운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근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수준을 넘어서고 타락을 이겨 낼 수 있도록 그것들을 마련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성전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서로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별개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이 완벽하게 동일하며, 둘은 개인과 가정을 영적으로 강화하고자 함께 작용한다고 믿습니다.

안식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일곱째 날에는 쉬셨으며, 우리도 일주일 중 하루는 다른 일을 하지 말고 쉬면서 그분을 기억하라고 명하셨습니다.¹⁷ 안식일은 하나님의 시간, 곧 **성스러운 시간**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받고 기억하는 시간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네 성찬을 바칠지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네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¹⁸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이 되면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배우고 받고 기억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거룩한 날에 보이는 생각과 행동, 태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표징이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표입니다.¹⁹

안식일의 또 다른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눈을 들고 더 높은 곳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스러운 시간 동안 바쁜 일과에서 벗어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²⁰

거룩한 성전

주님께서서는 항상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합당한 성도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복음과 관련된 성스러운 의례를 행하고, 자신과 죽은 자를 위한 의식을 행합니다. 성전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예배 장소입니다. 성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집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고 기억하도록 성별된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 경륜의 시대에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조직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세우라.”²¹ 성전 예배는 의식에 참여하고 성약을 배우고 받고 기억하는 데 주된 초점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다른 장소에 있을 때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차려입습니다.

성전의 주된 목적은 우리가 세상의 것에서 눈을 들어 더 높은 곳에 있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나마 익숙한 세상의 환경에서 벗어나 성전에 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고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습니다.²²

안식일과 성전은 각각 **성스러운 시간**과

성스러운 장소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주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받고 기억하기 위해 특별히
성별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두 가지 신성한 도움의 근원은
그 주된 목적이 완전히 같습니다. 즉,
안식일과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독생자, 성신, 그리고 구주의 회복된 복음의
의식 및 성약과 관련된 약속에 우리가
강력하게, 그리고 거둬하여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가정

가정은 개인과 가족이 하나님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가장 효과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궁극적인 조합이
되어야 합니다. 집을 나서서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고 성전의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의식에서 얻은
영과 힘을 가정으로 가지고 돌아와야만
지상 생활의 위대한 목적에 계속 집중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가정은 안식일과
성전에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우고, 그 교훈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성신의 임재하심과 권능을 느끼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끊임없이 개종하고, 개종에
깊이를 더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안에서 “희망의 완전한 밝은 빛”²³을 지닐 수
있습니다.

안식일과 성전은 우리 가정에 “더욱 좋은
길”²⁴ 마련하는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²⁵ 그분의 성스러운
시간에, 그분의 성스러운 장소에서 배운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일의
주축입니다.

약속과 간증

우리는 지상 생활 중 이어지는 평범한
일상에 쉽게 압도되곤 합니다. 자고 먹고
입고 일하고 놀고 운동하는 것은 물론 그 외
많은 일상적인 활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 성신에 관한 지식과
그분들에게서 기꺼이 배우겠다는 마음이
우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그저 매일 추구하는 무언가가 쌓여서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해야 할 여러 다른 일들을 나열해
놓은 점검 목록이라기보다는, 훑훑히 “서로
연결”되어 짜인 아름다운 진리의 웅단과도
같습니다.²⁶ 각각의 요소가 모여, 우리가
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적 진리가 세상의 염려, 문제,
무심함으로 빛을 잃을 때, 우리는 쫓대를
지나쳐 바라봄으로써 눈이 멀고 맙니다.²⁷

우리가 즐기워지고 성령을 우리의
인도자로 삼을진대,²⁸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리라고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영원한 운명을 이루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 성령은 “그리스도[를]
간증해 우리 맘[을] 비추”실 것입니다.²⁹

저는 의식 및 성약과 관련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확실하다는
점을 간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너희에게 주어 그것이
너희에게 돌이켜 너희 구원이 되게 하려
하노라.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³⁰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그분이 구원의 계획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독생자이시며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약속, 그리고 구주의
속죄와 성신의 동반하심을 통해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는 사실을 간증합니다.³¹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합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25:10 참조.
2. 베드로후서 1:3~4; 강조체 추가.
3.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4. 교리와 성약 14:7.
5. 모사이야서 5:2.
6. 모사이야서 27:25.
7. 고린도후서 5:17.
8. 교리와 성약 93:12.
9. 니파이후서 28:30.
10. 모로나이사서 2:2; 경전 안내서, “성신” scriptures.lds.org 참조.
11. 모사이야서 4:10~12 참조.
12. 교리와 성약 59:23 참조.
13. 모사이야서 16:7~8 참조.
14.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15. 교리와 성약 18:40.
1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로렌조 스노우*(2012), 102쪽.
17. 출애굽기 20:8~11 참조.
18. 교리와 성약 59:9~10.
19.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움 낳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쪽 참조.
20. 엘마서 37:47; 또한 엘마서 37:46 참조.
21. 교리와 성약 88:119.
22. 엘마서 37:47.
23. 니파이후서 31:20.
24. 고린도전서 12:31; 이터서 12:11.
25. 에베소서 1:10.
26. 에베소서 2:21.
27. 야꿈서 4:14.
28. 교리와 성약 45:57 참조.
29. “성령 인도 하시어”, 찬송가, 143장
30. 교리와 성약 82:9~10.
31. 교리와 성약 59:23.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주님께 향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19 98년 봄에 캐럴과 저는 네 자녀와 홀로 되신 지 얼마 안 되는 장모님을 모시고 며칠 동안 하와이로 출장 겸 가족 휴가를 다녀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와이로 떠나기 전날 밤, 4개월 된 아들 조너선이 중이염 진단을 받았고 최소한 사나흘 동안은 여행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캐럴이 조너선과 집에 남기로 했으며 저는 나머지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것은 제가 그리던 여행이 아닐 거라는 조짐이 보였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바다를 보며 달빛 아래 늘어선 야자나무 가로수길을 걷자니 섬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게 되었고, 그런 얘기를 나누려 그 로맨틱한 순간 옆으로 고개를 돌리니 제 아내 캐럴이 아닌 장모님이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제 장모님을 무척 사랑합니다만, 그건 제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몇몇이 아들과 함께 홀로 집에 남아 휴가를 보내기를 원치 않았던 것은 캐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그러진 휴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여 예상치 못한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 계획하거나 바라던 삶을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944년 6월 6일에 미 육군 소속의 젊은 소위였던 하이럼 섬웨이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수행하려 오마하 비치에 도착했습니다. 안전하게 상륙했지만 연합군에 속해 있던 그는 6월 27일에 대전차 지뢰가 터지는 바람에 심하게 부상을 입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생명과 의사로서의 미래가 송두리째 날아갈 지경에

제2차 세계대전에서 설명하게 된 하이럼 섬웨이는 그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과 주님께 대한 신뢰를 남겼다.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의 수술 후 심각한 부상에서 거의 회복되었지만 섬웨이 형제님의 시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재활 병원에서 3년을 보낸 그는 고향인 와이오밍주 리벌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려는 꿈이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앞으로 나아가, 결혼하고,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재활 상담자이자 시력 장애인을 위한 구직 전문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활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시력 장애인들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여기에서 일하면서 미국에서 시각 장애인들에게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찾아 준 상담자가 되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든 하이럼은 연인에게 이렇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그대가 편지를 읽어 주고, 양말을 정리해 주고, 차를 운전해 준다면, 나머지 일은 내가 다 하겠소.” 그들은 곧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받았으며 결국 여덟 자녀를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1954년에 섬웨이는 와이오밍주로 돌아왔으며 32년 동안 주 정부의 청각 및 시각 장애인 교육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 기간에 그는 7년 동안 사이언 제1와드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그 후 17년 동안 스테이크 축복사로 봉사했습니다. 은퇴

후에 섬웨이 형제 부부는 영국 런던 남 선교부에서 장년 부부 선교사로도 봉사했습니다.

많은 자녀, 손주, 증손주를 후손으로 둔 하이럼 섬웨이는 2011년 3월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신앙과 신뢰를 유산으로 남기고 삶을 마감했습니다.¹

하이럼 섬웨이의 삶은 전쟁으로 달라졌을지언정, 그는 자신의 신성한 속성과 영원한 잠재력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아들과 딸들인 우리는 “그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계획에 의하여 [우리는] 육신을 입고 지상 생활의 경험을 통하여 완전을 향해 발전하여 궁극적으로 영생의 상속자로서 [우리의] 신성한 운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² 우리가 선택 의지를 행사하여 내리는 결정 외에는, 어떠한 변화나 시련 또는 반대도 우리의 영원한 진로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필멸의 생애에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와 그 일환으로 겪는 어려움은 그 형태와 크기가 다양하며,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처럼 저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목격해 왔습니다.

-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 고통스러운 이혼.
- 결혼할 기회를 얻지 못함.
- 심각한 질병 또는 부상.
- 최근 전 세계에서 목격한 것과 같은 자연재해.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변화”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그에 따른 어려움 또는 시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을 통한 희망과 평화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다친 육신, 상처 입은 영, 상한 심령을 바로잡고 치유하는 궁극적인 수단을 제공합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개개인이 변화 가운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아십니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연민을 품으실 뿐 아니라 완전하게 공감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미 이를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고통을 겪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필멸의 생애에서 조우하게 될 모든 길을 걸으셨고, 모든 어려움을 겪으셨으며, 신체적, 정서적 또는 영적인 모든 상처를 감내하셨습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는 … 죄를 지은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주님을 … 받아들이고 따르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에 대한 약속까지 아우릅니다. 주님의 자비는 강력한 치유제이며, 그 대상은 무고하게 상처받은 이들도 포함됩니다.”³

우리는 필멸의 삶을 겪는 동안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삶의 변화를 대하는 방식은 분명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시련이 대수롭지 않다거나 다루거나 감당하기가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고통이나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기쁨, 빛, 행복으로 가득찬 더 보람찬 날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사이야서에서 노아 왕의 제사였던 엘마와 그의 백성이 “주께로부터 … 경고를 받고, 노아 왕의 군대보다 앞서 떠나 광야로 들어가” 8일 후에 “그들이 … 참으로 … 아름답고 쾌적한 땅[에 이르러]” 그곳에 “그들의 장막을 치고 땅을 갈기 시작하며 건물들을 짓기 시작하였”다는 기사를 읽습니다.⁴

그들의 앞길은 탄탄해 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주님께 봉사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맺고 침례받았습니다. 이에 “그들[은] … 땅에서 심히 번성하고 번영하였”습니다.⁵

하지만 이내 그들의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레이맨인의 한 군대가 그 땅 경계 안에 있는지라.”⁶ 엘마와 그의 백성은 곧 속박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들의 고난이 심히 컸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지배자들에게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라는 명을 받았으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⁷ 엘마와 그의 백성은 그런 상황을 초래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향했으며 “그에게 그 마음을 쏟아 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과 은밀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 내가 … 너희 어깨에 놓인 짐을 가볍게 하리니, …… 참으로 너희가 너희 등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이어 “주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사 그들로 쉽게 그들의 짐을 지게 하시며, 그들이 주의 모든 뜻에 즐거이 인내를 가지고 복종하였”습니다.⁸ 여전히 속박에서 풀려나지는 못했지만, 주님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 향함으로써 그들은 주님의 지혜에 따라 그들에게 필요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병 고침의 축복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아시는 대로 각 개인의 필요 사항에 맞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때때로 ‘병 고침’은 병 자체를 치유해 주기도 하고, 우리의 짐을 털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위에 놓여진 짐을 견디기 위한 힘이나 이해력 또는 인내가 주어짐으로써 ‘병 고침’을 받습니다.”⁹

궁극적으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내가 심히 크매” 주님께서 엘마와 그의 백성을 구해 내셨으며, 그들은 “감사를 쏟았으니, 이는 그들이 속박되어 있었고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아니였을진대 아무도 그들을 건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¹⁰

슬프게도,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도움의 완벽한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잘 알려진 늦봄에 관한 경전 기록은 어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이스라엘 자녀가 “나는 불뱀”¹¹에 물렸을 때 “한 예표가 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되었고], [그러나 이는 그들의 선택이었으니]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았느니라.

그러나 심히 완악하게 되어서 보려고 아나한 자들이 많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했습니다.¹²

고대 이스라엘인들처럼 우리도 구주를 보고 살도록 권고받습니다. 그분의 명에는 쉽고 그분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명에와 짐은 무겁더라도 말입니다.

엘마 이세는 이 성스러운 진리를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이는 내가 알거니와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시련과 그 곤경과 그 고난 중에 받들어 주심을 얻을 것이요, 마지막 날에 들리움을 받을 것임이니라.”¹³

이 후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수많은 자원, 즉 우리만의 “늦봄”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삶의 고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무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에 집중할지를 정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기초 위에 서야 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 정기적으로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한다.
- 자주 진지한 기도와 금식을 한다.
-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
- 정기적으로 성전을 방문한다.
- 신권 축복.
- 훈련받은 전문가를 통해 현명한 권고를 받는다.
- 올바르게 처방되고 인가된 의약품을 사용한다.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또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경로로 삶이 흘러가더라도, 그에 대처하는 방법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구주께로 향하고 그분이 내미신 팔을 꼭 붙잡는 것이 언제나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께서 이 영원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힘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동반한, 진실로 영원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중심을 둔 생활에서 옵니다. … 결과에 대한 보상은 바로 주어지지 않지만, 주님의 시간에 따라 해결책이 나오고 평화가 퍼지고 공허함이 채워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¹⁴

이 진리에 대한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하이럼 스미스 섬웨이의 후손인 조셉 섬웨이에게서 직접 받은 역사 기록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보이드 케이 페커, “우리 희망의 근원”, *리야호나*, 2014년 11월호.
4. 모사이야서 23:1~5.
5. 모사이야서 23:20.
6. 모사이야서 23:25.
7. 모사이야서 24:10~11.
8. 모사이야서 24:12~15.
9. 델린 에이치 옥스, “무거운 짐 진 자들을 고치심”, *리야호나*, 2006년 11월호
10. 모사이야서 24:16, 21, 22.
11. 니파이전서 17:41.
12. 엘마서 33:19~20
13. 엘마서 36:3.
14. 리차드 지 스코트, “주님을 신뢰함”, *성도의 빛*, 1996년 1월호, 17쪽.



더블유 크레이그 즈윅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주여, 당신께서 제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구주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보아야 합니다.

라 이언 킹은 아프리카 대초원에 관한 대표적인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선왕이 아들을 구하고 죽자 어린 왕자는 쫓겨나고 포악한 새 왕은 대초원의 균형을 파괴합니다. 어린 사자는 조연자의 도움으로 왕국을 되찾습니다. 그는 대초원의 거대한 삶의 순환 고리에 필요한 균형에 눈을 뜨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되찾는 과정에서 어린 사자는 “마음의 눈으로 보라”는 조언을 받습니다.¹

우리는, 우리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에 대한 상속자가 되는 법을 배우며, 복음을 통해 보이는 것 이상을 보라는 가르침을 얻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구주의 눈으로 다른 이들을 보아야만 합니다. 복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은 물론 교회 회원들, 심지어 가족조차도 완전히 다 알지는 못하므로 그들이 내리는 결정과 심리적 배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경솔한 추측과 고정 관념을 넘어 우리 자신의 경험에 국한된 좁은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저는 30년 전에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는” 시야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불안이 가득한 젊은 선교사가 도착했습니다. 접견하는 동안 그는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음, 해결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한 후에 제게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그가 전화를 했는데 여전히 집에 가고 싶어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에게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하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접견에서도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집에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를 집에 돌려보내지 않을 작정이었기에, 저는 그에게 그가 받은 부름의 성스러운 본질에 대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신을 잊고 나가서 봉사하라”고 격려했습니다.² 하지만 제가 제시한 어떤 방법도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이런 질문을 해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장로님,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요?” 그가 한 말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회장님, 저는 입을 줄 모릅니다.”

제가 그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여긴 현명한 권고는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가 제게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대신, 영의 도움을 받아 그 장로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제가 그를 올바르게 보고 희망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신경하게 그를 상처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용감한 장로는 읽는 법을 배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사무엘상 16:7)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눈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시야를 넓혀 주시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선지자 엘리사가 잠에서 깨어 아람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둘러싼 것을 보았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사환이 두려워하며 엘리사에게 그런 난관에 처했으니 어찌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 하고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열왕기하 6:16) 사환은 선지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수많은 천군이 선지자의 백성을 위해 싸울 준비를 갖춘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주님께 간구하여 그 청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열왕기하 6:17)

우리는 종종 의견상의 차이점으로 우리와 다른 이들을 구분짓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옷 입고 행동하는 방식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과 함께할 때 편안함을 느끼며 환경이나 배경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실제로 우리는 모두 다른 나라 출신이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극히 제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선지자 엘리사와 같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제가 문맹인 선교사와 경험했던 것처럼 육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소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와 비난, 결점 찾기와 꼬리표 붙이기가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의 렌즈를 통해 자신을 보는 대신,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는 신의 속성을 찾기 위해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성한 특성과 열망은 핀터레스트나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사상까지도 수용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진리에 가장 충실해야 하지만, 그로 인해 친절함을 잃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진실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코 온전히 알 수 없을 경험과 제약을 지닌

그들이 기울인 최선의 노력을 계속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보려면 의식적으로 구주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2016년 5월 28일, 열여섯 살인 보우리치와 그의 친구인 오스틴은 콜로라도에 있는 가족 농장에 있었습니다. 보우와 오스틴은 종일 신나는 모험을 할 기대에 부풀어 각자의 4륜 산악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상황이 위태로워졌고, 비극이 닥쳤습니다. 보우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전복되면서 보우가 180킬로그램이 넘는 쇳덩어리에 깔려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친구 오스틴이 도착했을 때 보우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오스틴은 모든 힘을 짜내어 친구를 오토바이 밑에서 꺼내려 했지만 오토바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우를 위해 기도한 다음, 정신없이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마침내 구조대원이 도착했으나 몇 시간 뒤 보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필멸의 삶을 마친 것입니다.

망연자실한 그의 부모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보우의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 작은 병실에서 있을 때 한 경찰관이 들어와 보우의 휴대전화를 어머니에게 전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받아들자 알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열어 보우의 알람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잘 놀고 모험을 즐기던 십 대 아들이 매일 읽으려고 설정해 놓은 메시지를 소리 내어 읽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네 삶의 중심에 둘 것을 기억하자.”

보우가 그의 구속주에게 초점을 맞추었다 해서 그의 부재를 느끼는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는 보우의 삶과 선택에 큰 희망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그 메시지를 통해 그의 때 이른 죽음에 대한 슬픔을 넘어 다음 생애 실재하는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눈을 통해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본 일은 보우의 부모에게 얼마나 깊은 자비입니까!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필멸의



눈으로만 바라보며 구원에서 멀어질 때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개인적인 영적 알람을 은사로 받았습니다. 성찬식은 우리가 매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상기해 주어 우리가 항상 그를 기억하고 항상 그의 영광 함께하도록 해줍니다.(교리와 성약 20:77 참조)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이런 암시와 경고의 느낌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둘 때, 그분은 우리가 혼자서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보도록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충실한 자매님에게서 자신이 받은 보호 경고에 관한 재미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에게 자기 감정을 이해시키려고, 자신에게 거슬렸던 남편의 말과 행동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적당한 때에 모아 놓은 증거 자료를 남편에게 보여 주어 남편이 자신의 방식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려고 했답니다. 하지만 어느 일요일 성찬을 취하며 구주의 속죄에 집중하는 동안, 그녀는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기록하는 것이 자신을 영에서 멀어지게 하며 남편을 결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영적인 알람이 울렸고, “더는 문제 삼지 말자. 모두 너그럽게 생각하자.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메모를 삭제해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모두 선택’을 누르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삭제’를 누르는 데에는 시간이 더 걸렸죠. 하지만 전부 다 지우자, 모든 부정적인 느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제 마음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처럼, 그녀의 시각이 달라졌습니다. 왜곡의 비늘이 그녀의 눈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구주께서는 자주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신성한 진리에 눈을 뜨는 일은 우리가 필멸의 근시안을 고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삶의 궤도를



수정하거나 더 넓은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알려 주는 영적인 “알람”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성찬의 약속에 따라 주님의 영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조셉과 올리버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강력한 진리들을 가르침 받을 때 있어났습니다. 주님은 필멸의 한계라는 “휘장”이 “[그들의] 마음에서 걷히고 [그들의] 이해의 눈이 열[리리라]”(교리와 성약 110:1)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우리가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해하는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위대한 실재하심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더욱 강하게 새겨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라이온 킹 1과 1/2(2004); 북미 외 지역에서는 라이온 킹 3으로 출시됨.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고든 비 힝클리(2016), 201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의 반석 위에 신앙으로 설 때 의심과 두려움은 힘을 잃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은 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하는 동안 주님의 영이 저희와 함께하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제 마음은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분의 교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 대회에서 간절한 기도와 영감에 찬 말씀과 천사들의 노래와 같은 합창을 들으며 영감을 느낄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4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저를 비롯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습니다. 몬슨 회장은 몰몬경의 힘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가르침을 공부하고, 숙고하며, 삶에 적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매일 시간을 바쳐 몰몬경을 공부하고 숙고하며 그 안에 담긴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그 책이 참되다는 중대한 간증을 얻을 것이고,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다는 간증을 또한 얻게 될 것이며, 바로 그 간증이 시련의 시기에 우리가 무사히 견디도록 도와주리라고 하셨습니다. (“몰몬경의 권능”, 리야호나, 2017년 5월호, 86~87쪽 참조)

여러분처럼 저도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음성이 제게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몰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아버지와 아들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고대 사도들이 선지자 조셉에게 주님의 교회의

신권 열쇠를 회복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을 지니고 지난 50여 년간 매일 몰몬경을 읽어 왔습니다. 그래서 몬슨 회장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나 해당한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이 그러셨겠지만 저는 선지자의 격려와 약속이 제게 더 많이 노력하라는 권유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이 저와 같이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더욱 간절히 기도했고, 경전을 더욱 열심히 숙고했으며, 주님과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더욱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선지자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영감 어린 권고를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신 분들은 영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유혹을 이겨 낼 힘이 더욱 강해졌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살아 있는 교회에 대한 신앙이 더욱 커졌습니다.

우리는 이 격동의 시기에 더욱 강한 간증의 힘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 쫓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몬슨 회장의 권고를 따랐을 때 세계는 경이로운 변화가 두 가지 더 있었습니다. 첫째, 회장님께서 우리가



받으리라 약속하셨던 영에 힘입어, 점점 더 동요하는 이 세상에서도 낙관적으로 미래를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구하려는 소망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소망은 몬슨 회장의 봉사와 가르침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눈앞의 임무를 벅차게 느꼈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반석으로 믿는 신앙이 있으면 필요한 용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아,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대로 거둘 것임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선을 심으면, 또한 보상으로 선을 거두리라.

그러므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선을 행하라. 땅과 지옥이 연합하여 너희를 대적하게 하라.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을진대, 그들이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라.

보라,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의 길을 가고 다니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일을 진지하게 수행하라.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

내 옆구리를 찌른 상처와 또한 내 손과 발에 있는 못 자국을 보라. 충실하라.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는 천국을 상속받으리라.”(교리와 성약 6:33~37)

주님께서 회복을 이끈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반석 위에 신앙으로 서면 의심과 두려움은 힘을 잃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망은 커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몬슨 회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 자신의 필요에 대한 걱정은 접어 둔 채 다른 이들을 구조하려 할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습니다.



저는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 이러한 신앙과 용기가 발현되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한 예로, 1976년 6월 5일 티턴 댐이 무너졌을 당시 저는 아이다호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방류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버리고 대피했습니다. 수천 채의 가옥과 사업체가 파손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사망자의 수는 15명 이하에 그쳤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후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간증의 반석 위에 굳게 설 때마다 보여 왔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지켜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구하려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무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티턴 댐이 붕괴했을 때 한 후기 성도 부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여행 중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렉스버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이 파손되었는지 살펴보러 가는 대신에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감독님은 구조 본부로 사용 중인 건물에 계셨는데 노란 스쿨버스를 타고 몰려드는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진두지휘하고 계셨습니다.

그 부부는 감독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막 돌아왔습니다. 감독님, 어디부터 갈까요?” 감독님은 도와야 할 가족의 명단을 주었습니다. 그 부부는

집집마다 다니며 진흙과 물을 퍼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날을 그렇게 일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잠시 짬을 내어 자신들의 집을 살피러 가 보았습니다. 집은 홍수에 쓸려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치울 것조차 없었기에 그 부부는 곧바로 몸을 돌려 감독님에게 돌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또 도와드릴 사람이 있나요?”

그 침착한 용기와 사랑, 바로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기적은 수년간 세계 곳곳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러한 기적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미주리에서 박해와 시련을 겪던 고난의 시절에도 있었으며, 브리검 영이 성도들을 나부에서 데리고 나온 뒤 서부의 불모의 땅으로 가서 힘을 합쳐 주님의 시온을 세울 것을 선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개척자들의 일지에는 신앙의 기적으로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버려두고 다른 사람을 도운 후에야 자신의 양 떼에게로 돌아가거나 밭을 경작하려 갔던 성도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불과 며칠 전, 태풍 어마가 휩쓸고 간 푸에르토리코와 세인트토머스, 플로리다주에서 그와 같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후기 성도들은 다른 교회, 지역 사회 단체, 국가 기관과 힘을 합쳐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렉스버그의 그 부부처럼 플로리다에 사는 한 비회원 부부는 자신들의 집을 복구하는 대신 지역 사회를 돕는 일에 더욱 전념했습니다.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쓰러져 그 부부의 집 차고 앞 길을 막고 있는 것을 본 후기 성도 이웃들이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 부부는 자신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주님께서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교회 회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아내와 함께 기도했으며, 도움을 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응답을 받은 후 몇 시간 만에 도움의 손길이 온 것입니다.

노란색 도움의 손길 티셔츠를 입은 후기 성도들을 “노란 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한

후기 성도는 자신의 차를 고치려고 정비소에 갔다가 그곳에서 일하던 남성의 “영적 경험”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노란 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 마당에 쓰러진 나무들을 치워 주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관한 어떤 노래를 불러 주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비회원인 또 다른 플로리다 주민은 피해를 입은 마당을 손보며 좌절스럽고 화가 치밀어 눈물이 나려고 하던 차에 후기 성도들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원봉사자들은 “완전한 기적”을 만들어 냈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봉사자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토요일 밤 플로리다주를 방문했을 때 만났던 후기 성도 봉사자들에게서도 똑같은 성실함과 웃음을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저와 악수를 나눌 동안만 일손을 멈췄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스테이크에서 온 90명의 회원들은 바로 전날 밤에 플로리다 구조 활동에 참여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새벽 네 시에 조지아주를 출발한 이들은 몇 시간을 차를 몰아 현장에 도착했고, 늦은 밤까지 일손을 도왔으며 그다음 날에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전하는 중에도 그들은 웃음과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업 현장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감사 인사는 그만 받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희가 다음 구조 팀에게 가기 위해 차에 올라탈 때 스테이크 회장은 이미 전기톱을 켜고 쓰러진 나무를 처리하는 중이었고 감독 한 명은 큰 나뭇가지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또 다른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을 떠나려는데 한 남자가 저희가 탄 차로 다가오더니 모자를 벗고 저희에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의 회원은 아닙니다만, 저희를 위해 해 주신 일에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서 있던 노란 셔츠를 입은 한 후기 성도 회원은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짓더니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는 듯 어깨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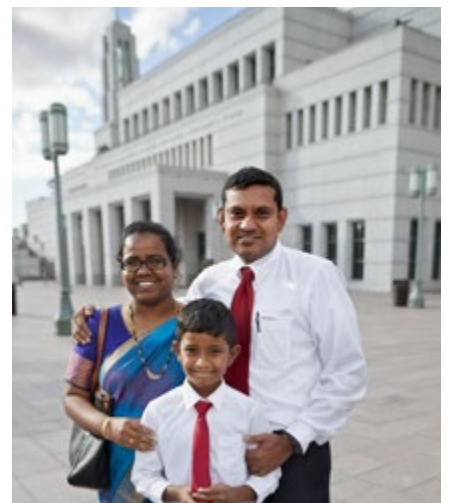
으쓱했습니다.

봉사자들이 조지아주에서 그곳까지 와서 이 남성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듯이, 피해를 입은 바로 그 플로리다 지역의 후기 성도 수백 명은 플로리다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먼 길을 내려갔습니다.

그날 저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남긴 예언적 말씀이 떠올랐고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가족만 축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폭을 전 세계로 넓혀 온 인류를 축복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426쪽)

우리는 도처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삶에서 그러한 사랑을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때마다 후기 성도들은 기부와 자원봉사로 교회의 인도주의적 활동에 동참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필요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봉사 희망자들에게 작업 지휘자들이 그들을 수용할 준비가 될 때까지 복구 현장으로 가지 말고 기다리라고 요청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베풀고자 하는 소망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그분의 회복된 교회, 그리고 그분의 선지자에 대한 간증을 지니면 얻게 되는 결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의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와 함께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들이 청소년들에게 몬슨 회장님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물몬경을 심도 있게 공부하라고 권유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결심은 지도자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청소년을 비롯한 회원들이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것입니다. 신앙을 행동으로 옮길 때, 사심 없는 희생이 요구되며, 이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계속하여 선지자의 권고를 따를 때만 지속됩니다. 이러한 노력이 일회성에 그친다면 그 변화의 효력은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간증과, 그분의 참된 교회에서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다는 간증을 키워 왔습니다. 그 자라난 간증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을 더욱 염려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기회는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날의 상세한 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에 닥칠 대략적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온 땅이 동요하게 될 것을 압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충실한 후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압니다.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참된 제자들이 그분을 영접하기에 합당하게 되고 준비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신앙과 용기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다음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위대하고 힘든 일을 해야 할 것이므로 더욱 강하고 용감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 영혼의 적으로부터 더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긍정적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언해 주셨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 몬슨 회장님께서는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물몬경과 선지자의 말씀을 숙고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마음의 힘을 다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인 사랑의 은사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모로나이서 7:47~48 참조) 그리고 무엇보다, 선지자의 권고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이 어려울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자주 인용하시며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구주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교리와 성약 84:88)

저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행할 때면 언제나 주님께서 여러분에 앞서가심을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때로 다른 사람을 받쳐 주도록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천사가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을 받쳐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매년 성찬식에서 약속받듯이 그분의 영은 언제나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상의 하나님 왕국에 더 밝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시대부터 그러했듯이, 반대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나가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이들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이 당신이 계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비롯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삶에서 그분을 따르고, 또한 타인을 위한 봉사에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께 제 간증과 축복과 사랑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의회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여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백 칠십 년 전, 브리검 영은 솔트레이크 밸리를 처음 내다보고서 “이곳이

그곳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¹ 그는 주님의 계시를 통해 그곳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1869년까지 칠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길을 따랐습니다. 언어와 문화와 국적은 달랐지만 그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복에 대한 간증이 있었으며, 구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평화와 행복과 아름다움의 장소로서의 시온을 건설하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유타에 처음 도착한 성도들 중 제인 매닝 제임스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노예의 딸이었던 그녀는 회복된 교회의 개종자였으며 험난한 시련에 맞선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제임스 자매는 1908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후기 성도로 충실하게 생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통해 발전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제 현재의 신앙은 처음 침례받았던 날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십일조와 헌물을 바치고, 지혜의 말씀을 지키며,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미약하지만 제 나름의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²

다른 많은 후기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제임스 자매님은 땀과 피와 눈물로 시온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위대한 치유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신앙으로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 원리를 따름으로써 주님의 축복을 구하였습니다.

초기 성도들은 완벽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가정을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성약을 사랑하고 지키는 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제인 매닝 제임스는 혹독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충실한 후기 성도로 남았다.

우리의 헌신과, 가깝거나 멀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봉사하는 우리의 노력을 통해 그들이 건설한 이 사회의 모습이 전 세계 다양한 뉴스 기사를 통해 조명되곤 합니다.³

아이어링 회장님, 텍사스, 멕시코 및 다른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수많은 노란 셔츠를 입은 천사들에게 저 역시 감사와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척자 선조들을 포함하여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에 대한 유대를 잃는다면 아주 귀한 보물을 잃게 될 것임을 저는 깊이 확신합니다. 저는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있어야 함에 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초기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지녔던 것과 같은 신앙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⁴

제 조상 중에도 손수레를 끌고, 마차를 타고, 걸어서 유타로 왔던 충실한 개척자들이 제입니다. 제인 매닝 제임스 자매님처럼 그분들도 자신들의 여정을 밟아 가며 모든 발자취에 깊은 신앙을 남겼습니다.

그분들이 남긴 일지에는 고난과 주림, 질병에 대한 묘사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의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은 거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형제애와 자매애를 통해 풍성한 축복을 누렸습니다. 할 수 있을 때는 서로에 대한 봉사와 하나님의 신권을 통해 짓밟힌 자들을 일으켜 세우고 병든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유타주 캐시 벨리의 자매님들은 상호부조회의 영으로 “궁핍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단합하여 일”하며 성도들을 보살폈습니다.⁵ 제 증조모인 마거릿 맥닐 벨라드는 40년 동안 로건2와드 감독으로

봉사한 남편 헨리 곁에서 그를 도우며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으로 봉사하며, 병들고 궁핍한 이들과 남편 또는 부모를 잃은 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으며, 시신에 깨끗한 성전복으로 수의를 입히는 일까지 했습니다.

19세기 물론 개척자들이 걸었던 역사적 여정을 기억하는 일은 마땅하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여정은 일생 동안 계속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모든 발자취[에] 신앙이” 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새로운 개종자들은 예전처럼 미국 서부 개척자 정착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 대신, 각자의 지역에 모여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전 세계 3만여 곳에서, 자신들의 시온에 함께 모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온은 이것이니—마음이 청결한 자라.”⁶

인생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주님께서] 명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지켜 행하”는지 보기 위해 시험을 받습니다.⁷

많은 이들이 개인적 성취와 영적 깨우침으로 이어지는 멋진 발견의 여정을 밟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슬픔, 죄, 괴로움, 낙담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보십시오. 나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가? 내 발걸음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가? 나는 구주께서 약속하신 “많은 복”으로 향해 가는 여정을 밟고 있는가?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는 길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우며 우리는 이 여정을 매일, 매주, 매달, 그리고 매년 계속 나아갑니다.



삶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물음에 답으로 주신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⁹

오늘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전에 하셨던 권고를 다시 한 번 전하고자 합니다.

-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리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그리고 교리를 변경하려는 자들에게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복음은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 교회 부름에 성임되거나 성별되지 않고 교회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인정되지 않은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¹⁰
- 현재 사도 및 선지자들이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적

의문이 있다고 하며, 이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조직, 단체 또는 개인을 주의하십시오.

- 일확천금을 버는 방법으로 피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많은 돈을 잃은 회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어떤 곳에서는 풋대를 지나쳐 바라보며, 치유와 도움을 얻기 위해 값비싸고 의심스러운 관행에서 은밀한 지식을 구하는 회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년 전, 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에게 돈을 대가로 기적적인 치유를 약속하거나, 합당하게 성임된 신권 소유자 외에도 치유의 힘을 얻을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단체 가담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당부합니다.”¹¹

교회 지침서에는 이러한 권고가 나와 있습니다. “회원들은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의료 또는 보건 행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현지 지도자는 건강 문제가 있는 회원들에게 현재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 국가에서 발급된 면허를



축복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복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따를 때, 영원한 기쁨과 평안, 즉 영생이 약속됩니다. 우리 힘과 기운과 간증으로 선교사들을 도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가르치고, 침례하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이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복음 교리의 힘을 지닐 수 있도록 합시다.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용하고 인종 차별, 성차별, 국수주의 등 어떠한 편견도 지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축복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것임을 참으로 믿습니다.

저는 “여정은 계속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과 동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도우며 계속 전진하여 복음 길에 남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단합하여 마음을 청결케 하고 손을 깨끗이 하여 진실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을 나누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자 모두에게 약속된 “많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Brigham Young, as remembered by Wilford Woodruff, in *The Utah Pioneers* (1880), 23.
2. Jane Manning James autobiography, ca. 1902, Church History Library, Salt Lake City; see also James Goldberg, “The Autobiography of Jane Manning James,” Dec. 11, 2013, history.lds.org.
3. 예를 들어, Jill DiSanto, “Penn Research Shows That Mormons Are Generous and Active in Helping Others,” *Penn News*, Apr. 17, 2012 참조.
4. 엠 러셀 벨라드, “모든 발자취엔 신앙이”, *리아호나*, 1997년 1월호 참조.
5. “상호부조회의 목적”, lds.org/callings/relief-society/purposes; 또한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9.1.1 참조.
6. 교리와 성약 97:21.
7. 교리와 성약 97:25.
8. 교리와 성약 97:28.
9. 마태복음 24:3-4.
10. 교리와 성약 26:2; 28:13; 43:6-7 참조.
11. Church spokesman Eric Hawkins, in Daniel Woodruff, “The Business behind Christ-Centered Energy Healing,” Sept. 28, 2016, kutv.com.
12. *지침서 제2권*, 21.3.6.

소지한 유능한 전문적인 의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해야 한다.”¹²

형제 자매 여러분, 현명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러한 것들이 감정적으로 끌릴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영과 육에 유해하다고 밝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개척자 선조들에게 독립과 자립은 필수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공동체라는 개념 역시 이에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그 시대의 정신적 육체적 고난을 극복하도록 서로 도왔습니다. 남성들에게는 신권 정원회가, 여성들에게는 상호부조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부조회와 신권 정원회는 우리 회원들의 영적 현세적 복리를 추구합니다.

“모든 발자취[에] 신앙”을 지니고 복음의 길에 남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소중한 구주이시며, 세상의 구속주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분의 성스러운 이름을 영예롭게 해야 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그릇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당부합니다. 지금 자신만의 여정을 밟아 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따듯이 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 여정의 어떠한 단계에 계시든 말입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태드 알 콜리스터
본부 주일학교 회장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 몰몬경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지자로서의 조셉 스미스의 부름, 그리고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참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몰몬경은 우리 종교의 종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간증의 종석이기도, 시련이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 우리의 간증을 확고하게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진리의 저울에서 한쪽 접시에 놓여 있으며 비평가들의 주장을 모두 합쳐 놓은 반대쪽 접시의 무게를 능가합니다. 왜일까요? 반대되는 어떠한 역사적 주장이나 다른 주장에도 불구하고 몰몬경이 참된다면, 조셉 스미스는 선지자였으며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비평가들은 몰몬경이 그릇되었음을 증명하는 데 여념이 없지만, 넘을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치고 맙니다. 몰몬경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비평가들은 농장에서 자라고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23세의 조셉 스미스가 어떻게 수백 가지의 독특한 이름과 장소, 자세한 이야기와 사건이 담긴 책을 지어낼 수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비평가들은 조셉이 창의적인 천재였으며 수많은 책과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기타 자료를 기반으로 몰몬경의 역사적

내용을 지어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셉이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사 그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몰몬경의 존재를 설명하기에는 애처로울 정도로 부족합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다음 질문에도

답해야 합니다. 조셉은 어떻게 그런 자료를 다 읽어 보고, 관련이 없는 것은 걸러내고, 누가 어디에 언제 살았는지와 같은 복잡한 사실들을 일관성 있게 서술하고, 완벽하게 기억하여 몰몬경을 구술했는가? 몰몬경을 번역할 때, 조셉 스미스는 아무런 메모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아내 에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는 원고나 책을 가지고 읽어준 것이 아니다. ... 그에게 그런 것이 있었다면, 내게 숨길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셉은 아무런 메모도 없이 500페이지가 넘는 책을 구술하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그는 창의적인 천재여야 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분량을 사진처럼 완벽하게 찍어내는 기억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평가들은 왜 이 놀라운 재능에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한 주장은 이 책의 역사적인 내용만을 설명합니다. 진짜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조셉은 영과 교감하는 책을 어떻게 만들어 냈으며, 그토록 심오한





교리를 어디에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그 교리 다수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바를 명확하게 해 주거나 또는 그런 믿음과 상충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기독교적 믿음과는 반대로, 몰몬경은 아담의 타락이 긍정적인 발전의 한 단계였다고 가르칩니다. 몰몬경에 나오는 침례 성약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를 통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하신다는 엄청난 통찰력을 조셉은 어디에서 얻었는가? 조셉은 엘마서 32장에 나오는 신앙에 관한 놀라운 가르침을 어디에서 알게 되었는가? 또는, 어쩌면 모든 경전을 통틀어 구주의 속죄에 관하여 가장 놀라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왕의 가르침은 어디에서 알게 된 것인가? 또는, 복잡하고 풍부한 교리가 담긴 감람나무의 비유는 어디에서 알게 된 것인가? 이 비유를 읽을 때 저는 그 복잡한 내용을 따라가기 위해 도해를 그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가 메모 같은 것도 없이 머리에서 나오는 대로 이러한 가르침을 구술했다고 믿어야 합니까?

그러한 결론과 달리, 몰몬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손길이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으며, 중대한 교리적 진리,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한 뛰어난 가르침이 이를 입증합니다.

만일 조셉이 선지자가 아니라면, 비평가들은 이런 진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놀라운 교리적 통찰력을 설명하기 위해 조셉이 신학적으로도 천재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역 이후 18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조셉만이 이 독특하고도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 주는 교리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낸 유일한 사람이었는가? 그 이유는 이 책의 근원은 천재성이 아니라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셉이 창의적이고 신학적으로 천재였으며 사진처럼 정확한 기억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면 하더라도, 이러한 재능만으로는 숙련된 작가가 되지 못합니다. 몰몬경의 존재를 설명하려면, 비평가들은 또한 조셉이 23세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작가였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수많은 이름과, 장소, 사건을 일관성을 유지하며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엮어 냈겠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감명적인 설교를 지어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표시해 두고, 암송하고, 인용하며, 냉장고 문에 붙여놓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이라]”(모사이야서 2:17) 혹은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와(니파이후서 2:25) 같은 구절을 만들어 냈겠습니까? 이러한 구절은 심장을 고동치게 하는 메시지, 곧 살아 숨 쉬고 영감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23세의 조셉 스미스가 약 65일 동안 이 기념비적인 작품을 단번에 쓸 수 있는 재주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경험 많고 숙련된 작가인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최근 연차 대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40번 넘게 고쳐 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셉 스미스가 혼자서 몰몬경 전체를 단번에 구술한 다음, 주로 사소한 문법적 변경만 더했다고 믿어야 합니까?

조셉의 아내 에머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청년이었던]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과 같은 책을 구술하기는커녕 편지 한 장조차도 분명하고 조리 있게 쓰거나 받아쓰지 못했다.”²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덥지 못한 주장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비평가들은 또 다른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조셉은 몰몬경이 금판에 쓰여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가 살던 시기에 끊임없이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고대 역사는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누구나” 아는 기정사실이였기 때문입니다. 고대 문자가 담긴 금속판이 발견된 것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또한, 비평가들은 몰몬경에 설명된 시멘트의 사용은 이 초기 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사람들의 기술적 전문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시멘트 건축물이 고대 아메리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비평가들은 이와 같은 예상 밖의 발견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조셉은 또한 매우 운이 좋고 추측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 불리한 형세였고, 기존의 모든 과학 및 학술적 지식과도 반대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틀렸을 때 그는 제대로 추측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요소와 힘이 우연히 결합되어 비평가들이 말했듯 조셉이 몰몬경을 쓰고 악마의 사기 작품을 만들어냈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러한 주장과 정반대로, 이 책은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사탄을 물리치고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어 왔습니다.

비평가들의 추리를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게 있어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영적인 발전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으려면,

증명되지 않은 추측을 계속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열한 명의 증인 모두의 간증을 무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는 날까지도 그 간증에 충실하게 남아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이 성스러운 책 한 장 한 장을 천상의 진리로 채운 신성한 교리를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그 어느 책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이 책이 참됨을 확증해 주는 성신의 속삭임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참되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에 어긋납니다.

충만한 제 가까운 친구 한 명은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에 교회로 돌아왔다는 편지를 제게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몰몬경이 역사적, 지리적, 언어적,

문화적으로 증명이 되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몰몬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구원 사명에 관한 가르침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것이 참되다는 간증을 얻기 시작했지. 어느 날, 내 방에서 몰몬경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는 무릎을 꿇고,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 교회와 몰몬경이 분명히 참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에 속삭여 주시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네. 삼 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이 교회를 다시 알아보고서야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온 마음으로 확신하게 되었어.”

제 친구처럼 시간을 내어 겸손히 몰몬경을 읽고, 숙고하고, 성령의 감미로운 열매에 귀를 기울인다면, 결국 원하는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진 선물 중 하나입니다. 몰몬경은 겸이며 방패입니다. 몰몬경은 정의로운 사람들을 위해 싸우도록 전쟁터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며 진리의 주된 방어자 역할을 합니다.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몰몬경을 옹호할 특권은 물론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회, 즉 몰몬경의 신성한 교리를 권능으로 가르치고 몰몬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임을 간증할 기회도 있습니다.

몰몬경이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되었음을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몰몬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선지자로서의 조셉 스미스의 부름, 그리고 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참됨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몰몬경이 우리 간증의 종석이 되어, 개심한 레이맨인들이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였”듯이(앨마서 23:6)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Emma Smith, in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Saints' Herald*, Oct. 1, 1879, 289, 290.
2. Emma Smith, in "Last Testimony of Sister Emma," 290.
3. 몰몬경 "세 증인의 증언"과 "여덟 증인의 증언" 참조.





조니 엘 코흐 장로
칠십인 정원회

함께 있지 않을 때도 하나가 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19 94년 6월, 저는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 대표 축구팀의 TV 중계 경기를 보겠다는 일념으로 직장에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시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멀리 인도 위에서 한 남성이 브라질 국기로 장식한 휠체어를 타고 길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도 그 경기를 보려고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차로에 이르러 그분과 눈이 마주쳤고,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남성과 강한 유대감을 느꼈습시다. 방향도 달랐고,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며, 사회적 신체적 상황도 분명 달랐지만, 축구에 대한 열정과 애국심만은 같았기에 그 순간 저는 마치 그분과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눈동자가 생생히 떠오르며 그때 느꼈던 강한 유대감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브라질은 그 경기에서 승리했고 월드컵에서 우승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더라도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되라. 만일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의 것이 아니니라.”¹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가 함께 예배할 때, 인종, 사회적 지위, 정치적 선호, 학문적 성취, 직업적 성과 등의 차이를 뒤로하고 공동의 영적인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성찬식이 집행되는 동안 똑같은 성약을 상고하며, 말씀과 공과, 기도가 끝날 때면 다 같이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나는 것들에 모두가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는 회중 속에서 강한 일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의 단합을 강화하거나 약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 회원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결국 일상에서 서로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에 관해 어떤 내용을 말하기로 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하는 말은 얼마가 물문의 물에서 침례를 준 사람들에게 가르쳤듯 우리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게 할 수도 있고,²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하는 사랑, 신뢰, 선의를 약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부지불식간에 단합을 깨뜨립니다. “맞아요. 그분은 훌륭한 감독이죠. 하지만 그분이 젊었을 때 모습을 보셨어야 해요!”

이 말은 다음과 같이 좀 더 건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독님은 참 좋으시죠. 세월과 함께 많이 성숙하고 지혜로워지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런 말로 사람들을 규정짓기도 합니다. “우리 상호부조회 회장님은 너무 고집스럽고 역세요!” 그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상호부조회 회장님이 요즘 좀 유연하지 못하셔요. 어려움이 있으신 것 같으니 도와드리고 지지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회 회원들을 비롯해 어떤 사람도 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못 박을 권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관해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그 말에 드러나야 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항상 더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로 교회 지도자와 회원들을 비난하기 시작하여 그들과 멀어지고 맙니다.

1831년에 교회의 회원이 되었던 시몬즈 라이더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이더는 자신과 관련된 계시를 읽다가 자신의 이름 라이더[Ryder]의 **y**가 **i**로 잘못 표기된 것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일로 생긴 감정 때문에 그는 곧 선지자에게 의문을 품게 되었고, 결국 조셉을 박해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³

우리도 모두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를 바로잡아 주는 경험을 할 것이며, 이는 우리가 그들과 얼마나 단합하는가에 대한 시험이 될 것입니다.

44년 전, 제가 11살이었을 때 저희 가족이 다니던 와드의 집회소가 수리차 대규모 공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현지 및 지역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원들이 어떤 식으로 그 공사에 참여하면 좋을지를 논의했습니다. 그 전에 여러 해 동안 그 단위 조직을 감리하셨던 제 아버지는 이 일은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계약을 맺고 진행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임에서 아버지는 의견을 무시당하셨고, 공개적으로 심한 비난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교회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일하는 분이셨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유럽에서 참전하기도 하셨던 아버지는 믿는 바를 위해 저항하고 싸워 본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실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제 아버지는 본인의 의견을 고집하시며 이미 결정된 내용을 계속 반대하셨을까요?

저희는 와드에서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지 못한 탓에 복음 안에서 약해져 모임에



발길을 끊은 가족들을 보아 왔습니다. 저 또한 초등학교에서 함께했던 많은 친구들이 교회 안에서 결점을 찾으려고만 하는 부모들 탓에 청소년기에 들어 교회에서 충실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 아버지는 동료 성도들과 하나로 남기로 하셨습니다. 며칠 후 와드 회원들이 공사를 돕기로 하고 모이는 날, 아버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함께 집회소로 가자고 가족들에게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께 이렇게 여쭙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빠, 회원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시면서 왜 도우러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얼굴에 나타난 표정을 보았을 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배당 재헌납 때까지 무사히 살아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잔말 말고 가서 공사를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새 예배당을 보지 못하시고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제 어머니의 지시

아래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저희 몫을 다했고, 덕분에 아버지는 물론 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계속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깃세마네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으실 순간을 목전에 두고, 사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⁴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회원 및 지도자들과 함께 있을 때만이 아니라 특히 그들과 함께 있지 않을 때도 하나가 될 것을 결심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와 더 완벽하게 하나 된 느낌을 얻으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38:27.
2. 모사이야서 18:21.
3. Milton V. Backman Jr., *The Heavens Resound: A History of the Latter-day Saints in Ohio, 1830 - 1838* (1983), 93 - 94 참조.
4. 요한복음 17:21.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명예 회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까? 힘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던 힘든 것은 신앙으로 나아가 주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최근 발생한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을 대표해, 도움과 희망을 전해 준 도움의 손길 모든 분들과 진행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2006년 10월 저의 첫 연차 대회에서 저는 전 세계 교회 회원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여러 면에서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주셨으며,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의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또한 신권 열쇠가 완비된 신권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 신권 권능으로 축복을 주고, 봉사하고, 의식을 받고,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성전을 포함한 회복된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또한 지상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인봉 권능을 그분의 종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여 심지어 그분 자녀들의 지상의 부모, 교사,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더한층 확신을 갖고 그분께서 우리를 신뢰하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다룰 질문은,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 성구를 자주 언급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잠언 3:5~7)

우리는 계명이 우리 유익을 위한 것임을, 지도자들이 불안전하더라도 우리를 잘 이끌 수 있음을, 그분의 약속이 확실함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를 아시며 돕고 싶어 하심을 신뢰합니까? 시련과 도전, 힘든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신뢰합니까?

돌아보면, 저는 청소년기나 선교 사업 시기는 물론, 새로 직장 생활을 시작하거나, 부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대가족을 부양하거나, 자립하려고 노력하는 등 가장 힘든 시기에 최고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힘든 것이 좋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힘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강해지고, 겸손해지며, 자신을 입증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손수레 개척자들은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니파이와 형들이 낫쇠판을 얻는 이야기는 두 장에 걸쳐 펼쳐진 반면에 이스마엘 가족의 합류 내용은 고작 세 구절에 불과했을까요?(니파이전서 3~4; 7:3-5 참조) 주님께서는 낫쇠판을 얻는 험난한 과정을 통해 니파이를 강화하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제일 먼저 맺는 성약 하나는 희생의 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희생은 바람직한 뭔가를 포기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치르는 값은 뒤따르는 축복을 놓고 볼 때 적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도록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결코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데 필요한 신앙을 일으킬 충분한 권능이 없습니다.”¹

신회의 구성원들은 힘들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여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였고 끔찍한 속죄의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구주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히브리서 5:8) 배우셨다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발적으로 속죄의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경고하며, 인도하기 위해 오래 참으셔야 하지만, 그 결과 무시되거나, 잘못 이해되거나, 잊혀지시기 일쑤입니다.

계획의 일부

힘든 것은 복음 계획의 일부입니다. 이생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시험받는 것입니다.(아브라함서 3:25 참조) 엘마의 백성들보다도 더 부당하게 고난을 겪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간악한 노아 왕을 피해 달아났지만 레이맨인들의 속박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시련을 통해 백성을 징계하여 “그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신다고 가르치셨습니다.(모사이야서 23:21)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끔찍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를 잘 견디어내”야 한다고(교리와 성약 121:8) 가르치시고, 그렇게 한다면 “이 모든 일이 네게 경험이 되고 네 유익이 될” 것이라고(교리와 성약 122:7) 약속하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쉽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선택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² 또한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³

자연계에서 힘들음은 생명 순환의 한 부분입니다. 병아리가 단단한 알 껍질을 깨고 부화해 나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알을 깨는 것을 거들어 주면 병아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키우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나비는 고치를 빠져나오려고 안간힘을 씀으로써 앞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힘을 키웁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힘든 것은 상수입니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변수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물몬경의 어느 한 시대에 “큰 핍박”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힐라맨서 3:34)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그 겸손한 중에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안에서 점점 더 굳건하여져서 그 영혼을 기쁨과 위로로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습니다.”(힐라맨서 3:35) 또 다른 예는 수년간의 전쟁을 겪은 백성들입니다. “니파이인과 레이맨인들 사이의 전쟁이 심히 길었음으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완악하게 되었으니, ... 또 많은 자들이 그들의 고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니, 이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지극한 겸양으로 스스로 겸손하여졌더라.”(엘마서 62:41)

우리는 제각기 힘든 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선택합니다.

쉬운 것에 주의하십시오

저는 이 부름을 받기 전에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재무 컨설턴트였습니다. 제 일은 기업을 소유한 백만장자들을 상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모두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수많은 힘든 일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을 일구었습니다. 제가 그들과 일하며 가장 슬펐던 때는 자기 자식에게는 좀

더 쉬운 삶을 살게 해 주고 싶다는 말을 들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자녀가 자신처럼 고생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신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을 자녀에게서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방식을 취했던 가족이 있습니다. 제이 시 페니가 여덟 살 무렵 그 부친에게서 재정적으로 홀로서기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일화에 감명을 받은 한 가족의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나 대학원 학비와 개인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습니다.(교리와 성약 83:4 참조) 다행히도 그 자녀들은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비로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몇 명은 대학원까지도 마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근면과 신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그분을 신뢰합니까?”라는 질문을 좀 더 정리해 보면 “그분을 신뢰할 만한 신앙이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퍼센트를 모두 갖고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수익의 90퍼센트를 갖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형편이 더 나을 것이라는 십일조와 관련된 그분의 약속을 신뢰할 만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의 고난 중에 우리를 돌아보실 것이며(모사이야서 24:14 참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실 것이며(이사야 49:25; 니파이후서 6:17 참조), 우리의 고난을 성별하사 우리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임을(니파이후서 2:2 참조) 신뢰할 만큼 충분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니파이후서 2:2 참조.)

그분께서 우리를 현세적, 영적으로 축복하실 수 있도록 계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신앙을 행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끝까지 계속 충실하겠습니까?(모사이야서 2:41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는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모세서 1:39 참조) 그분은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교리와 성약 1:38 참조)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권능을 지니셨습니다.(앨마서 37:16 참조)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아십니다.(이사야 55:8~9 참조)

위험한 세상

오늘날 우리는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부패와 악이 만연하여, 안전한 곳에서도 테러가 일어나고, 경제적 붕괴, 실업, 질병, 자연재해, 내전, 독재적인 지도자 등이 창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과 그의 군대가 (영국 군과) 싸우려는 것도, 우리 개척자 조상들이 도망치려는 것도, 자유를 위한 벨스 만델라의 투쟁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악이 승리를 거두려면 선한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두려운 마음으로 결정하거나 행동에 옮겨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디모데후서 1:7) (경전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저에게 낙담과 두려움이 대적의 도구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힘든 시기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힘든니까?

무엇이 힘든가는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정 상황이 빠듯할 때 십일조를 내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지도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십일조를 내라고 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신앙으로 나아가 결혼을 하거나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배정해 주신 것들로 … 만족”하는 것이(앨마서 29:3)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부름에 만족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앨마서 29:6 참조) 교회 선도는 매우 힘든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이는 누군가에게는 참된 회개 여정의 시발점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었든, 신앙으로 나아가 주님과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힘든 것은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간증

형제 자매 여러분, 제 뒤에 앉아 계신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염원은 주님을 잘 섬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저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주와 구속주가 되셨음에 놀랍니다. 구주가 되는 일은 그분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교리와 성약 19:18)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예상과 그 필요성을 마주하셨음에도 그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누가복음 22:42)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천사가 했던 다음 말에 기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그분의 모범은 참으로 “길ियो 진리요 생명”입니다.(요한복음 14:6) 우리가 그 모범을 따를 때에만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교리와 성약 59:23) 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가르침을 적용했을 때 저는 그분의 모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하나하나가 사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베드로후서 1:4)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물문과 나란히 서는 것이며(제3니파이 5:13 참조) 언젠가는 그분에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마태복음 25:21)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Lectures on Faith*(1985), 69.
2. 토마스 에스 몬슨, “선택”, *리아호나*, 2016년 5월호, 86쪽.
3.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2쪽.
4. John Stuart Mill, *Inaugural Address: Delivered to the University of St. Andrews, Feb. 1, 1867* (1867), 36 참조.



아딜슨 드 파올라 파렐라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가 따라야 할 필수적인 진리

첫번째 시현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현세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일 곱 살 무렵에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엄마랑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도 계속 내 엄마가 되실 거죠?” 어머니는 저의 느닷없는 질문에 이는 지식을 충동원하여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니란다. 천국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는 거야. 나는 네 엄마가 되는 게 아니란다.” 그건 제가 바라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있고 난 후 어느 날, 두 젊은 남성이 우리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을 들어오게 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선교사라고 말했습니다.

이 장로님들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알려준 후에 우리 가족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마다 느꼈던 행복감과 흥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들은 한 소년이 숲속에 들어가 어느 교회가 참된지 하나님께 여쭈었으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¹ 장로님들은 그 시현을 묘사한 그림을 보여 주었는데, 저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조셉 스미스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선교사들은 그 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지상에 다시 존재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²

선교사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을 가르쳐 주었고 종교에 관하여 우리 가족이 했던 질문에 대답해 주었습니다.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도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서 함께할 수 있다고 그들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고, 전통을 포기하며, 교회의 활동 회원이 되는 길은 때때로 평탄치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많은 지도자와 회원들의 도움으로 첫해의 어려움을 헤쳐 나갔습니다.

매주 개종하여 침례를 받는 많은 이들은 물론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수백만 명의 회원들도 첫번째 시현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성신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순한 복음 진리에 따라 생활하려 노력할 때 우리 개개인에게 그 간증을 자주 확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시현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현세에서 행복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지식과 진리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 소년이 무릎 꿇고 진지하게 기도한 덕에 우리가 얻었고 또 따라야 하는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지자를 불러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신다

우리가 첫번째 시현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서 배우는 첫 번째 필수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³ 선견자, 계시자를 부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경고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⁴ 이들은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며,⁵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할 권세를 지니고 있습니다.⁶ 그들의 권고를 엄격히 따르면 우리는 보호받고 이 지상 여정에서 최고의 축복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마치고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공부하던 독신 시절에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에서 연차 대회 신권 총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당시 교회 회장이셨던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모든 귀환 선교사에게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고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⁷ 총회가 끝난 후에 저는 회개하고 선지자의 권고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를 찾기 위해 고국 브라질로 가기로 했습니다. 2개월 간의 인턴 과정을 위해 브라질로 떠나기에 앞서 저는 어머니와 몇몇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제가 신봉감을 찾을 수 있도록 10명의 독신 자매들의 명단을 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동안에 많이 숙고하고 기도한 끝에 저는 그 명단에 있는 자매 한 명과 만나 데이트를 했으며, 약혼하고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유타주 프로보의 학생들에게는 그 짧은 기간에 데이트하고 약혼하는 것이 새로운 일도 아니었지만 브라질 기준으로는 빠른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에 저는 일레인과 결혼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일생의 사랑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모든 분께 그와 같은 명단을 만들라고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제안이라기보다는 권고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지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며, 그분의 권고를 정확히 따른다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본질에 대한 지식

우리가 첫번째 시현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배우는 또 다른 진리는 하나님의 참된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신 존재라는 것과⁸, 실존하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며, 고대와 이 후기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이며⁹,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며¹⁰,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며¹¹,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및 현세적인 복지를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선택의지를 주셔서 강압받지 않고 스스로 그분과 그분의 계명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게 해 주신 하나님이며¹²,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고난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그분처럼 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현재와 내세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신 사랑 가득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이시다

우리는 첫번째 시현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우리 종교의 모퉁잇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와 성스러운 사명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세상에 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 분명하듯이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사망의 결과 중 하나는 우리 육신을 영원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무슨 수를 써도 그것을 되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상 여정 동안에 우리는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되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가 결코 육신을 다시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구주와 구속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상에 오셨으며,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으며, 진실하게 회개하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면전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 이 무서운 괴물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을 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냐. 진정 저 괴물은 사망이요 지옥이니, 이를 내가 육신의 사망이요 또한 영의 사망이라 일컫는도다.”¹³

예수님은 약속된 메시아, 입법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우리 주님, 우리 구주, 우리 구속주, 우리 왕,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이 필수적인 진리와 지식에 따라 행하며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조셉 스미스—역사 1:17~18 참조.
2. 교리와 성약 1:30 참조.
3. 아모스 3:7 참조.
4. 예를 들어, 가르침다: 마태복음 28:20; 니파이후서 9:48; 인도하다: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의 가르침(2016), 262쪽, 경고하다: 에스겔 3:17, 이끌다: 교리와 성약124:45 참조.
5. 니파이후서 3:18 참조.
6. 에스겔 3:4, 누가복음 1:70, 사도행전 3:21, 교리와 성약 1:38 참조.
7. 에즈라 테프트 벤슨, “교회의 독신 성인 형제들에게”, 성도의 벗, 1988년, 7월호, 56쪽.
8. 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9. 교리와 성약 110:2~3 참조.
10. 모사이야서 9:18 참조.
11. 교리와 성약 1:1 참조.
12. 니파이후서 2:27; 힐라맨서 14:30; 교리와 성약 58:28 참조.
13. 니파이후서 9:10.



이안 에스 아던 장로
칠십인 정원회

가장 좋은 책에서 구하라

가장 좋은 책에서 배울 때, 우리는 영적 뿌리를 갉아먹으려는 위협적인 애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저는 잘 가꾸어진 정원의 아름다운 장미 덩굴 사이로 기막히게 위장을 한 베고픈 애벌레를 한 마리 보았습니다. 대만 양상히 남은 줄기만 봐도 누구든 이 애벌레가 그 위협적인 이빨로 연약한 잎사귀를 모조리 갉아먹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위장한 애벌레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애벌레들은 전 세계에 걸쳐 교묘히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고

우리의 삶으로 숨어 들어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우리와 가족과 친구들의 영혼을 뿌리부터 갉아먹습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의 믿음에 관한 그릇된 정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자신의 영적 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교회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려는 세력에 자신을 맥없이 내어주게 됩니다. 몰몬경 시대의 지에즈롭도 믿는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했던 자입니다.



그의 언행은 “백성을 사로잡으려고 놓은 대적의 올무였[고] [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켜, 그의 사슬로 [그들을] 에워”싸려고 했습니다.(엘마서 12:6)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올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거나 구속주의 반석 위에 확고한 기초를 세우지 않으면(힐라맨서 5:12 참조), 우리는 몰몬경에 나온 것처럼 사탄의 사슬에 묶여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인도되어 갈지도 모릅니다.(니파이전서 8:28 참조)

사도 바울이 그 시절 성도들에게 준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사도행전 20:29~30)

우리는 사도 바울과 오늘날의 선지자와 사도들이 주신 경고를 통해 우리를 반대하고 기만하는 목소리에 대항하여 자신을 영적으로 강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저는 와드와 스테이크를 방문하면서 구주와 종의 가르침에 긍정적으로, 충실하게 응답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영적으로 고양됩니다.

안식일을 더 열심히 준수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것은 선지자의 권유에 귀 기울임으로써 스스로를 영적으로 강화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가족들이 성전 의식을 통해 조상들을 찾아 모으면서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회원들이 영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개인 및 가족으로서 드리는 진지한 기도가 신앙의 요새가 되고, 매일 회개하고 성신의 동반을 구하며, 구주와 그분의 속성에 대해 배우고 더욱 그분을 닮아 가려고 노력할 때(제3니파이 27:27 참조), 우리의 영적인 뿌리는 더욱 깊게 뻗어나갑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에게 당신을 따르라며 손짓하십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둡고 모진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 의심과 불확실의 폭풍이



안개구름처럼 몰려올 때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크고 넓은 건물 하나”가 서 있는 “강 저편”에서(니파이전서 8:26)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조롱하고 비하하고 손짓하며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즉시 등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리와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간사하고 교활한 수작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지만 왜곡된 것들이 회자되고, 글로 쓰이고, 자세히 묘사되는 이 시대에 등을 돌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대로 사는 데 전념하지 않는다면 — 즉 ‘온 마음과 정성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살지 않는다면 — 여러분은 어둠을 밀어내기에 충분한 영적인 빛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어둠에서 나와 그의 놀라운 빛으로”, 리아호나, 2002년 7월호, 78쪽) 세상의 빛이신(요한복음 8:12 참조) 그리스도를 따르려는 소망이 있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화되고, 힘을 얻고, 보호받습니다.

우리 삶에 더 많은 빛이 거할수록 의심의 그들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 가득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을 왜곡하고 신앙을 시험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내뿜는

말에 노출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낸다고 했습니다.(야고보서 1:3) 닐 에이 맥스웰 장로님은 이러한 통찰력으로 “인내심 있는 제자는 … 교회가 잘못 알려질 때 놀라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Patience” [Brigham Young University devotional, Nov. 27, 1979], speeches.byu.edu)

물론 우리 교회의 역사와 믿음에 관련하여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올바른 답을 어디서 찾을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견해와 의견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가장 현명한 조언을 주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야고보서 1:5)

경전에는 하나님께 구하려면 그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지혜의 말씀을 구하라. 참으로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학문을 구하라.”(교리와 성약 88:118) 하늘로부터 영감 받은 교회 지도자들과, 명망 있고 주장이 입증되었고 신뢰할 수 있는, 교회 역사 및 교리 학자들이 쓴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표준 경전에

담긴 하나님 말씀의 존엄성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장의 두께만으로 가능할 수 없는, 방대한 영적 통찰로 가득한 경전에서 성신을 통해 진리를 배우고 빛을 키워 나갑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몰몬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보도록 간청”하셨습니다.(“몰몬경의 권능”,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87쪽)

몇 년 전, 제가 피지 수바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무렵, 선교사들이 몰몬경이 지닌 개종의 힘을 더욱 신뢰하게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느 무덥고 습한 날, 두 명의 장로는 라바사의 작은 정착촌에 있는 한 집에 다다랐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풍파를 겪은 듯이 보이는 한 남자가 나왔고 선교사들이 몰몬경의 참됨에 관해 간증하는 것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장로들은 그에게 몰몬경을 주면서 자기들이 그랬듯이 그 책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기도로 알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남자는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제가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배에서 이 책을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그가 바다로 나간 동안 선교사 이동이 있었고, 몇 주가 지난 뒤 새로운 장로들은 그 어부의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는 이미 몰몬경 전체를 다 읽은 상태였고, 책이 참되다는 확인을 받았으며, 더 많은 것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성신의 힘으로 개종하였습니다. 성신은 오래전에 가르쳐지고 우리 시대를 위해 보존된 몰몬경의 모든 사건과 교리에 관한 귀중한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그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은 가족들이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담긴 귀한 통찰을 공부하고 나누며, 교회 공식 웹사이트인 LDS.org에 담긴 교회 자료들을 이용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첫번째 시현의 기록과 같은 복음 주제에 관하여 풍성한 정보를 얻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책에서 배울 때, 우리는 영적 뿌리를 갈아먹으려는 위협적인 애벌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숙고해도 여전히 어떤 질문에는 답을 얻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우리 안에 자라나는 신앙의 불꽃이 꺼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신앙을 키우라는 요청일 뿐, 이로 인해 마음에 짝튼 의심이 증폭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질문에 확실한 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종교의 본질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여러 목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내가 믿나이다”, 리아호나, 2013년 5월호, 94쪽)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뿌리를 가꾸으로써 굳건하게 서 있는 이들의 기쁜 모습을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그들의 신앙과 순종심은 구주 안에서 원대한 희망을 품기에 충분하고, 그들은 이 과정에서 큰 행복을 얻습니다. 이들은 모든 것을 안다고 공언하지 않지만 충분한 지식을 쌓아 평안을 얻고, 더 알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내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필요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말씀에 말씀을 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질 것이며,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으로서 굳건히 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위장한 애벌레가 위협적인 이빨을 드러낼 수 없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되, 참으로 끝까지 그러”할 것입니다.(엘마서 27:2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호세 엘 알론소 장로
칠십인 정원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으로 타인에게 봉사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구 주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¹

구주의 제자들은 새 계명을 통해,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위대하며 신성한 것을 행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이 새 계명과 권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핵심 문구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행위이며 봉사입니다

“사랑은 깊은 헌신, 염려 및 애정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속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²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³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특징”입니다.⁴

몇 해 전, 저희 맏손자인 네 살배기 호세가 제 아내와 놀고 있었습니다. 둘이서 웃음을 터트리며 재밌게 놀던 중 손자가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사랑하세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호세야, 사랑하고말고.”

그러자 호세는 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저를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아내는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며, 손자를 위해 그때까지 한 일과 앞으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아내는 호세에게 똑같이 되물었습니다. 이 현명한 질문도 잊지 않았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넌 어떻게 아니?”

호세는 천진하지만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할머니를 사랑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느끼니까요.” 그날 그랬듯이 항상 호세가 할머니에게 애정 어린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랑은 행위와 깊은 감정이 결합하여 생겨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⁵

다양한 상황으로 인한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재미있는 이모티콘을 담아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멋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즐겁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진정 해야 할 일은 휴대 기기를 내려놓고 손발을 움직여 큰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봉사가 수반되지 않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습니다. 실로 그것은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 곧 자애는⁶ 행동하고 봉사하도록 열의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힘을 줍니다. 제 삶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불러온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쿠퍼의 부모인 테드와 세련은 약 9년 전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을 나누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테드와 세련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쿠퍼의 아버지인 테드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8월 21일 아이들이 개학하던 날, 쿠퍼의 세 형인 이반과 게릿, 로진은 버스 정거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 살 난 쿠퍼는 자전거를 타고 왔고, 아내 샤론은 걸어온 터였다.

아내는 길을 건넌 뒤, 반대편에 있던 쿠퍼에게 이쪽으로 건너오라고 손짓했다. 바로 그때, 차 한 대가 천천히 좌회전했고 쿠퍼는 그 차에 깔리고 말았다.

이웃 사람이 내게 전화를 해서 쿠퍼가 차에 치였다고 알려 주었다. 나는 아들을 보기 위해 급히 차를 몰고 버스 정거장으로 갔다. 쿠퍼는 잔디밭에 누워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쿠퍼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에게 힘이 되도록 “괜찮을 거야. 조금만 견디렴.” 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때, 와드의 대제사 그룹 지도자인 네이션이 그의 아내와 함께 나타났다. 네이션의 아내는 쿠퍼에게 신권 축복을 줄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쿠퍼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축복을 하며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곁에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쿠퍼가 저세상으로 떠나리란 것을 알았다.

쿠퍼는 헬리콥터로 병원까지 이송되었지만, 결국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지상에서 쿠퍼를 돌볼 청지기 직분은 끝났으며, 이제 당신께서 쿠퍼를 돌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병원에서 쿠퍼와 얼마간 함께 있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는 우리가 쿠퍼를 안아 보고 작별을 고할 수 있게 준비해 주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원하는 만큼 아이를 안아 주면서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깊은 슬픔에 잠긴 아내와 서로 바라보며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소년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소년은 우리와 한 블록 떨어진 거리에 살았고 우리와 같은 와드에 다니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아이를 몰랐다.

이튿날도 우리 가족은 슬픔에서 전혀

헤어나지 못했으며, 무척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 나는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그렇게 깊은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며, 내게서 이 큰 슬픔을 거두어 주시기를 구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그렇게 해 주셨다.

그날 오후, 스테이크 회장단의 보좌 한 분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던 청년과 그의 부모님을 만나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나는 아내와 함께 그 보좌 분의 집에서 그 소년과 그의 부모님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우리는 처음으로 그들을 만났다. 감독님이 내게 속삭였다.

“가 보세요.” 아내와 나는 함께 그를 안아 주었다. 그리고 한참 동안 함께 흐느껴 울었다. 우리는 그 일은 그저 사고였다고 그에게 말해 주었다.

아내와 내가 당시에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원대하고 확실하며 유일한 길을 걸을 수 있었으며 이 선량한 청년을 사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러 해 동안 그 청년은 물론 그의 가족과도 매우 가까이 지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와

함께해 주었다. 우리는 그가 선교 사업을 준비할 때 그와 함께 성전에 가기도 했다.⁷

형제 자매 여러분, 테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심 없이 압니다. 그는 용서하여 스스로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용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미롭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본보기가 되시는 분의 모범을 따를 때 이 감미로움을 느낍니다. 물론경에서 엘마는 구주에 관하여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그가 나아가자,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시리니,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짊어지리라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⁸

형제 자매 여러분,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담긴,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처럼 우리도 타인에게 봉사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손자 조지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가족인가요?” 그리고 이렇게 답하곤 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친절하고 사랑으로 가득 차고 자애를 베풀면서 구주의 모범을 따르겠다고 결심”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⁹

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기꺼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타인에게 봉사하고 타인을 용서할 때, 우리는 치유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요한복음 13:34~35.
2. “사랑”, 복음 주제, topics.lds.org.
3. 요한복음 3:16.
4. “사랑”, 복음 주제, topics.lds.org.
5. 모사이아서 2:17.
6. 모로나이서 7:47 참조.
7. 테드 마르테식의 말에서 발췌하여 각색, 미발행 원고.
8. 엘마서 7:11.
9. 토마스 에스 몬슨, “친절, 자애, 사랑”, 리아호나, 2017년 5월호, 67쪽.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의 음성

저는 이 대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먼 저, 어린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네, 이 모임이 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이고, 제가 마지막 연사입니다.

최근 프로보시티 센터 성전을 방문했을 때, 먼빛으로 본 첫번째 시험이라는 그림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께서 어린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빛과 권능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회복의 시작이었던 매우 성스러운 그 사건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 연차 대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그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영적인 권능이 이 연차 대회에 강림해 세계로 뻗어 가는 모습이 보이는 듯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며, 이 성스러운 사업을 인도하십니다. 연차 대회는 그분이 당신의 교회와 우리 개개인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 중 하나임을 간증드립니다.

높은 곳에서 가르침 받음

교회를 조직하던 날, 주님께서는 조셉 스미스를 선지자, 선견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지명하시고,¹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모든 인내와 신앙으로 그의 말을 마치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것같이 받아들일지니라.

이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지옥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그러하다.

주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흑암의 권세를 흠어버리고 너희 유익과 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할 것임이니라.”²

이후에,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 역시 모두 지지되었고,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성임되었습니다.³

지금, 지상에서 주님의 선지자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인도 아래 만난 우리는 우리가 듣는 말씀이 실제로 “주의 뜻이 되며, 주의 생각이 되며, ... 주의 음성이 되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⁴ 고대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⁵라고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현대 사회의 소동과 혼란 가운데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인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⁶

우리는 이 훌륭한 대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200개국 이상에서 수백만의 후기 성도 및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이 93개 이상의 언어로 이 모임에 참석하거나 대회 메시지를 읽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 이 모임에 참석합니다. 우리 중에는 심각한 걱정거리나 진지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멀리서 바라본 첫번째 시험 그림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과 권능이 묘사되어 있다.



하나님의 빛과 영적인 권능이 연차 대회 장소 위에 내려와 임하고 있다.



연차 대회에 내린 권능과 빛은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간다.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새로이 하고, 유혹에 저항하고 장애물을 피할 능력을 강화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

보통 모든 대회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에게 말씀을 준비하는 막대한 책임은 계속 반복되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동시에 성스러운 신뢰이기도 합니다.

수년 전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하기 전, 저는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에게 각 스테이크 대회마다 말씀을 따로 준비하시는지 여쭙어보았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하지만 연차 대회 말씀은 다릅니다. 열다섯 번에서 스무 번씩 원고를 고쳐 가면서 주님께서 저를 통해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지 확인하곤 하지요.”⁷

연차 대회 말씀을 위한 영감이 언제, 어떻게 올까요?

우리는 매 대회마다 지정된 주제 없이도 하늘을 통해 영원한 진리에 관한 주제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것을 봅니다.

제 동료 총관리 역원 한 분은 지난 4월 말씀을 끝낸 직후에 이번 대회 말씀 주제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삼 주 전쯤 이야기를 나눈 다른 분은 여전히 주님에게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감한 말씀을 준비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를 질문했을 때, 한 장로님은 “25년”이 걸렸다고 답했습니다.

때때로 중심이 되는 주제는 금방 떠오르기도 하지만, 그 내용과 세부 사항에는 여전히 엄청난 영적 고뇌가 필요합니다. 금식과 기도, 연구와 신앙은 항상 그 과정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성도에게 전하시는 음성을 반감하는 가식을 원치 않으십니다.

밤이나 이른 아침에 연차 대회 말씀에 대한 인도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말씀은 마음속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했던 생각과 구체적인 단어와 어구가 갑자기 온전한 계시처럼 흘러들어오곤 합니다.⁸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메시지는 매우 일반적인 수도 있고 자신에게 꼭 맞춘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수년 전 연차 대회에서, 선교 사업 준비를 고민하던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한 문장을 나는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⁹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연차 대회에 참석했던 한 젊은 여성은 청혼을 받고 자신이 그 남성을 얼마나 잘 아는지 생각하며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나 충분히 알고 있느니라”라는 구절을 제가 말했을 때, 그 자매님은 영을 통해 자신이 그를 충분히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준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을 고대하며 연차 대회에 참석할 때, 여러분에게 특별히 맞춰진 생각과 느낌이 떠오를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대회에서 그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직 아니라면, 앞으로 이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경험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내어 이번 대회 말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¹⁰

“... [그 말씀들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감에 찬 말씀들을 깊이 있게 공부할 때 더 많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저는 ... 알게 되었습니다.”¹¹

연차 대회 메시지는 앞으로 수개월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시는 내용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옵니다.]”¹²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권유하시며, 당신을

따르라고 권유하십니다.

이 대회에서 들은 다음 말씀들을 생각해 봅시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께서는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며 여러분이 당신이 계신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시고, 사랑하시고, 지켜 주십니다.”¹³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놀라운 여행을 시작하거나 지속할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 주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쓰셔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실 것입니다.”¹⁴

러셀 엠 벨슨 회장은 어제 오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물몬경에 몰두한다면 이 시대의 악으로부터, 특히 외설물이라는 강력한 역병과 정신을 마비시키는 다른 중독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을 약속드립니다.”¹⁵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족 선언문이 영원한 진리를 밝혀 주는 성명이자 영생을 구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그분의 뜻을 간증합니다.”¹⁶

바로 조금 전에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자애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용하고 인종 차별, 성차별, 국수주의 등 어떠한 편견도 지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⁷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회장단에서는 헤일즈 장로님께 건강상 여건이 허락된다면 일요일 오전에 짧게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건강 상태는 좋지 않으셨지만 헤일즈 장로님은 지난 주에 메시지를 다 준비하셨고, 제게 보내 주셨습니다. 3시간 좀 전에 헤일즈 장로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받은 지금, 그분이 준비하신 말씀 중 세 문장 정도를 나누려고 합니다.

헤일즈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갖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 설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 십자가



1979년, 벨슨 박사는 표준 중국어를 공부하라는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의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김볼 회장의 권고를 따른 덕분에 벨슨 회장은 우영개 박사가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도록 이끌었고 벨슨 박사는 중국에서 강연과 수술 집도를 하게 되었다.



2015년 10월에 러셀 엠 벨슨 회장은 공식적으로 “중국의 오랜 친구”로 명명되는 영예를 받았다.



위에서 돌아가신 후, 구주께서는 ‘필멸의 상태로 사는 동안 [그분]에 대한 간증에 충실한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12] ‘...선지자들의 증거...를 거부한’ 자들은 [구주]의 임재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였습니다. [교리와 성약 138:21] 신앙을 통해 우리는 주의 면전에 설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친절한 주님께서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 영감을 주시어 오늘 오전 모임이 끝날 무렵 빨리 자리를 뜨시어, 점심 식사를 거르시고, 헤일즈 장로님의 병상으로 급히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넬슨 회장님은 제시간에 도착하시어, 정원희 회장으로서 헤일즈 장로님이 필멸의 생을 마감하실 때 그분의 아내이신 천사 같은 메리 헤일즈 자매님 곁을 지키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응함

저는 이 대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을 간증드립니다.

주님의 종의 음성이 세상의 생각이나

때로는 우리 자신의 생각과도 반대될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입니다. 십이사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데 저는 그분들의 영혼의 선함을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사려 깊은 기도가 그랬던 것처럼 칠십인, 감리 감독단, 본부 상호부조회, 청년, 초동회 회장단 및 다른 보조 조직 지도자들이 이 모임에 수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연차 대회 메시지에는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하늘의 인도가 담긴 보물 상자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느끼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입니다.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의 삶에서 선지자의 말씀에 응한 그분의 경험에 관한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79년,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5년

전에 넬슨 형제님은 연차 대회 바로 직전 한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께서 “모든 참석자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걸음의 폭을 더욱 넓히도록 요구하셨습니다. 김볼 회장님은 특별히 중국을 언급하시며 ‘우리는 중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¹⁸

54세였던 넬슨 형제님은 그 대회에서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쁜 심장 전문 외과의였지만, 그분은 즉시 개인 교사를 구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넬슨 형제님은 미국 동부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유명한 중국인 외과 의사 우영개 박사” 옆에 앉게 되었고, ...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었던 [넬슨 형제님은 우 박사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¹⁹

선지자를 따르겠다는 넬슨 형제님의 소망은 우 박사의 솔트레이크시티 방문으로 이어졌으며, 넬슨 형제님은 중국을 오가며 강연을 하고 외과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더불어 그분을 향한 중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1985년 2월, 십이사도 정원회 부름을 받은 지 10개월 즈음 넬슨 장로님은 중국에서 걸려온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베이징으로 와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의 심장을 수술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고든 비 힐클리 회장님의 격려를 받으며 넬슨 장로님은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에서 집도한 이 수술이 그분의 마지막 외과 수술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인 2015년 10월에 러셀 엠 넬슨 회장님은 다시 한번 공식 선언서에서 “중국의 오랜 친구”로 명명되는 영예를 받으셨습니다.

어제 우리는 93세가 되신 러셀 엠 넬슨 회장님께서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물문경을 공부하고 숙고해 보[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간청에 관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쁜 심장 외과 의사이셨을 때 즉시 중국어 개인 교사를 구하셨던 것처럼 넬슨 회장님은 지난 4월 연차 대회 이후 몬슨 회장님의 조언을 받아들여 즉시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셨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몰몬경이란 무엇인가, 몰몬경이 확인해 주는 것, 몰몬경이 부인하는 것, 몰몬경이 성취한 것, 몰몬경이 명확히 한 것, 몰몬경이 밝힌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록을 작성”하셨습니다.²⁰

재미있게도,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 역시 오늘 아침 몬슨 회장님의 권고에 응한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처럼 저도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음성이 제게 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처럼 저도 그 말씀에 따르기로 했습니다.”²¹

우리가 이분들의 예를 삶의 모범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간증

여러분이 이 연차 대회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의 속삭임에 따라 행한다면 하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깃들 것을 약속드립니다.²²

이번 대회 기간 동안 사랑하는 선지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몬슨 회장님, 우리는 회장님을 사랑합니다. 몬슨 회장님이 이 연단에서 전하신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었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주고자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마치며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회 말씀과 여러분이 받으신 감흥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즉 가정과 직장과 모임과 모든 일상사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렇게 마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영원히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²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21:1 참조.
2. 교리와 성약 21:5-6.
3. 조셉 스미스는 1836년 3월 27일, 커틀랜드 성전 헌납식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했다. “그때 나는 짧은 연설을 했다. 그런 후 여러 정원회와 회중에게 [제일]회장단을 선지자와 선견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기도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은 모두 기립함으로써 그렇게 하기로 성약했다. 그런 다음 나는 여러 정원회와 회중에게 그곳에 참석한 십이사도를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왕국의 열쇠를 지니고 왕국을 열거나 그들 가운데 왕국이 이루어지게 하며 온 세상의 모든 나라에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들은 일어나으로써 그렇게 할 것에 동의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99쪽)
4. 교리와 성약 68:4.
5. 교리와 성약 1:38.
6.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를 선택하게 되면 우리가 서 있는 기반 자체가 바뀌어 버립니다. 더욱 위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장차 영감어린 권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돕기로 결정한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그가 맨 처음 부탁했을 때입니다. 그 후 그가 계속해서 부탁할 때마다 거절한 사람들은 영에 대한 민감한 감각이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의 요구가 더욱 바보스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늦고 말았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영감 받은 권고를 따르는 것을 미루거나, 나는 그 권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 자신이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의 권고를 듣고, 기도를 통해 그 권고를 확신하고 따랐을 때마다 저는 제가 더욱 안전하게 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권고에서 안전한 길을 찾음”, *성도의 빛*, 1997년 7월호, 25쪽)

7. Neil L. Andersen, “Teaching Our Children to Love the Prophets,” *Ensign*, Apr. 1996, 47 참조.
8.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해롤드 비리 회장님께서 계시와 관련해 ‘아침 일찍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정신이 맑게 깨어 있을 이른 아침을 이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교리와 성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 필요 이상으로 오래 잠자기를 그치라. 일찍 네 잠자리에 들어 피곤하지 않게 하고, 일찍 일어나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이 활력 있게 하라.’(*교리와 성약* 88:124) ...”
9. 저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는 격언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할 때는 밤 늦게 앉아 준비하지 않습니다. 일찍 자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 사업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합니다.”(*Teach Ye Diligently* [2005], 244~45).
9. 닐 앤더슨, “여러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10.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11. 토마스 에스 몬슨,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 하나님이 함께 계시,”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12. 요한복음 10:4.
13. 헨리 비 아이어링,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4. 디이터 에프 우호트도르프, “보향을 향한 그리움,”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5. 러셀 엠 넬슨, “몰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6. 맬린 에이치 옥스,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7. 앤 리셀 벨라드, “여정은 계속됩니다!,”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18. Spencer J. Condie, *Russell M. Nelson: Father, Surgeon, Apostle* (2003), 215.
19. Spencer J. Condie, *Russell M. Nelson*, 215.
20. 러셀 엠 넬슨, “몰몬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리아호나*, 2017년 11월호.
21. 헨리 비 아이어링,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22. 고든 비 힐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배운 내용을 적용할 시험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친절해진다면, 조금만 더 좋은 이웃이 된다면, 구주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자 하는 더욱 굳건한 결심으로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이 대회는 크게 성공한 대회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생활에 아무 진전도 없다면, 말씀하신 분들은 크게 실패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하루나 한 주나 한 달 만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둘러 한 걸음은 빨리 잊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1년이 지난 후, 과거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기간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겸손하고 상한 심령”, *리아호나*, 2001년 1월호)
23. 토마스 에스 몬슨, “폐회 말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이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낸다.

연사	일화
호세 엘 알론소	(119쪽) 호세 엘 알론소 장로의 손주가 할머니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묻다.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용서를 통해 마음의 짐을 벗다.
닐 엘 앤더슨	(122쪽) 한 젊은 여성이 성신의 도움으로 청혼을 승낙하다. 러셀 엠 넬슨 장로가 선지자의 권고를 따른 덕에 중국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다.
이안 에스 아던	(117쪽) 한 어부가 바다에 나가 있는 동안 물문경을 읽고 간증을 얻다.
엠 러셀 벨라드	(104쪽) 후기 성도 개척자 제인 매닝 제임스가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충실하게 남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의 증조부모가 수십 년 동안 충실하게 봉사하다.
진 비 빙엄	(85쪽) 진 비 빙엄 자매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암기하다. 크로아티아에 사는 한 자매가 성전에 가서 세상을 떠난 남편과 부모에게 인봉되다.
태드 알 콜리스터	(107쪽)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의 친구가 교회와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은 뒤 교회로 돌아오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36쪽) 한 선교부 회장이 꿈을 꾸고 난 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다.
쿠엔틴 엘 쿡	(51쪽) 허버 시 킴벌이 영국으로 선교 사업을 떠나다. 조셉 스미스가 토머스 비 마쉬와 모임을 하던 중 교리와 성약 112편을 계시로 받다.
스탠리 지 엘리스	(112쪽) 한 부모가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재정적인 도움을 주지 않으므로써 자녀들을 강화하다.
쉐런 유뱅크	(6쪽) 한 여성이 회개하여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바꾸다.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인간 사슬을 만들어 이안류에 휩쓸린 이들을 구하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와드로 이사오는 한 소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다.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68쪽) 데이비드 에프 에번즈 장로가 어린 시절 복음 관련 질문의 답을 찾고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얻다. 한 여성이 성전 의식에 대한 간증을 얻다.
헨리 비 아이어링	(81쪽) 한 집사 정원희 서기가 저활동 소년을 교회에 초대하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감독 시절, 한 청년 성인이 자신에게 권고를 줄 수 있도록 아이어링 감독이 영감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다. 브리검 영이 조셉 스미스의 선지자 부름에 대해 간증하다. (100쪽)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이 물문경을 공부하라는 문슨 회장의 권고에 순종하여 축복받다. 후기 성도들이 수재민을 돕다.
오 빈센트 할레크	(58쪽) 한 장년 부부가 교회에 개종하기 위해 희생을 치르다. 한 사모아 마을의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마을을 개방하다. 사모아 성도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 부족한 가운데 가진 것을 바치다.
도널드 엘 홀스트롬	(88쪽)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교회 회원이 절벽에서 추락한 뒤 기적적으로 살아남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한 젊은 남성에게 “낮지 않더라도 이를 받아들이” 신앙이 있는지 묻다.
제프리 알 홀랜드	(40쪽) 레프 톨스토이의 이야기에서 완벽하지 않은 성직자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의 삶을 변호하다.
조이 디 존스	(13쪽) 성신이 세 명의 여성에게 하나님의 딸로서의 신성한 가치를 확인해 주다.
조니 엘 코흐	(110쪽) 조니 엘 코흐 장로가 같은 브라질 축구팬과 “동질감을 느끼다.” 조니 엘 코흐 장로의 아버지가 무시당했지만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다.
닐 에프 매리엇	(10쪽) 초등학교 소년들이 한 외톨이 반원에게 그가 특별한 이유를 말해 주다. 닐 에프 매리엇 자매가 사랑하기 “힘든” 친척을 사랑하도록 도움을 간구하다.
리처드 제이 메인즈	(75쪽) 리처드 제이 메인즈 장로가 아버지에게서 절대 고결성을 해치지 말라고 가르침받다.
러셀 엠 넬슨	(60쪽) 러셀 엠 넬슨 회장이 한 아프리카 부족장에게 물문경을 선사하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이 물문경을 공부하라는 문슨 회장의 권고를 따르다. 러셀 엠 넬슨 회장이 외과 레지던트 시절, 슬픔에 잠긴 가족들에게 죽음이 필멸의 삶의 일부임을 가르치기를 갈망하다
보니 엘 오스카슨	(25쪽) 10세 아이와 17세 아이가 가족들에게 봉사할 방법을 찾다. 한 상호부조회 회장이 이웃을 위해 봉사하라는 영감을 받다.
스티븐 더블유 오언	(48쪽) 스티븐 더블유 오언 장로가 새로운 선교사들이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경험했다”는 것을 깨닫다. 한 귀한 선교사가 스스로 “바른 길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다.
아일슨 드 파울라 파렐라	(115쪽) 선교사들이 파렐라 가족에게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다. 아일슨 드 파울라 파렐라 장로가 대학 시절 선지자의 권고를 따라 아내를 찾다.
존 시 핑그리 이세	(32쪽) 네팔에서 온 교회 회원이 유타주에 온 네팔 난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물문경을 네팔어로 번역하는 것을 돕다. 존 시 핑그리 이세 장로가 성신의 도움으로 “신성한 임무”의 목적을 이해하다. 주님은 영적 은사와 시련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신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55쪽)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의 손녀가 선교 사업 중인 오빠와 감동적으로 조우하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가 템플 스퀘어에서 과거에 그가 방문하여 교회로 개종하도록 도움을 주었던 한 자매 선교사를 만나다.
데일 지 렌런드	(64쪽) 데일 지 렌런드 장로가 한 젊은 남성의 신권 축복을 회복하며 기뻐하다.
게리 이 스티븐슨	(44쪽) 성도들이 문슨 회장의 생일을 경축하다. 미국에서 있었던 개기 일식이 수백만 명의 이목을 사로잡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1쪽) 길을 잃은 개 한 마리가 3,220km 떨어진 집을 찾아오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가족들과 함께 교회 유적지를 방문했을 때 초기 교회 지도자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다.
더블유 크리스토퍼 와델	(94쪽) 와델 감독의 가족 여행이 계획 대로 되지 않다. 제이 차 세계 대전에서 실명한 후기 성도가 신앙, 봉사, 주님에 대한 신뢰라는 유산을 남기다.
더블유 크레이그 조위크	(97쪽) 더블유 크레이그 조위크 장로가 성신의 도움으로 글을 읽지 못하던 선교사의 어려움을 이해하다. 세상을 떠나기 전 주께 초점을 맞춘 아들들을 통해 그 가족이 기쁨으로 다음 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되다. 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떨쳐 버린 후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다.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
칠십인 회장단

후안 에이 우세다 장로는 젊은 선교사 시절에 페루의 마추픽추 유적지를 오르던 중 좁은 등산로에서 미끄러졌다. 그는 강 위 610m 높이에서 나뭇가지 몇 개에 필사적으로 매달린 채 간절히 도움을 구하며 기도드렸다. 그날 아침만 해도 입으로 기도한 터였지만, 이제 그는 “비명횡사할 지경에 이르러 마음에서 우러나온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리고 강으로 떨어지려는 바로 그 순간, 다른 선교사가 그를 안전하게 끌어올려 주었다.

그는 그날 배운 많은 교훈 중 하나는 “늘, 언제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며], 진정한 의도를 지니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모로나이사 10:4)”이라고 말한다.

우세다 장로는 2010년 4월 3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시받았다. 그는 2017년 8월 1일에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받았을 당시에 선교사부의 집행 책임자 보조와 북미 동남 지역의 지역 보조로 봉사하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남미 북서 지역 회장단 보좌로 봉사했으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남미 북서 지역 회장으로 봉사했다.

우세다 장로는 페루에서 공부했다. 그는 리마의 호세 카를로스 마리아테기 대학에 입학하여 회계와 홍보 분야를 공부했다. 또한, 센트로 안디노 데 지이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산 루이스 곤자가 대학교에서 홍보학 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했다.

우세다 장로는 교회 교육 기구에서 페루와 볼리비아의 지역 대표로 일했다. 그는 2003년에 페루를 떠나 미국 뉴저지로 이주하여 부친을 도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했다.

우세다 장로는 1972년에 교회의 회원이 된 후, 페루 리마 선교부의 전임 선교사, 스테이크 주일학교 회장단, 감독,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스테이크 회장, 페루 리마 북 선교부 회장(1992~1995), 지역 칠십인 등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그는 1979년 3월에 마리아 이사벨 벤데주 자매와 결혼했으며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었다. ■



패트릭 키아론 장로
칠십인 회장단

패트릭 키아론 장로는 유럽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백만 명의 난민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중동을 떠나 안전한 유럽으로 이주하는 여정을 목격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테러를 피해 탈출한 이야기며 위험을 무릅쓰고 피난처를 찾아 움직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지금, 저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잃은 개인과 가족을 돕고자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이 아낌없이 기부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키아론 장로는 2010년 4월 3일에 칠십인 총관리 역원으로 지시받았으며, 2017년 8월 1일에 칠십인 회장단으로 부름받았다.

키아론 장로는 1961년 7월, 영국 컴벌랜드 칼라일에서 패트리샤 키아론 사이에 태어났다. 그리고 부친이 영국 공군에서 복무했으므로, 키아론 장로는 중동과 영국에서 교육받았다.

그는 교회에 관해 알아보던 중에 우연히 물문경에서 이런 구절을 보게 되었다.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나.”(니파이후서 2:25) 키아론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 구절이 귓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기뻐하라는 구주의 권고를 따를 때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7년 성탄절 전야에 교회에 들어왔다.

키아론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의 교환 학생으로 영국에서 공부하던 제니퍼 캐롤 험을 만나 1991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성전에서 결혼했으며, 부부는 2010년에 그가 부름받기 전까지 영국에 살았다. 슬하에는 네 자녀가 있다.

그는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에서 거주하며 건강 관리, 식품, 자동차,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일했으며, 의사소통 컨설팅 회사를 직접 운영했다. 자선 단체, 학교, 기업 대행사, 대학 등에서 봉사하며 시민 및 지역 사회에 참여하기도 했다.

키아론 장로는 와드 보조 서기, 와드 청남 회장, 감독단 보좌, 지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 등 교회의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

고난의 시기에 내미는 손길

미 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허리케인과 심각한 홍수가 지나간 뒤, 노란색 도움의 손길 티셔츠를 입은 후기 성도들이 재난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었다. 한 연로한 여성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물론들이 올 줄 알았어요!”

텍사스 휴스턴 남 선교부의 선교부 회장인 아론 티 홀 회장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이 일화에는 고난이 닥칠 때 교회가 어떻게 회원과 이웃을 돕는지가 잘 드러난다. 홀 회장은 이렇게 적었다.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의 회원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재해가 닥치면 교회는 보통 가장 빠르게 이에 대응하는데, 재해 지역에서는 자립을 이룬다는 목표로 단기적 및 장기적 복구 과정 동안 교회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계속되곤 한다. 지역의 지도자들은 교회 본부와 협력하여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제공하며, 회원들을 조직하여 물자 분배, 청소, 복원, 재건을 돕게 한다.

최근 교회는 후기 성도 자선회를 통하거나 재난 지역에 설립된 구호 단체와 협력하여 페루의 홍수, 시에라리온의 산사태, 미국 몬태나주와 캐나다 앨버타의

산불,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카리브해 제도(푸에르토리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등)의 허리케인, 그리고 멕시코에 발생한 두 차례의 강진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원조를 제공했다.

9월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회는 기아 대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8개국의 영양실조 어린이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기 위해 미화 천백만 달러(한화 약 124억 8,500만 원)를 출자할 예정이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11개 기관과 협력하여 25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원조의 폭을 넓히고 있다.

후기 성도 자선회는 에티오피아 기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구호 사업을 벌이기 시작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189개 국가의 수백만 사람들에게 약 20억 달러(한화 약 2조 2,578억 원)를 지원했다. ■

십일조 명세서를 사용하면 교회 인도주의적 지원 기금에 기부할 수 있다.

세 곳의 성전이 헌납됨

20 17년 4월 연차 대회 이후 세 곳의 성전이 헌납되거나 재헌납되었다. 5월에는 프랑스 파리 성전, 6월에는 아이다호 아이다호폴스 성전(미국) 그리고 8월에는 애리조나 투산 성전(미국)이 헌납되었다.

아이다호 머리디언 성전(미국)은 2017년 11월 19일, 유타 시더시티 성전(미국)은 12월 10일에 헌납될 예정이며, 유타 조던 리버 성전(미국)은 2018년 5월 20일에 재헌납될 예정이다.

세계 각지에 23곳의 성전이 건립되도록 계획이 발표되었거나 준비 및 건립 단계에 있다. 현재 6곳의 성전이 보수를 위해 문을 닫았으며, 2018년에는 5곳의 성전이 보수를 위해 문을 닫을 예정이다. ■

최신 정보와 자세한 내용은 temples.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 세계에 걸친 선지자와 사도들의 성역

선 지자와 사도들은 “온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부름받는다.(교리와 성약 107:23) 4월 연차 대회 이후 그들이 배운 성역을 일부 소개한다.

지난 8월 21일,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미국 유타주**에서 조용히 90세 생일을 기념했다. 그는 이전 생일에 소원으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거나 아프거나 고독한 사람을 찾아서 무언가를 해 주[는]” 것임을 재차 언급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뉴질랜드** 해밀턴 템플뷰에서 기존 뉴질랜드 소재 교회 대학의 캠퍼스로 쓰이던 시설을 헌납했다. 또한, 허리케인 어마가 휩쓸고 간 **푸에르토리코 세인트 토머스**를 방문했으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청소 작업을 돕고 있던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을 돌아보았다.

디이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미국 텍사스주**를 방문하여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간 휴스턴에서 이웃과 더불어 일하는 후기 성도들을 지켜보며, 이러한 “어떻게든 돕겠다”는 태도는 전 세계 후기 성도들에게서 공통으로 드러나는 모습임을 언급했다.

러셀 엠 벨슨 회장은 **미국 네브래스카주** 주지사에게 가족 역사 한 권을 전달하고, **미국 뉴욕**에 있는 지도자와 선교사들을 방문했다. 또한, **유타주**의 종교 교육원 학생들을 방문하여 성경은 “회복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다.

맬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일본과 한국**의 회원들을 방문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마음에 담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상황과 염려를

아시며,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는 한국에서 실시간 대화 모임을 통해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했으며, 일본에서는 2020년 동경 올림픽을 담당하는 장관을 만났다. 한편, 옥스 장로에게 만남을 요청한 **페루**의 대통령은 홍수 발생 당시 교회가 제공한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벨라드 장로는 **유타주**에서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안식일을 “홀륭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으로 준수하고 교회의 기본 원리와 교리를 공부하도록 격려했다. 또한, 성전 봉사자들에게 지금 건립된 성전들을 복천년에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벨라드 장로는 로널드 에이 래스벤드 장로와 함께 **텍사스주**를 방문하여 허리케인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는 **유타주** 소재 지역 사회 단체가 수여하는 2017 Pioneers of Progress President's Award를 수상했다. 그는 “서로 돕고 북돋우며 강화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개척자의 품성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면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삶에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복음이 있기에 균형 잡힌 관점을 얻고 소망을 품으며 격려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그는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윈저 학회에 참석하여, 많은 이들이 신앙을 통해 난민의 상태를 극복하고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홀런드 장로는 학회가 끝난 후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교회 회원과 선교부 회장 및 선교사들을 만나 조언을 건넸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사도로서는 최초로 서아프리카 3개국인 **세네갈과 기니, 말리**를 방문했으며, 세네갈에서는 헌납



기도를 드렸다. 또한, **나이지리아와 가나**를 방문하여 성도들을 만났다. 그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방송된 전 세계 영적 모임에서 청년 독신 성인들에게 영원한 가족이라는 사슬을 이루는 “굳게 매는 연결 고리”가 되도록 격려했다.

쿠엔틴 엘 쿡 장로는 **대만, 홍콩, 인도, 태국**에서 회원과 선교사들을 만나, “회원들이 성전 및 선교 사업에 집중하면서 교회에 관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그는 **미국 뉴저지주** 시모어 연구소에서 종교의 자유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연사로 나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도덕성을 키우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전진해야 하며 중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쿡 장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변호사협회 회원들을 만나서 신앙을 유지하고, 삶에서 균형을 이루며, 종교적인 자유를 지키도록



왼쪽 끝 상단부터 시계 방향:
 뉴질랜드 템플뷰 헌납식에 참석한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미국
 텍사스주에서 허리케인 하비가
 지나간 후 도움의 손길 행사에
 참여한 한 젊은 자원봉사자를 안아
 주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종교적 박해를 주제로 열린
 제2회 원저 학회에서 바로니스 에머
 니콜슨과 이야기를 나누는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남아프리카를
 방문하여 한 자매와 인사를 나누는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인도
 켄달에 있는 카말라바이 조시
 학교에서 학생들과 인사를 나누는
 크리스토퍼슨 장로, 대만에서 교회
 회원들을 만나는 쿠엔틴 엘 쿡
 장로.

권고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에콰도르와 콜롬비아**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믿음이 우리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를 지탱해 줄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는 **인도**에서 교회를 대표하여 세계 평화상을 받았으며, **네팔**의 대통령과 부통령 및 카트만두 지부에 네팔어 몰몬경을 전달했다.

닐 엘 앤더슨 장로는 허리케인과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푸에르토리코와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을 방문하여 자립과 교육, 그리고 성전 축복을 받기 위한 준비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그는 **미국 애리조나주**의 애리조나주립 대학교에서 개최된 후기 성도 가족 교육의 밤에서 후기 성도들을 향해 “문을 열고, 타인의 믿음을 이해하고 그들에 관해 더 많이 배우라”고 격려했다. 또한, **필리핀**의 100번째 스테이크를 창설했으며, 마닐라에서 확장된

선교사 훈련원을 헌납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콩고 민주 공화국**을 방문하여 현재 아프리카에서 운영 중인 세 곳의 성전과 현재 건립 중이거나 앞으로 건립될 것으로 발표된 다섯 곳의 성전을 언급하며, “주님께서는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의 모든 축복을 받도록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했다

제리 이 스티븐슨 장로는 **바누아투,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와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하와이 캠퍼스를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복음의 보안경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바누아투의 대통령과 수상, 그리고 타히티 파페에테의 대주교를 만났다.

데일 지 렌랜드 장로는 6월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등 5개국을 방문했으며, 과테말라에서 키체어를 사용하는 첫 번째 스테이크를 조직했고, 종교 자유 학회 및 청소년 대회에 참석했다. 8월에는 아내인 루스 엘 랜랜드 자매와 함께 **가나 아크라**에서 방송된 첫 번째 실시간 대화 모임에 참여했으며, 9월에는 **미국 아이다호주**에 위치한 브리검 영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의 학생들에게 그리스도의 교리에 의지할 것을 권고했다. ■

위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의 성역에 관한 최신 정보는 각 지도자의 페이스북 페이지와 prophets.l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료

2017년 9월 14일, 전 세계의 지도자 앞으로 다음과 같은 공문이 발송되었다. “성전과 집회소에서는 청각 장애가 있는 회원들을 돕고자 교회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술에 익숙해져야 하며, 이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장비에 대해 알고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청각 장애가 있는 회원들은 성전에 방문할 때 성전 내에서 전송되는 적외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헤드셋을 요청할 수 있다. 회원들이 집회소에서 무선 주파수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다음과 같다. (1) 예배당이나 활동실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이어폰의 음향을 증폭시키는 휴대 장치인 무선 주파수(RF) 청취 보조 수신기, (2) 개인용 T 코일 호환 수신기에 음향을 바로 전달하는 목걸이형 청취 보조 시스템(ALS).

공문에는 다음과 같은 추가 정보가 실려 있다. “와드 및 지부에서는 여러 개의 무선 주파수[RF] 수신기와 목걸이형 청취 보조 시스템[ALS]을 갖춰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스테이크 시설 대표를 통해 장비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청취 보조 시스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htech.ld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력 상실, 청각 장애 및 수화에 대한 정보는 disabilities.lds.org를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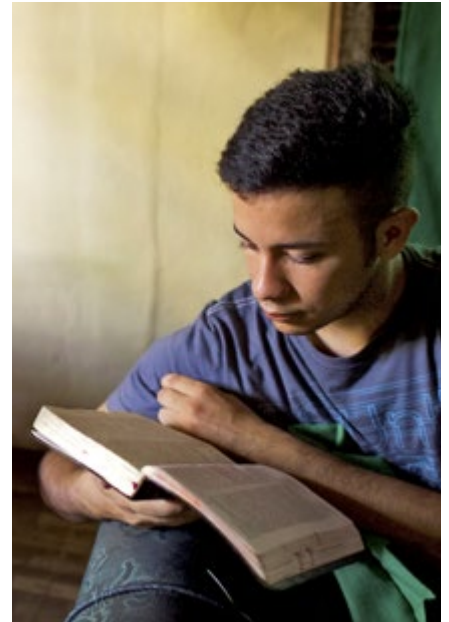
경전이 새로운 언어로 번역됨

지난 수년간 새로운 언어로 경전을 번역하는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물론경을 번역할 새로운 언어는 버마어, 에픽어, 그루지아어, 나바호어, 폰페이어, 세소토어, 칠루바어이다. 물론경 합본을 번역할 새로운 언어는 미국 수화, 아프리카스어, 암하라어, 아랍어, 비슬라마어, 그리스어, 힐리가이노어, 힌디어, 호몽어, 라오어, 링갈라어, 말레이어, 페르시아어, 폴란드어, 세르비아어, 츠와나어, 싱할라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타히티어, 타밀어, 텔루구어, 토티어, 터키어, 트위어, 우르두어, 요루바어이다.

2017년 10월 9일 자 제일회장단 서한에는 이들 프로젝트의 목록과 함께 최종 번역본이 출판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번역 초고를 공부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정이 소개되어 있다.

다음은 이 서한의 일부이다. “여러분은 모든 번역이 완료될 때까지 최종본으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개되는 부분을 LDS.org와 북음 자료실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정된 몇몇 언어의 번역 초고는 2017년 11월 30일부터 공개되기 시작할 것이다. 번역이 완료되면 필요한 검토와 승인이 이루어지고, 초기에 순차적으로 공개되었던 부분들은 최종본으로 대체된 뒤 출판될 것이다.

경전의 본문은 신중하게 번역되므로 번역 프로젝트는 수년이 걸리는 일이다. 그러므로 각 프로젝트는 현재 다양한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다. 승인된 번역 초안의 초기 출시본에는 현지 지도자들이 번역하고 검토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다. 추가 번역본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될



것이며, 현재 번역이 거의 완료된 번역본은 초고를 출판하지 않을 것이다.

제일회장단은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나 보류되고 있다면 “새로운 번역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 사용하는 신앙개조, 성찬 기도문, 침례 기도문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회원과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

후기 성도판 경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성경: 3개 언어, 후기 성도판 성경 외에 선호하는 다른 성경: 95개 언어, 물론경: 90개 언어, 물론경 선집: 21개 언어, 교리와 성약 및 값진 진주: 58개 언어. ■

선교사 훈련원

가나 아크라에 선교사 훈련원이 신축되고, 미국 유타주 프로보의 선교사 훈련원이 확장된 것은 선교 사업이 영원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최근에 가나 아크라 성전 옆에 완공된 가나 선교사 훈련원은 320명의 선교사를 수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 규모가 커진 선교사 훈련원은 아프리카 서부와 남동부에서 오는 선교사뿐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고 전 세계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수용한다. 새로운 건물이 생기자, 선교사들은 모국어인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 각자 봉사하도록 지명받은 지역의 문화와 언어를 더 쉽게 배울 수 있게 되었다.

확장된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은 기존의 두 배인 280명의 선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본래 구내에는 다섯 개의 건물이 있었는데 두 개의 건물이 더 들어섰으며, 인근에는 필리핀 지역 사무실이 있고 건너편에는 필리핀 마닐라 성전이 있다. 필리핀 선교사 훈련원은 1983년에 문을 열었으며, 그때부터 이곳을 거쳐 간 선교사들을 보내거나 받은 나라는 총 60개국에 달한다.

확장된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 신축된 두 개의 6층 건물에는 200개의 새로운 교실과 100여 개의 교수 연습실, 13개의 컴퓨터 어학실이 갖추어져 있는데, 선교사들은 전 세계 여러 지역의 임지로 떠나기 전에 이곳에서 훈련을 받는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3,700명의 젊은 선교사와 장년 선교사가 같은 시기에 훈련받을 수 있다.

교회는 전 세계 각지에 15개의 선교사 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



새로운 가나 선교사 훈련원의 교사가 선교사들이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을 토론하는 것을 들어 보고 있다.



유엔을 방문한 빙엄 자매

2017년 4월 13일, 뉴욕시의 유엔에서 종교인들이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난민 통합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진 비 빙엄 자매는 이 자리에 참석하여 신앙을 기반으로 설립된 기관들이 “모두 협력하여 작고 단순한 수단으로 놀라운 것들을 성취하기 바란다”는 소망을 피력했다.

빙엄 자매는 연례 “신앙에 중점을 둠[Focus on Faith]” 브리핑에서 교회가 난민들과 더불어 기울이는 인도주의적 노력을 언급했으며,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을 덜고자 “힘들지만 보람이 큰 일”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최근 빙엄 자매는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인 쉐런 유뱅크 자매와 후기 성도 자선회 책임자와 함께 유엔아동기금(UNICEF) 현장 방문차 우간다를 내방하고 돌아왔다. 이 모임에는 유뱅크 자매도 동반 참석했다. ■

난민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IWasAStranger.Ids.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빙엄 자매의 말씀 원고는 mormonnewsroom.org/article/sister-bingham-united-nations-transcript에 게재되어 있다.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일요일 모임을 위한 새로운 지침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을 기초로 한 새로운 교과 과정이 시작됨에 따라 일요일 모임에 흥미로운 변화가 생긴다. 첫째 주 일요일에는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기회, 과제를 두고 함께 협의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그 외 일요일에는 새로운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교재 대신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주어진 메시지와 교회의 본부 지도자들이 선별한 주제를 집중하여 다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단지 우리가 공부할 주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은 우리가 준비하고, 가르치며, 함께 협의하고 배우며, 영감 받고 행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멕시코 및 미국의 유타주, 캘리포니아주, 조지아주의 회원과 지도자들은 새로운 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 참여한 바 있다. 다음은 그들이 깨닫고 경험한 내용의 일부이다.

상 호부조회 교사인 낸시 페라켄은 와서 나를 따라라—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용 자료를 처음으로 살펴보았을 때 “교재도 없이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렇게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안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로서 우리의 학습에 관하여 스스로 더 큰 책임을 지고, 복음 안에서 영성을 키우기를 바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린다 하몬은 이렇게 말했다. “많은 자료 없이 그저 주님을 믿고 토론을 이끌 준비를 해 간다는 게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기도하고 연구하고 성전에 가 준비한 뒤에 그렇게 한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영감을 받게 되지요. 정말 놀라워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친다

보이드 로버츠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과제로 삼은 부분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영이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리사 스미스는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과

관련하여 이렇게 말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훌륭한 교수법을 본보이고, 지도자들을 격려하여 계속해서 교사들과 함께 교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하고 가르친다

대제사 그룹 지도자인 데이비드 미켈슨은 교리와 성약 88편 78절의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구절을 들어 이렇게 말했다. “이 문구는 미리 준비하고, 가르치는 동안 부지런히 영을 따를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가르친다면, 구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우리는 더욱 온전히 가르침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보여 주신 완전한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이끄는 사람인 교사는 기꺼이 영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장로 정원회 교사인 애덤 부시먼은 선별된 연차 대회 말씀을 살펴본 뒤 정원회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일지를 기도와 함께 숙고하는 식으로 공과를 준비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한다. “정원회의 일원들이 더 많은 시간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주중에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보냅니다. '일요일에 이 말씀을 주제로 토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협의하고 배운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인 브룩 젠슨은 말한다. "이제 상호부조회 일요일 모임은 지도자들만 책임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각 회원은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시먼 형제는 원을 지어 앉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런 방식을 좋아합니다. 대화의 본질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기대치도 달라집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공과에 참여합니다. 질문을 하면 보통 두세 명의 형제님만 답하셨지만, 이제 새로운 분들이 답을 하십니다."

상호부조회의 일원인 레베카 시백은 이제부터 평의회에 집중할 것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바로 저활동 회원이 된 친구들을 떠올렸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친구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아요. 그들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어려움을 제게 털어놓곤 했어요. 이제 평의회를 중심으로 모임이 진행된다고 하니, 그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평의회는 자매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평의회에 꼭 참석해 주세요.'라고 말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죠."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인 로나마리 쿡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평의회 모임에서 제가 마지막 순서로 말했는데, 사람들에게 생각을 인정받고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었어요."

영감을 받고 실천한다

로버츠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조성하려는 환경은 영이 가르치고 우리는 경청하는 환경입니다. 그런 후에야 영이 교사가 되어 우리가 개인적인 삶과 가족

안에서, 그리고 부름을 행하면서 해야 할 일을 알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영의 속삭임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개종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상호부조회 회장인 수잔 파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방식에 힘입어, 수동적으로 공과를 들으며 '영감에 찬 공과로군.'이라고 생각하고는 곧 잊어버리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의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은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상호부조회 회장단 보좌인 수잔 미첼은 이렇게 말했다. "느낌을 기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며 주님의 더 나은 종이 됩니다."

스미스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나에게 책임이 있고 누군가 내 느낌을 물으리라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간증을 쌓는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대제사 그룹 지도자인 랜든 라운디는 이메일로 토론할 내용과 계획된 내용을 공지하면 "회원들이 주중에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하게 되고 돌아오는 일요일에 이를 나누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다.

로버츠 감독은 이렇게 덧붙였다. "이메일 공지 덕분에 형제들은 주중에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추가로 생각과 느낌을 토론하며 정원회를 강화했습니다. 그렇게 함께 나누고 배우는 분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시백 자매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기울이기를 바라시며, 그 일은 우리가 목적을 갖고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교육 과정을 통해 흥미로운 주제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며, 올바른 출처에서 답을 찾고, 개인적인 계시를 받으며, 이 시대에 필요한 답을 찾고자 살아 있는 선지자에게 의지하며 서로 교화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멜 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모임을 위해 새로 마련된 와서를 따라라 자료들은 2018년 1월부터 교회 전체에서 사용될 것이다. 교회의 단위 조직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준비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다가오는 와드 평의회에서 잠시 시간을 할애하여 함께 자료들을 검토하고 달라진 점을 토의한다.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 와드 평의회 일원들에게 첫째 주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다룰 주제를 제안하되, 와드 또는 지부의 필요 사항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내용으로 준비해 달라고 부탁한다.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지도자들은 해당 조직에서 언제 어떻게 이 필요 사항을 다룰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 앞으로 있을 정원회, 그룹 또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새로운 자료들을 소개하고 토론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각 회원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교사와 지도자들이 교사 평의회 모임에 참석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어려움에 관해 이야기 나누고 새로운 자료에 관한 질문을 다루어 보도록 격려한다.

평의회 모임 엿보기

일 요일 아침, 멕시코 과달라하라 부감빌리아스 와드 소속 45명의 자매가 평의회에 참석했다. 개회 찬송이 끝나자, 상호부조회 회장인 야라 라미레즈 자매가 참석자 몇 명에게 지난주 공과에서 경험한 것을 나눠 달라고 권유한다.

자매들이 잠시 경험을 이야기한 후에 라미레즈 자매가 자리로 돌아가기에 앞서 칠판에 한 단어를 적는다.

바로, “단합”이다.

자매들은 라미레즈 자매가 이끄는 대로 모사이아서 18장 21절을 펴서 읽는다. “... 단합과 서로에 대한 사랑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함께 맺어지고 ...”

“우리는 상호부조회의 일원으로서 이 성구를 실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자매들은 잠시 생각한다. 한 자매가 생각을 말한다. “글쎄요, 청소년들은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그들과 함께 가 줄 성인 자매들이 충분하지 않으니깐요.”

다른 자매가 놀란 얼굴로 말한다. “저는 그렇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묻는다.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요?”

라미레즈 자매가 답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저는 와드 평의회에 참석하면서 이런 필요 사항을 알게 된답니다. 우리가 모두 도울 수 있는 일들이지요.”

“일정표를 만들면 어떨까요?” 누군가 제안한다. 이제 자매들이 좀 더 관심을 보인다. “청소년들은 한 달에 한 번 목요일에 성전에 가도록 일정이 잡힌 것 같아요.”

그중 한 젊은 어머니가 말한다. “저도 성전에 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오랫동안 성전에 가지 못했고, 요즘 저 자신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가서 봉사하고 싶어요.”

몇몇 자매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다. 그들도 역시 원하는 만큼 자주 성전에 가기가 힘들다.

다른 젊은 어머니가 서로 아기를 돌보아 주고 돌아가면서 성전에 가면 어떻게냐고 제안한다.

그런 후 자매들은 각자 어디에 살고 있고, 각 청소년이 사는 지역에 어떤 자매가 살고 있는지를 서로 묻기 시작한다. 그들은 청소년들이 성전을 방문하도록 돌아가며 도움 방법을 놓고 토론한다.

누군가 말한다. “우리도 서로 더 알고 친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활동을 해야 해요!”

자매들은 의견을 내고 질문하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말한다.

평의회가 끝날 무렵, 라미레즈 자매는 서기에게 회의록을 요약해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자매들에게 이렇게 묻는다.

“평의회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들은 모든 이의 필요 사항을 좀 더 잘 인식할 수 있었으며, 자신들의 봉사가

필요하고,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대답한다.

라미레즈 자매가 묻는다. “오늘 경험한 내용에 비추어, 우리 상호부조회에서는 이번 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들은 일요일이면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교회 모임 후에 함께 식사를 하고, 목요일 저녁에는 배구를 하기로 하며, 성전 방문 일정표를 만들고,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도록 도움 방법을 함께 계획하기로 한다.

라미레즈 자매는 각자 주중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권유하며 모임을 마무리한다. “우리는 오늘 단합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나 상호부조회 일원으로 행동할 때나, 성신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여 줄 것입니다. 다음 일요일에 여러분이 경험하신 것을 나누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

평의회 모임을 위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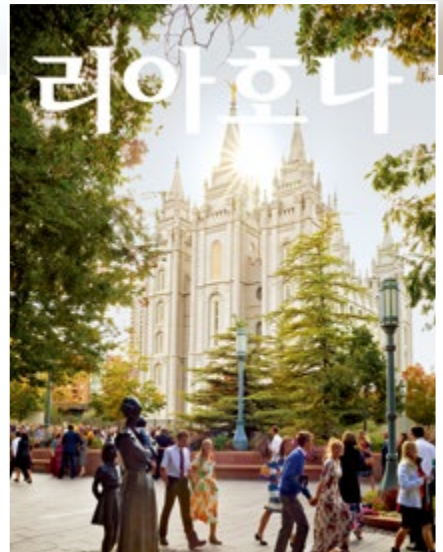
- 인내심을 발휘하고, 함께 협의한다는 것의 의미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게 한다.
- 영을 따르고, 생각을 나누며, 영감을 실천한다는 원리를 명심한다.
- 새로운 제안, 시각, 해결책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
- 각 모임이 끝나기 전에 영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생각해 보고, 그 속삭임을 어떻게 실행할지 결정한다.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평의회에 참석한 상호부조회 자매들



와서 나를 따르라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용



이 자료들을 복음 자료실 앱과
comefollowme.lds.org에서
찾아본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 후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신권을 회복하시고 그분의 사업이 성취되도록 돕기 위해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를 조직하셨다.(모세서 1:39 참조) 그러므로 매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 모일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계획하기 위해 모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임들은 공과반 이상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 이 모임들은 또한 구원 사업에 대해 논의할 기회이자, 구원 사업에 대한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배우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다. 일요일 모임에 대한 이번 변경 사항은 우리가 이런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월간 계획표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모임은 다음 월간 계획표대로 진행된다.

주	목적
첫째 일요일	각 와드/지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기회 및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한다.
둘째 및 셋째 일요일	최근 연차 대회 말씀 중에서 회장단 또는 그룹 지도자가 선별한 말씀을 공부한다. 때에 따라 감독 또는 스테이크 회장이 말씀을 정할 수도 있다.
넷째 일요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선별한 특별 주제를 토론한다.
다섯째 일요일	감독단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모임 진행 방식

앞으로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 모임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다음 방식을 따른다.

1. **경험을 나눈다.** 이전 신권회 또는 상호부조회 모임에서 받았던 영감과 권유로 인해 행하고 경험했던 것을 나눈다.
2. **함께 협의한다**(첫째 일요일, 회장단 또는 그룹 지도자가 모임을 이끈다.) 또는 **함께 배운다**(둘째, 셋째, 넷째 일요일, 부름받은 교사가 모임을 이끈다.)
3.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 개인으로서나 그룹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행동한다.(회장단 또는 그룹 지도자가 모임을 이끈다.)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

매달 첫째 일요일에는 정원회, 그룹, 상호부조회 모임에 교사가 가르치는 공과 모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회장단이나 그룹 지도자들이 평의회 모임을 이끌 것이다. 각 정원회, 그룹, 상호부조회는 해당 워드/지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기회 및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통찰과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배우며, 영을 통해 받은 느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게 될 것이다.

평의회 모임 전

-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 기회,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토론할 주제를 선정한다.
- 모든 사람이 영의 인도를 구한다.
-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나눌 준비를 한다.

평의회 모임 동안

-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이전 평의회 모임에서 받았던 영감에 따라 행동해 본 것이 있다면 그 경험을 나눠 달라고 권유한다.
- 모두가 그달의 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영의 인도를 구한다.
- 지도자들은 핵심 사항을 요약하고 회원들에게 행하도록 권유한다.

평의회 모임 후

- 모든 사람이 각자 받은 영감과 권유에 따라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행동한다.
- 모든 사람이 각자 경험한 것을 다음번 모임에서 나눌 준비를 한다.



“우리 모두는 계시를 받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¹

닐 엘 앤더슨 장로

“우리가 바로 그분의 손입니다.”²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주

1. 닐 엘 앤더슨의 말씀, 애덤 시 울슨, “지침서 훈련에서 구원 사업을 강조하다”, *리아호나*, 2011년 4월호, 76쪽.
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너희가 곧 내 손이니라”,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68쪽.

함께 협의하는 원리

모든 평의회 모임이 똑같이 진행되지는 않는다.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에 의지한다. 여기 시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원리가 있다.

1. 평의회 모임의 목적은 해당 워드/지부가 가지고 있는 책임과 기회 및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각자의 통찰과 경험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서 배우며, 영을 통해 받은 느낌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하는 것이다.
2. 평의회 모임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영의 인도를 받아, 개인과 그룹은 주님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 모임이 끝난 후 나가서 무언가를 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운다.
3. 평의회는 토론을 이끌고 뒷받침하기 위해 경전 및 후기 선지자와 사도들, 기타 총관리 역원과 본부 직원들의 말씀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 정원회, 그룹, 상호부조회가 중요한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때 교회의 영감받은 지도자들의 말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4. 개인 회원 또는 가족에 대한 기밀 사항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 중에 다루지 않는다.
5. 회장단의 일원이나 그룹 지도자는 평의회 모임을 이끄는 역할을 하되 혼자서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토론을 이끄는 사람은 토론의 주제를 소개하고 영이 인도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생각과 경험을 나눠 달라고 권유한다.
6. 토론에 참여하도록 강요받아서 안 되지만, 모든 사람은 비난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한다.
7. 가능하다면 원형으로 앉는 것이 편하게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와 열린 토론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의 예

평의회 모임에서 다룰 토론 주제에 대한 발상이나 제안은 워드 평의회, 회장단 모임, 지역 계획, 회원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지도자가 받은 영감, 그리고 성신을 통해 주어지는 영감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아래

제시된 주제들은 예시일 뿐이다. 지도자들은 영감을 통해 다른 토론 주제를 선정할 수도 있다.

- 우리가 가진 여러 책임들의 우선순위를 더 잘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영을 통해 더 많은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어떻게 하면 친구와 이웃들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가? (엘마서 17장 참조)
- 부적절한 미디어와 외설물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교리와 성약 42:22~23 참조)
- 우리는 자녀들과 워드/지부의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강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정원회, 그룹, 또는 상호부조회에서 단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가? (모사이야서 18:19~22 참조)
- 어떻게 하면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예배에 더 참여하게 할 수 있는가?
-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복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할 때 주님의 도움을 더 잘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 부모는 어떻게 가정에서 더 나은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그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고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자립하도록 도울 수 있는가?
- 보살피고 봉사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봉사할 수 있는가? (베드로전서 4:11 참조)

가능하다면 지도자들은 미리 주제를 회원들에게 알려 주어 그들이 준비된 상태로 토론할 수 있게 한다.



둘째 및 셋째 일요일 모임

매달 둘째 및 셋째 일요일에 멜기세덱 신권회와 상호부조회에서는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및 기타 교회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공부하게 된다.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 나온 말씀이라면 무엇이든 토론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정원회 회장단, 그룹 지도자, 또는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각 조직의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대회 말씀을 선별하여 토론하게 되겠지만, 감독이나 스테이크 회장이 말씀을 정해 줄 수도 있다. 지도자들은 첫째 일요일 평의회 모임에서 토론한 주제에 관련된 말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감에 따라 다른 주제의 말씀을 선정할 수도 있다. 지도자와 교사들은 회원들이 선정된 말씀을 미리 읽고 자신의 통찰을 나눌 준비를 하고 올 수 있도록 격려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래 제안된 학습 활동들은 **구주께서 보여 주신 방법으로 가르침에 나오는 원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이 활동들을 함으로써 회원들은 연차 대회 말씀을 공부할 수 있다.

쉬런 유뱅크, “너희 빛을 밝히라”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의롭고 충실한 여성을 통해 그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몇몇 회원들에게 자신이 생각한 그 여성의 특성이 유뱅크 자매가 이야기한 의로운 여성의 특성들 중 어떤 점에 부합하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권유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유뱅크 자매로부터 “마지막 날에 교회가 물리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배우는가?

닐 에프 매리엇, “하나님 안에 거하며 간극을 매우십시오”

이 말씀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간극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러 종류의 간극에 대한 사진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매리엇 자매는 간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나님 및 주위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에 간극이 생기게 하는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회원들에게 우리 삶에서 그런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매리엇 자매가 제안한 것들을 그 말씀에서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회원들에게 잠시 시간을 주고 하나님과 주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영이 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있다면 적어 보라고 한다.

조이 디 존스, “측량할 수 없는 가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성한 정체성을 이해할 때 어떤 축복이 우리 삶에 흘러 들어오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존스 자매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마, 레누, 타이아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신성한 정체성을 기억하고 받아들이[도록]” 돕기 위해 존스 자매는 어떤 권고를 해 주었는가? 회원들에게 존스 자매의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게 해 주는 경전 구절이나 인용문을 찾고 토론해 보라고 권유한다. 그런 뒤 주위에 스스로의 신성한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그 경전 구절이나 인용문을 나눠 보라고 한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세 자매”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를 여러 작은 그룹으로 나눠 본다. 각 그룹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에 나오는 자매들 중 한 명에 대해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런 뒤 그 자매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권고를 요약하여 편지를 써 보라고 하고 그 편지 내용을 다른 그룹들에게 나눠 달라고 한다. 세 자매들 중 막내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를 어려움에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들 수 있는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분향을 향한 그리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신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라는 소제목 부분을 읽고, 그들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봉사하려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찾아보라고 한다. 이 메시지를 읽다 보면 회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셨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 그들을 축복하셨던 경험을 상기하게 될 수도 있다. 회원들이 이 토론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느끼고 영감받은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해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

보니 엘 오스카슨, “우리 앞에 놓인 필요 사항”

오스카슨 자매의 말씀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맨 위에 “오늘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적힌 종이를 모두에게 나눠 준다. 그런 뒤 상호부조회 또는 정원회 회원들에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답을 목록으로 써 보라고 한다. 그들은 그 목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오스카슨 자매의 말씀에서 찾아보거나 영감에 따라 목록에 새로운 이름을 추가할 수 있다. 몇몇 회원들에게 그들이 배우고 느낀 것을 나눠 달라고 한다.

멜린 에이치 옥스,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정원회, 그룹,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가족 선언문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라는 옥스 장로의 권유를 그들의 가정, 지역 사회,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그들에게 각자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서로에게 나눠 달라고 한다. 가족 선언문에 나오는 몇몇 교리적 선언을 그 말씀에서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선언들은 우리가 “현재 세상의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처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옥스 장로의 말씀 중 IV 부분은 그런 선언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

다음은 상호부조회 및 정원회 회원들이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들이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거룩함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에서 성찬을 취하는 것은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회원들은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말씀 내용을 활용하고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더 거룩하게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동료 성도”로서 어떻게 서로를 도울 수 있는가?

제프리 알 홀런드, “그러므로 너희도 중국에는 온전하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구주의 가르침대로 사는 일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홀런드 장로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을 위안하고 격려해 주는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가? 여러분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생각에 힘들어하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을 이 말씀에서 찾아보라고 상호부조회나 정원회 회원들에게 권유할 수 있다. 또는 그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더 큰 사랑과 찬양 그리고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더 큰 소망”을 느끼도록 영감을 줄 무언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케리 이 스티븐슨, “영적인 일식”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 중 개기 일식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 중 한 명에게 스티븐슨 장로가 “영적인 일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눈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서 나오는 크고 밝고 따뜻한 빛[을] 가로막”을 수 있는 장애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셜 미디어는 어떻게 우리를 “복음에 갇힌 아름다움과 온기, 빛”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영적인 일식에서 보호해 주는 “복음의 보안경”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 복음의 시각을 유지하는 일에 대해 스티븐슨 장로의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쿠엔틴 엘 쿡, “영원한 일상”

쿡 장로의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겸손해지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준다. 그가 가르친 것을 토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회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다. 한 그룹에게는 쿡 장로의 말씀에서 우리가 겸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을 찾아보라고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사람들이 교만을 드러내 보이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한다. 각 그룹이 그들이 찾은 내용을 다른 그룹에게 나누게 한다. 또한 회원들은 그들의 삶에서 “매일 끊임없이 겸손함을 지닐”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 어떻게 겸손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토론해 볼 수 있다.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신성한 계획에 따라”

래스번드 장로의 말씀에 대한 토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몇몇 회원들에게 바느질 옷본, 청사진, 또는 레시피를 가져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도움이 되는지를 이야기해 본다. 회원들은 래스번드 장로의 어떤 예와 가르침을 통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해하게 되는가?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다면 이를 나눠 달라고 권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인도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그분께 보여 드리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을 이해하는 것은 왜 중요한가?

러셀 엠 넬슨, “물론경: 그것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넬슨 회장은 회원들에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라고 권유했다. (1) “물론경이 없는 여러분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2) “물론경이 없다면 여러분이 모르고 지낼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 “물론경이 없다면 여러분이 가지지 못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원회, 그룹,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이 질문들을 숙고해 보고 어떻게 대답하겠는지 말해 달라고 권유한다. 그들은 이 말씀에서 물론경이 “다이아몬드나 루비”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 줄 어떤 내용을 찾을 수 있는가?

데일 지 렌런드, “신권, 그리고 구주의 속죄 권능”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신권을 통해 구주의 속죄에서 오는 축복을 더 가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가? 그들이 이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칠판에 다음 두 문장을 쓴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필요한가?” “신권은 어떻게 속죄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가?” 그런 다음 회원들에게 렌런드 장로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 두 문장 아래에 적을 수 있는 문구를 찾아보라고 한다. 신권과 신권 의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위한 그분의 목적이 성취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하늘의 빛을 지닌 사람”

회원들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늘의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한다. 회원들에게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참고한 경전 구절들을 공부해 보고 영적인 빛에 관련된 진리를 찾아보라고 권유할 수도 있다. 개기 일식에 대한 비유는 영적인 빛을 구하는 과정에서 선택의지의 역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과 “빛을 찾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빛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정원회 또는 상호부조회 회원들에게 그들이 받은 부름 또는 다른 사람의 부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필요했던 경험을 나누 달라고 권유한다.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행사했는가? 그 부름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는가? 회원들에게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을 살펴보라고 한다. 그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인내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가 이 경험에서 배운 진리는 무엇인가?

진 비 빙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빙엄 자매의 말씀은 상호부조회 또는 정원회 회원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록 삶이 고되고 힘들지라도 기쁨을 찾는 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다. 빙엄 자매의 말씀을 토론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칠판에 기쁨이라고 쓰고 그 단어로 향하는 길을 하나 그린다. 몇몇 회원에게 빙엄 자매의 말씀에 나오는, 참된 기쁨으로 이끌어 주는 제안을 하나씩 써 달라고 한다. 회원들에게 빙엄 자매의 권고에 따라 행할 수 있는 방법을 숙고해 보라고 격려한다. 몇몇 회원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 달라고 부탁한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상호부조회 또는 정원회 회원들이 베드나 장로의 말씀을 토론하도록 돕기 위해, 칠판에 안식일, 성전, 우리 가정을 나타내는 사진을 붙인다. 회원들에게 베드나 장로의 말씀에서 각각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 보라고 한다. 그런 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집중하는 데 안식일, 성전,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칠판에 적어 보라고 한다. 우리 삶에서 어떤 것들이 이런 약속들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흩어 버릴 수 있는가? 그 약속들을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헨리 비 아이어링, “선을 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아이어링 회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용기와 신앙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몇몇 회원들에게 아이어링 회장이 이야기한 충실한 사람들의 예를 요약해 달라고 권유한다. 이 예들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이 예들은 우리가 정원회나 상호부조회로서 봉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무엇을 제안하는가? 이 말씀을 토론하는 다른 방법으로, 아이어링 회장이 몰몬경을 공부하라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권고를 따르면서 보게 된 축복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는 몰몬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축복을 보았는가?

엠 러셀 벨라드, “여정은 계속됩니다!”

벨라드 장로의 말씀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길을 잘못 든 경험이 있다면 나눠 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예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여정”에 어떻게 연관되는가? 그런 뒤 회원들은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벨라드 장로의 권고와 경고를 찾아볼 수 있다. 회원들에게 그들이 걷고 있는 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들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토론해 본다.

닐 엘 앤더슨, “주님의 음성”

상호부조회 또는 정원회 회원들은 연차 대회 말씀이 특별히 그들에게 와닿고 의미 있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 말씀이나 메시지가 그렇게 의미 있었는가? 연차 대회 말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들이는 노력과 절차에 대해 앤더슨 장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런 지식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떤 긴박함으로 공부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태도로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는가? 가장 최근 연차 대회에서 권유하고 있는 사항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보는 것을 고려해 본다. 이런 권유에 따라 행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 보았는가?

넷째 일요일 모임

매달 넷째 일요일에 정원회, 그룹, 상호부조회에서는 제일회장단 및 십이사도 정원회에 의해 선별된 주제를 토론하게 된다. 이 주제들은 매 연차 대회 때 업데이트될 것이다. 다음 연차 대회 때까지의 주제는 안식일이다. 지도자 또는 교사는 아래 제안된 교리 및 학습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몇 개를 골라 합치거나, 해당 회원들의 필요 사항에 따라 자신만의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이다.

인류 역사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몇몇 위대한 기적과 업적을 행하실 때 이를 안식일과 결부하셨다. 이런 일들에는 창조(창세기 2:1~3 참조),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탈출(신명기 5:15 참조), 구주의 부활(요한복음 20:1~19; 사도행전 20:7 참조)이 포함된다. 회원들에게 이 구절들을 살펴보고 이 각 사건들을 되새겨 보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함당하게 지키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해 보라고 권유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기적과 업적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일들을 안식일에 어떻게 기억해 볼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가능하다면 이런 질문들을 그들의 가족과 토론해 보라고 권유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은 또한 주의 날이라고도 불렸다.(요한계시록 1:10 참조)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불린다고 생각하는가? (마태복음 12:8 참조) 회원들이 안식일에 하는 일들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줄 몇몇 경전 구절을 함께 읽어 본다.(예를 들어, 힐라맨서 5:12; 이더서 12:41; 모로나이서 10:32; 교리와 성약 6:36~37 등) 회원들이 좀 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안식일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는 다른 구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안식일 내내 구주에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일에서 모범이 되신다.

구주께서는 필멸의 성역 동안 안식일에 대해 가르칠 기회를 찾으셨다. 회원들에게 다음 기사들을 읽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신 일과 그분이 가르치신 원리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다. 누가복음 6:1~11; 13:11~17; 요한복음 5:1~20; 9:1~16.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대한 어떤 다른 원리들을 배우는가? 출애굽기 20:8~11; 31:12~18; 이사야 58:13~14; 교리와 성약 59:9~19. 회원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눠 달라고 권유한다.

또한 러셀 엠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리아호나*, 2015년 5월호, 129~132쪽 참조.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다.

칠판에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회원들에게 무엇이든 그 단어와 관련된 다른 단어를 그 옆에 써 보라고 한다. 그런 다음 칠판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각 부분 위에 전, 동안, 그리고 후 라고 적는다. 그분의 거룩한 날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 모임 전, 교회 모임 동안, 그리고 교회 모임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회원들과 함께 모사이야서 18:17~29 및 모로나이서 6장을 읽어 볼 수 있다. 회원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태도와 안식일에 하는 행동이 그날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 권유한다.(출애굽기 31:16~17 참고) 우리 가족과 와드 회원들이 교회 모임 동안 예배하면서 더 훌륭한 경험을 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성찬을 취할 때 항상 영을 동반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을 칠판에 쓴다. 성찬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회원들을 둘씩 짝지어 주고 교리와 성약 20장 77절 및 79절에 나오는 성찬 기도와 교리와 성약 59:9에 나오는 권고 중에서 한 문장이나 구절을 선택하여 토론해 보라고 한다. 각 조에게 시간을 주고 그들이 정한 문장이나

구절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성구를 찾아보라고 권유한다. 그런 뒤 그들에게 칠판에 적힌 질문에 어떻게 답할 것인지 토론해 보라고 한다. 또한 회원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찬 찬송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노래를 함께 불러 볼 수도 있다.

또한 쉐릴 에이 에스플린, “성찬—영혼을 위한 재생”,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14쪽을 참고한다.

안식일은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날이다.

구주께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신 방법들을 되새기고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구주의 모범에서 안식일에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회원들에게 다음 성구들을 읽고 토론해 보라고 권유한다. 마태복음 9:10~13; 누가복음 19:1~9; 요한복음 11:32~46; 13:1~5, 12~17; 제3니파이 17:5~10 회원들에게 이 성구들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에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가를 숙고해 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가족에게 봉사할 수 있고, 가정 복음 교육이나 방문 교육 대상인 개인이나 가족에게 연락하고 방문할 수 있으며, 가족 역사를 탐구하고, 아픈 이들을 방문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다. 회원들은 가족과 함께 가족 평의회를 열어 안식일에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획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교회의 제187차 반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키를 잡고 계시다는 엄숙하고도 기쁨에 찬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회와 종들을 인도하십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지상에서 거룩한 신권 열쇠를 모두 지니시고 행사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분의 회복된 교회 안에서 참으로 기꺼이 그리고 훌륭하게 봉사하는 모든 겸손한 종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음을 간증합니다. 그분들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신권 열쇠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위치에서 봉사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가족이 영생과 승영을 준비하기 위해 따라야 할 복음 계획은 교회에서 1995년에 발표한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

그 선언문은 지난 22년 동안 교회의 가르침과 관행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선언문을 그렇게 여기고, 가르치고, 그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향해 나아가갈 때 여러분은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사십 년 전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모든 세대에게는 그 세대에 맞는 시험이 있으며 이를 이겨 내고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가족 선언문을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활용하는가가 바로 이 세대에게 주어진 시험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구원의 계획과 가족 선언문”, 29, 30~31쪽.

춤,
캐슬린 피터슨